

차례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i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iii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약어	ix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x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xiii
주석:	
창세기 연구에 들어가는 말	1
창세기 개론	3
창세기 1:1-2:3	12
창세기 2:4-25	40
창세기 3:1-24	52
창세기 4:1-26	70
창세기 5 장	79
창세기 6:1-22	84
창세기 7 장	98
창세기 8:1-22	102
창세기 9:1-29	106
창세기 10:1-32	116
창세기 11:1-32	125
부록: 신앙적 진술	132

특별주제 목차

지구의 연대와 형성, 창 1 장, 들어가는 말	17
음, 창 1:5	23
자연적 자료, 창 1:24-2:3 에 대한 문맥적 통찰	30
예배, 창 2:3	36
하나님의 이름, 창 2:4	42
타락에 대한 신약 신학적 발전, 창 3 장 개론	54
뱀, 창 3:1	56
개인적 악, 창 3:1	57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는가? 창 3:21	65
올랐(영원히), 창 3:22	65
그룹, 창 3:24	68
“알다,” 창 4:1	72
창 6 장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창 6:2	85
키 큰/강한 전사들이나 종족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 창 6:4	89
의, 창 6:9	91
언약, 창 6:18	96
포도주와 독주, 창 9:21	109
인종적 우월감, 창 9:25	112

이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가. 사전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전이 여러 종류가 있다.

- 가.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찰스 A. 브릭스가 공저한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이것은 윌리엄 게제니우스의 독어판 사전에 기초한다. 이 책은 약어로 **BDB** 로 알려져 있다.
- 나. 루드빅 쾰러와 발터 바움가트너가 저술하였고 M. E. J. 리차드슨이 영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이 책은 약어로 **KB** 로 알려져 있다.
- 다. 윌리엄 L. 할러데이가 저술한 *간이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이 있는데 이 책은 독일어로 쓰여진 위의 사전에 기초한다.
- 라. 윌렘 A. 반 게머른이 편저한 다섯 권으로 된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이 책은 **NIDOTTE** 로 표시된다.

특별히 사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곳에서, 나는 여러 영어 번역본(NASB, NKJV, NRSV, TEV, NJB)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축어적”인 것에서 “역동적 등가번역”을 따르는 것까지 다양하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8-44 쪽).

나. 문법

문법적인 내용은 요한 요셉 오웬의 4 권으로 된 *구약의 분석적 열쇠*에 일반적으로 의존한다. 이 책은 벤자민 데이빗슨의 *분석적 히브리어 갈대아어 구약사전*으로 뒷받침된다.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시리즈의 구약주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문법적 구문적 자료는 국제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을 돕기 위한 시리즈”이다. 이 책은 “_____의 핸드북”이란 이름을 가진다.

다. 본문

나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맞소라 모음부호와 각주를 포함하지 않는)이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다. 전체가 손으로 직접 쓰여진 고대의 본문이므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 가. *하팍스 레고메논*(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단어)
- 나. 관용적 용어(문자적 의미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단어나 구)
- 다. 역사적 불확실성(고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 라.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셈어에서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점
- 마.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후기의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 바.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히브리 서기관들은 그들이 필사하는 본문을 완전하게 하여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을 자유롭게 고치는 경향을 가짐(NIDOTTE, 52-54 쪽)

맞소라본문 전통 이외에 히브리어 단어와 본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다.

가. 사마리아 오경

나. 사해사본

다. 몇 가지 후기의 동전, 편지, 도편 자료(불에 굽지않은 도자기 조각 위에 쓴 글)

그러나 구약은 많은 경우 헬라어 신약 사본의 경우와 달리 사본적 계보가 없다. 맞소라 본문(주후 900년 경)에 대한 본문적 신뢰성에 대하여는 NIDOTTE, 1 권 51-67 쪽에 있는 브루스 K. 왈트키의 “구약 성경 본문의 신뢰성”을 참고하라.

본 주석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독일성서공회에서 1997년에 발행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인데 이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주후 1009년)에 기초한다. 간혹 히브리어 본문이 명료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대 사본들(헬라어 70 인역, 아람어 탈군,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 불가타)를 참조하였다.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는데)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 에서 아랍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어떤 민족들도 셈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 나. 가나안어(주전 15 세기에 우가릿어로 쓰여진 *라스 샴라 서판*)
- 다. 가나안어(주전 14 세기에 가나안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아마르나 편지*)
- 라. 페니키아어(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한다)
-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두 단어]; 램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 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 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의 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우가릿어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 3. 사마리아 도판,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 6. 사해사본 본문들
-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 의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 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구분된 단어를 사용한다. 단어의 뜻은 전승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 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사전과 아람어 사전은 이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다음을 보여 준다

- 1. 수—단수, 복수, 쌍수

2. 성—남성과 여성(중성은 없음)
 3. 태—직설법, 가정법, 명령법(행동과 사실과의 관계)
 4. 시제(동사의 상)
 - ㄱ. **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의 시작, 계속, 종결되는 의미에서 마쳐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 형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점은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함을 뜻할 수 있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함을 나타낸다”(36 쪽).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어떻게 완료형의 시제를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 ㄴ.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불확실한)임을 뜻하며,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대개 이 동사 형태는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을 말한다.
 -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이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곧,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말하기를

“미완료형은 상과 태를 함께 나타내므로 이것의 본질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때는 미완료형이 직설법적 의미로서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다른 경우에 이 동사형태는 어떤 행동을 보다 더 주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가능한 것 등이 쓰인다”(89 쪽).
 - ㄷ. 첨가되는 **와우**, 이것은 **동사**를 그 앞에 나오는 **동사(들)**의 행동에 연결시킨다.
 - ㄹ. **명령형**, 이것은 화자의 의지와 청자가 할 여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ㅁ.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직 큰 문맥이 저자가 의도한 시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 나. 일곱가지 주요 어형변화 형태와 그 기본적 의미. 실제로는 이 동사형태가 문맥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된다.
1. **갈동사**,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형태이면서 모든 동사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2. **니팔동사**, 두 번째로 자주 쓰인다. 대개 **수동형**이지만, 이 동사형태는 또한 상호작용이나 재귀적 기능을 갖는다. 이 동사도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3. *피엘*동사,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칼*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발전되거나 어떤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4. *푸알*동사, 이것은 *피엘*동사와 대응하는 **수동형**이다. 종종 **분사**로 사용된다.
5. *히트파엘*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이다. 이것은 반복적 혹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수동형**은 드물게 사용되며 *호트파엘*이라고 불린다.
6. *히필*동사, 이것은 *피엘*동사와 대조되며 원인을 나타낸다. 이 동사형은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원인을 드러낸다. 독일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에른스트 엔니는 *피엘*동사가 일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나타내고 *히필*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인다고 믿었다.
7. *호팔*동사, 이것은 *히필*의 **수동형**이다. 마지막 두 동사형태는 7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위 사항의 대부분은 브루스 K. 왈트키와 M. 오카너가 공저한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43-452 쪽을 참조했다.

작용자와 원인자 도표. 히브리어의 동사체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는 이것을 **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형태는 다른 동사형태와 대조를 이룬다(예, *칼-니팔*, *피엘-히필*)

다음의 도표는 원인과 관련하여 동사형태의 기본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태 또는 주어	이차 원인자가 없음	능동적 이차 원인자	수동적 이차 원인자
능동태	<i>칼</i>	<i>히필</i>	<i>피엘</i>
중간태 수동태	<i>니팔</i>	<i>호팔</i>	<i>푸알</i>
재귀/상호관계적	<i>니팔</i>	<i>히필</i>	<i>히트파엘</i>

이 도표는 최근의 아카디아어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사체계에 대한 좋은 자료에서 왔다(참조, 브루스 K. 왈트키, M. 오카너,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54-359 쪽).

R. H. 케넷은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짧은 논의*에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르치면서 각 동사형태가 히브리인의 마음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말하면 각 히브리어 시제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형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 시제를 획일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각 히브리어 동사형태가 구약성경의 언어에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는 분명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히브리인들이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함에서 보듯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그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각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제시하고 있는대로 각

행위의 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 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룹,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다. 법(오직 현대 서양 언어에서 유추한)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 가. 특별한 의미를 더 내포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 (1) **칭유법**(자음 ח 이 추가됨), 이것은 1 인칭 **미완료형**으로서 소원, 청원, 혹은 자기 격려(즉, 화자가 소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2) **지시법**(내적 변화), 이것은 3 인칭 **미완료형**으로서(부정문의 경우 2 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 허가, 충고, 혹은 권면을 나타낸다
 - 나. **완료 시제**를 **루** 또는 **루레**와 함께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제 2 유형의 조건절**과 유사한 구문이다. 거짓 진술(조건절)이 거짓 결론(조건문의 귀결절)으로 결과를 맺는다.
 - 다. **미완료** 시제를 **루**와 함께 사용한다
문맥과 **루**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법적** 용법을 가진다.
J. 와쉬 왓쓰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 나오는 몇 가지 예는 창 13:16; 신 1:12; 왕상 13:8; 시 24:3; 사 1:18(참조, 76-77 쪽).

라. *와우*-전환/연속/접속. 히브리어(가나안어)가 갖는 이 독특한 구문적 특성은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 용법은 장르마다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초기의 학자들이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비추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가져오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고대의 고풍스럽게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탓으로 핑계를 댔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시간)에 기초한 **동사형태**를 갖는 언어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샘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와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 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즉 *와우*가 추가된 미완료형의 동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제 자체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니라,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특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와우* **완료형**은 예언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이며, *와우* **미완료형**은 이야기체에서 잘 사용된다(54, 68 쪽).

*와쓰*는 계속해서 정의하기를

“*와우* 접속법과 *와우* 연속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석에서 나타난다:

1. *와우* 접속법은 항상 병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2. *와우* 연속법은 항상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와우*가 연속적인 미완료형과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는 미완료형의 관계는 시간적 연속, 논리적 연속, 논리적 원인, 또는 논리적 대조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다”(103 쪽).

마. 부정사 – 두 종류의 부정사가 있다

1.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구문이다. ... 주어로서 사용될 때 종종 쓰여진 동사없이 나타난다. 부정사 절대형이 홀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략된 동사는 “~이다”라는 동사로 이해된다” J. *와쉬* *와쓰*,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92 쪽).
2. **부정사 연계형**, 이것은 “전치사, 소유 대명사, 연계 관계에 의해 문법적으로 문장에 연결된다”(91 쪽).

J. *와인그린*은 *고전 히브리어의 실제적 문법*에서 연계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합성할 경우에, 의존적인 단어(혹은 단어들)가 연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44 쪽).

바. 의문법

1. 이것은 항상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2. 해석적인 중요성
 - ㄱ. *하-*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ㄴ. *할로’-* 저자가 “네”라는 답을 기대한다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사. 조건절

1. 4 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 (1) *임*
 - (2) *키*(혹은 *아췌르*)
 - (3) *힌* 혹은 *힌네*
- 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절은 항상 완료 시상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데 불변화사인 루 혹은 *를레*로 시작한다
- ㄷ.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건절은 항상 미완료형 동사나 분사가 조건절에 사용되는데, 대개는 불변화사인 *임* 혹은 *키*로 시작한다.
- ㄹ.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절은 미완료형 가정법이 조건절에 나오고 항상 불변화사 *임*으로 시작한다.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쇄,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4 권), 조지 A. 머트릭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빅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페쉬타), 조지 M. 램사
LXX	칠십인역(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NEB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RSV	새 개정 표준역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5 권), 메릴 C. 텐니 편저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신약 헬라어 본문은 네 번째 개정판이다(UBS⁴). 이 책은 현대 원문 연구학자에 의해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2.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 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3.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⁴)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6.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과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세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 년 6 월 27 일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담담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좌절,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랬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I.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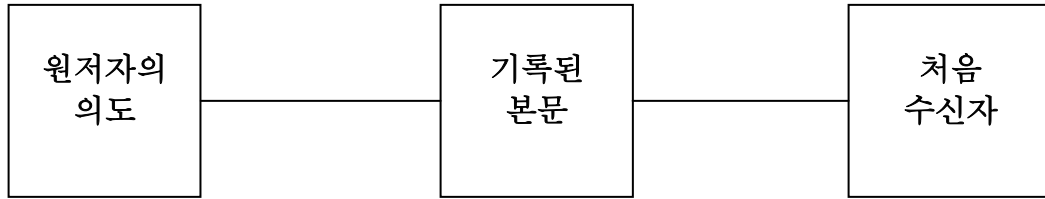
- (1)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 (2)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3)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4)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 (ㄱ)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 (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 (ㄷ)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 (ㄹ)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 본 문학적 단락의 개요
 - (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 (ㅂ)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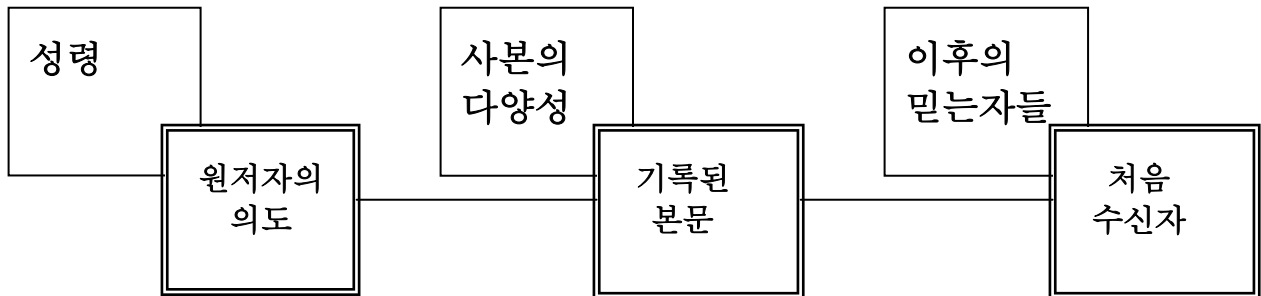
II. 부적절한 방법들

- (1)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2)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3)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4)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회화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5)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춘 다른 독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은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역사적 배경
- (2) 문학적 배경
- (3) 문법적 구조(구문법)
- (4) 당시의 용법
-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6) 문학적 장르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 (1) 독서의 첫 번째 단계
 - (ㄱ)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i)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ii)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iii)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 (ㄴ) 책 전체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 (ㄷ)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 (ㄹ)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i)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ii)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 (2) 독서의 두 번째 단계
 - (ㄱ)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 (ㄴ)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 (ㄷ)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 (3) 독서의 세 번째 단계
 - (ㄱ)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 (ㄴ)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i) 저자
 - (ii) 날짜
 - (iii) 수신자
 - (iv)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v)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vi)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 (ㄷ)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ㄹ)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 (4) 독서의 네 번째 단계
- (ㄱ)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i)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ii)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iii)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 (ㄴ)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i) 반복적인 표현, 엠 1:6, 12, 13
 - (ii)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iii) 대조되는 개념들
 - (ㄷ)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i) 중요 용어
 - (ii)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iii)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iv) 어려운 단어, 절, 문장
 - (ㄹ)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i)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ㄱ) “조직신학”책
 - ㄴ) 참조성경
 - ㄷ) 성구사전
 - (ii)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iii)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ㄱ)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i) 해설 있는 성경
 - (ii)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iii) 성경개론서
 - (vi)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1)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2)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3)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4)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5)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접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 (1)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거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1)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 (2)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3) 각 장 혹은 주요 문학적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 (ㄱ)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 (ㄴ) 뉴킹제임스역(NKJV)
- (ㄷ) 신개정표준역(NRSV)
- (ㄹ) 현대영어성경(TEV)
- (ㅁ) 예루살렘역(JB)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 (4)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 (ㄱ) 문학적 상황
- (ㄴ)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 (ㄷ) 문법적 지식
- (ㄹ) 단어 연구
- (ㅁ)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5)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 (ㄱ)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 (ㄴ)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의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 (ㄷ)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 (ㄹ)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영어 등가 번역본인 예루살렘역
- (6)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 (ㄱ) 사본의 다양성
 - (ㄴ)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 (ㄷ)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 (ㄹ) 애매한 본문
-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 (7)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창세기 1-11 장의 연구에 들어가는 말

가. 창 1-11 장은 현대 서양 과학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1. 완전히 대립됨
2. 완전히 일치함
3. 유사성이 있음

과학은 연구의 한 방법이다. 이것은 현대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새로운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변화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은 자연(자연적 계시, 참조, 시 19:1-6)과 성경(특별 계시, 참조, 시 19:7-11)의 “두 책”으로 종합된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 기록하셨다! 이들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나. 창 1-11 장은 현대 역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1. 동서양의 문학형태는 다르다. 참이나 거짓, 옳고 그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창 1-11 장의 내용은 역사 이전의 시기에 속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가리워져 있다(단순한 문학적 방식에 의해). 문학적 장르에 의해 감추어지고 역사적 드라마에 의해 감추어졌으며, 역사의 끝이 감추어졌듯이 감추어졌다(즉, 계시록).
2. 유대교처럼 기독교는 역사에 기초한 종교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지거나 혹은 넘어진다. 그러나 어떤 사건(즉, 창 1-11 장)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즉, 적합화하기)으로 전달되었다. 이 말은 결코 그 내용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신학적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구속)에 초점을 둔다.
3. 창세기는 “역사의” 틀 안에 위치한다. 우리는 12 장부터 세속역사(즉, 누지 서판과 마리 서판)와 분명한 연결고리를 이루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1-3 장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문학장르에 따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 창 1-11 장은 문학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1. 메소포타미아 자료와 1-2, 3, 6-9 장이 평행을 이룬다. 종종 용어, 세부 사항, 이야기의 구성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신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은 독특하다.
2. 성경을 문학으로 이해할 때 적어도 두 가지의 위험이 있다.
 - ㄱ. 문학으로 볼 때 성경이 신화적이고 완전히 비역사적으로 될 수 있다
 - ㄴ. 문학으로 볼 때 성경의 비유적 언어나 동양적 장르나 드라마 같은 내용을 문자적 우화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과 문화에서 인간의 언어(즉, 은유, 유추, 부정)를 사용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참이고 믿을만 하지만 모든 내용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아니다.

3. 창조는 점진적 계시의 진리이다. 창 1-2 장이 기초를 이루지만 적합한 관점을 갖기 위해 시편과 신약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의 자료는 창조의 방법과 목적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돕는다.

라. 창 1-11 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날 것인지는 감추어졌다(창 1-11 장과 계시록, 즉, 우리는 희미한 유리를 통해 본다).
2.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완전하게 문자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선별되고 해석된 사건들을 가지고 있다.

3. 우리가 창 1-11 장을 통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 ㄱ. 문학적 장르
 - ㄴ. 신학적 강조점
 - ㄷ. 역사적 사건
 - ㄹ. 현대 서양의 과학/문화/편견
4. 타락한 인간은 모두 성경 앞에서 있고 성경(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심판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넘어서지만 성경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믿는 자들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지만(약간 부족하게) 모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진리에 반응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것은 인간의 반역을 드러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드러낸다. 우리의 영원성은 이러한 진리와 연결된 것이지, 창조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진 것과 창 1-11 장의 사건에 대한 이해에 달린 것은 아니다. 이 진리는 전적으로 누구와 왜의 문제인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창세기 서론

I. 책의 이름

- 가. 히브리어 성경(즉, 맛소라 본문)에서 이 책의 첫 단어는 *베레컬* (“태초에” 또는 “시작으로서”)이다.
- 나. 헬라어 성경(즉, 70 인역)에서 이것은 *제네시스*로 “시작”이나 “기원”을 의미하며 창 2:4a에서 따온 것이다. 이것은 저자의 중요한 “개요적 표현”이거나 혹은 바벨론 설형문자 저자들이 했던 것 처럼 다른 신학적 내용을 가진 전기를 서로 연결하는 목적으로 적어 넣은 책 끝의 글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이 개요적 표현은 서론이 아닌 요약의 기능을 가진다.

II. 정경화

- 가. 이것은 “토라” “가르침” “율법”으로 불리는 히브리어 성경의 첫 부분 가운데 첫 번째 책이다.
- 나. 70 인역에서 이 부분은 오경(즉, 다섯 개의 두루마리)으로서 알려진다.
- 다. 종종 이것은 영어로 “모세오경”이라 불린다.
- 라. 창세기-신명기는 모세가 창조에서부터 그의 생애까지 이르는 내용을 담은 일련의 기록이다.

III. 장르 - 창세기는 우선적으로 신학적 역사적 이야기체이지만 이것은 다른 문학적 장르의 유형도 포함한다:

- 가. 역사적 드라마 - 예: 1:1-3
- 나. 시 - 예: 2:23; 4:2; 8:22
- 다. 예언 - 예: 3:15; 49:1 이하(이것은 또한 시의 형태임)

IV. 저자

- 가. 성경 자체는 저자를 말하지 않는다(구약의 많은 책들이 그런 것처럼). 창세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나”라는 주어로 된 부분이 없고, 또한 사도행전에 있는 “우리”라는 부분이 없다. 궁극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 나. 유대적 전통:
 - 1. 고대 유대 저자들은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 ㄱ. 벤 시라의 *지혜서* 24:23, 주전 185 년경 쓰임
 - ㄴ. *바바 바트라* 14b, 탈무드의 한 부분
 - ㄷ.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이집트, 유대 철학자, 주전 20 년- 주후 42 년경
 - ㄹ.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주후 37-70 년경

2.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계시였다
 - ㄱ.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이르셨다:
 - (1) 출애굽기 17:14
 - (2) 출애굽기 24:4, 7
 - (3) 출애굽기 34:27, 28
 - (4) 민수기 33:2
 - (5) 신명기 31:9, 22, 24-26
 - 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 (1) 신명기 5:4-5, 22
 - (2) 신명기 6:1
 - (3) 신명기 10:1
 - ㄷ.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이르셨다:
 - (1) 신명기 1:1, 3
 - (2) 신명기 5:1
 - (3) 신명기 27:1
 - (4) 신명기 29:2
 - (5) 신명기 31:1, 30
 - (6) 신명기 32:44
 - (7) 신명기 33:1

3. 구약의 저자들은 모세가 저자임을 말한다:

- ㄱ. 여호수아 8:31
- ㄴ. 열왕기하 14:6
- ㄷ. 에스라 6:18
- ㄹ. 느헤미야 8:1; 13:1-2
- ㅁ. 역대하 25:4; 34:12; 35:12
- ㅂ. 다니엘 9:11
- ㅅ. 말라기 4:4

다. 기독교 전통

1. 예수님께서 오경의 인용을 모세의 것으로 돌리신다:

- ㄱ. 마태복음 8:4; 19:8
- ㄴ. 마가복음 1:44; 7:10; 10:5; 12:26
- ㄷ. 누가복음 5:14; 16:31; 20:37; 24:27, 44
- ㄹ. 요한복음 5:46-47; 7:19, 23

2. 다른 신약의 저자들이 오경의 인용을 모세의 것으로 돌린다:

- ㄱ. 누가복음 2:22
- ㄴ. 사도행전 3:22; 13:39; 15:1, 15-21; 26:22; 28:23
- ㄷ. 로마서 10:5, 19
- ㄹ. 고린도전서 9:9
- ㅁ. 고린도후서 3:15
- ㅂ. 히브리서 10:28
- ㅅ. 계시록 15:3

3. 대부분의 초대 교부들은 모세가 저자임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은 모두 당시에 창세기의 정경적 형태에 대한 모세의 관계성에 의문을 가졌다(참조, 5 페이지의 라. 2 항)

라. 오늘날의 학자들

1. 분명히 오경에 약간의 편집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이집트 서기관이 가진 특징과 같이 고대의 것을 당시의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ㄱ. 창세기 12:6; 13:7; 14:24; 21:34; 32:32; 36:31; 47:11
 - ㄴ. 출애굽기 11:13; 16:36
 - ㄷ. 민수기 12:3; 13:22; 15:22-23; 21:14-15; 32:33 이하
 - ㄹ. 신명기 3:14; 34:6
 - ㅁ. 고대 서기관들은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본문을 다루는 방법은 나라마다 달랐다:
 - (1)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들은 어떤 것도 고치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들이 한 내용을 점검했다. 고대 수메르 서기관은 기록하기를: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복사되고, 개정되고, 비교되고, 계속적인 서명에 의해 입증되었다.” 주전 1400 년경.
 - (2) 이집트 서기관들은 고대문서를 그 시대의 독자에게 맞도록 하기 위해 자유롭게 수정했다. 콤파(즉, 사해사본)의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했다.
2. 19 세기의 학자들은 오경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료들로 이루어진 문서라고 이론화했다(그라프-웰하우젠). 이 이론은 다음을 기초로 한다:
 - ㄱ.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의 사용
 - ㄴ. 본문 속에서의 분명한 중복들
 - ㄷ. 내용의 문학적 형식
 - ㄹ. 내용에 나타난 다른 신학적 배경
3. 가정되는 자료와 시기:
 - ㄱ. J 자료(남방 이스라엘에서 야웨라는 이름을 사용) - 주전 950 년
 - ㄴ. E 자료(북방 이스라엘에서 엘로힘을 사용) - 주전 850 년
 - ㄷ. J 자료와 E 자료가 결합됨 - 주전 750 년
 - ㄹ. D 자료(요시아 왕의 개혁 때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발견된 “율법책”[왕하 22:8]은 요시아 왕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그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제사장에게 의해 쓰여진 신명기로 추측되었다.) - 주전 621 년
 - ㅁ. P 자료(특별히 의식과 절차를 위해 구약을 제사장적 관점으로 고쳐 씀) - 주전 400 년
 - ㅂ. 분명히 오경에 약간의 편집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 유대인은 다음의 사람들을 편집자로 주장한다
 - (1) 기록한 시기의 대체사장(혹은 그의 가족 중 다른 사람)
 - (2) 예레미야 선지자
 - (3) 서기관 에스라 - 에스드라스 4 서는 주전 586 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원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것을 다시 썼다고 말한다.
 - ㅅ. 그러나 문서가설(JEDP) 이론은 오경의 증거보다 근대의 문학 이론과 범주를 더 반영한다(R. K. 해리슨, *구약개론*, 495-541 쪽과 *틴델 주석*, “레위기” 15-25 쪽)
 - ㅇ. 히브리 문학의 특징
 - (1) 창 1, 2 장에 있는 것과 같은 중복은 히브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보통 일반적인 설명이 나온 후 특별한 내용이 다뤄진다(즉, 십계명과 거룩한 법전). 이것은 진리를 강조하거나 기억을 돕기 위한 구두적 방법일 것이다.
 - (2) 고대 랍비들은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두 이름이 신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ㄱ) 야웨 -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구속자되심을 말함(참조, 시 19:7-14; 103).

- (ㄴ) *엘로힘*-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 공급자, 유지자이신 하나님(참조, 시 19:1-6:104).
- (ㄷ) 다른 고대근동 본문은 높은 신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이름을 사용한다(참조, *성경 난제 백과사전*, 글리슨 L. 아치, 68 쪽).
- (3) 통일된 문학 작품에서 형식과 어휘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것은 성경 이외의 근동 문학에서 일반적이다(R. K. 헤리슨, *구약개론*, 522-526 쪽).

마. 고대근동 문학으로부터의 증거는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위해 설형문자로 쓰여진 문서나 메소포타미아 형식(족장적)의 구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영감의 줄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문학 현상(참조, P. J. 와이즈만의 *창세기에 대한 바벨론 자료의 새로운 발견*)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문체, 형식, 어휘에서 이집트의 영향이 현저한 창 37 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냈던 시기의 문학적 작품이나 구전을 모세가 둘 다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모세가 받은 정규 교육은 전체적으로 이집트식이었다! 모세오경의 정확한 문학형식은 분명치 않다. 비록 모세가 서기관이 쓰도록 했거나 혹은 구전(족장시대)자료를 사용하였을 수 있지만, 나는 모세가 오경의 거의 모든 부분의 편집자이고 저자임을 믿는다. 그의 글은 후기 서기관에 의해 갱신되었다. 구약의 첫 부분의 책들에 대한 역사성이나 신뢰성은 현대 고고학으로 뒷받침된다.

바. 사무엘의 지휘 아래 동시대에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을 작업한 서기관들(이스라엘의 다른 부분에서)이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 생긴 이론이다(참조, 삼상 10:25). 이 이론은 E. 로벗슨의 *구약의 문제점*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V. 시기

가.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까지를 기록한다. 세속적 문학의 기초에 근거하여 아브라함 생애의 연대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대략적 시기는 주전 2000 년이 될 것이다. 이것의 기초는

1. 아버지가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행동했다(욥처림)
2. 가족의 무리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생활
3. 이 시기 동안의 셈족의 이주

나. 창 1-11 장의 초기 사건들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아마도 역사적인 드라마)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시기를 말할 수 없다.

1. 나는 개인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수 십억년이 되었다고 받아들인다(즉, 우주는 146 억년되었고 지구는 46 억년되었음, 참조, 휴즈 로스의 *창세의 질문과 창조와 시간*).
2.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아담과 하와의 특별한 창조 또한 믿는다. 이것은 창세기가 어떤 “역사적” 틀의 구조 안에서 제시되지만 시작점(즉, 창 1-3 장)에 관한 역사적 측면은 분명하지 않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즉, 4 장)을 시작한다. 만약 이 틀을 사용한다면 아담은 현대인(*호모 사피엔스*)이고 더 이상 원시의 *호모 이렉투스*가 아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랜 후에 있었던 하나님에 의한 특별한 창조와 마찬가지로 ‘사람과’에 속한 동물에 진화적 발전이 있었음이 틀림없다(참조, 키드너의 *틴텔 구약 주석 시리즈*, “창세기”와 파잘레 라나와 휴즈 로스의 *아담은 누구였는가?*). 나는 이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과 과학에 대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다. 창세기를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한 모세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출애굽의 시기는 (1) 왕상 6:1 에 근거하여 주전 1445 년 또는 (2) 현대 고고학의 증거에 기초하여 주전 1290 년으로 볼 수 있다. 모세는 구전이나 알려지지 않은 자료 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 “어떻게”와 “언제가 아닌 “누가”와 “왜”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록한다!

라. 나는 이 주석(창세기 1-11 장)을 2001 년에 기록했다. 나는 창세기 1 장의 문화와 나 자신이 살고 있는 현대 서양 문화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무진 애를 썼다. 존 H. 윌튼의 새로운 책인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IVP, 2009)*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 의하여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지를 보도록 도와주었다. 옳은 해석학은 원저자의 의도와 함께 시작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해석학적 이론이 나의 실행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 윌튼의 책은 우주의 물질적 기원이 아닌 기능의 기원에 관계된 것으로서 창세기 1 장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준다. 이것은 참으로 눈을 열어주는 책이다. 이 책은 이 중요한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과학대 믿음, 늙은 지구 대 젊은 지구, 종의 진화 대 창조에 대한 논쟁을 피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보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당신도 이책을 읽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VI.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들

가. 성경의 여러 책

1. 창조 - 시 8; 19; 33; 50: 104; 148 편과 신약(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6; 히 1:2)
2.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 - 욥

나. 고고학적 자료들

1. 창 1-11 장의 문화적 배경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서 알려진 문학적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주전 2500 년경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시리아 북쪽의 에블라 설형문자 서판이다.
2. 창조
 - ㄱ. 창조를 다루는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으로서 가장 근접한 *에누마 엘리쉬*의 시기는 (1) NIV 연구성경, 주전 1900-1700 년경 또는 (2) 존 H. 윌튼의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의 이스라엘 문학*, 21 쪽, 주전 1000 년경이다. 이것은 니느웨에 있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복사본들은 다른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아카디아어로 기록된 마르둑의 창조를 설명한 일곱 개의 설형문자 서판이 있다.
 - (1) 신들(*압수*민물—남성)와 *티아마트*[짙물—여성]에게 제어하기 어렵고 시끄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이 두 신들은 어린 신들을 잠잠케 하려고 노력했다.
 - (2) *에아*와 *담키나*의 자녀 중 한 명인 *마르둑*(새로 생긴 바벨론 도시의 우두머리 신)은 *티아마트*를 격파했다. 그는 그녀의 몸으로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 (3) *에아*는 격파한 또 다른 신인 *킹우*로 인간을 만들었다. *압수*가 죽은 후에 *킹우*는 *티아마트*의 남자 배우자였다. 인간은 *킹우*의 피에서 만들어졌다.
 - (4) *마르둑*은 바벨론 만신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ㄴ. “창조의 인증”이란 설형문자 서판에는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과일 나무 옆에 있는데, 그 과일 나무 기둥을 뱀이 감으면서 마치 여자와 이야기 하듯이 여자의 어깨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휘튼 대학의 보수적 고고학자인 알프레드 J. 호엘스는 현재 그 인증이 매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과거의 물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 사람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 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 이 특별한 증거물은 재 평가되어야만 한다.

3. 창조와 홍수 -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과로로 인한 낮은 신들의 반역과 이 낮은 신들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한 일곱 쌍의 인간 창조(진흙, 피, 침으로)를 기록한다. 인간은 (1) 지나친 인구와 (2) 소음을 인하여 멸망되었다. *엔릴*이 계획한 역병과 두 번의 기근과 마지막 홍수로 인간의 수가 줄어들었다. 홍수로부터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 *아트라하시스*는 배를 만들어 그들을 태웠다. 이러한 주요 사건은 창 1-8장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이 설형문자 기록은 주전 1900-1700년경의 것으로서 *에누마 엘리쉬 길가메쉬 서사시*와 비슷한 시기에 속한다. 모두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다.
4. 노아의 홍수
 - ㄱ. 니푸르에서 출토된 수메르 서판은 *에리두 창세기*라 불리는데 주전 1600년경의 것이며 *지우수드라*와 닥쳐올 홍수에 대해 말한다.
 - (1) 물의 신 *엔카*는 *지우수드라*에게 닥쳐올 홍수에 대한 경고를 준다.
 - (2) 왕이며 제사장인 *지우수드라*는 이 계시를 믿고 거대한 정방형의 배를 짓고 모든 종류의 씨를 그 안에 싣는다.
 - (3) 홍수는 7일 동안 계속된다.
 - (4) *지우수드라*는 배의 창을 열고 마른 땅이 드러났는지를 알기 위해 여러 마리의 새를 내보낸다.
 - (5) 배에서 나왔을 때 그는 또한 소와 양으로 희생을 드렸다.
 - ㄴ. 4개의 수메르어 점토판에 나오는 바벨론 홍수 이야기는 원래 주전 2500-2400년경에 속하는 *길가메쉬 서사시*로 알려졌는데, 비록 아카디아 설형문자로 쓰여졌지만 한참 이후의 것이다(대략, 주전 1900-1700년경). 이 점토판은 홍수의 생존자 *우트나피쉬팀*가 우룩의 왕 *길가메쉬*에게 자기가 어떻게 큰 홍수에서 생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한다.
 - (1) 물의 신 *에아*는 닥쳐올 홍수를 경고하고 *우트나피쉬팀*(바벨론의 *지우수드라*)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한다.
 - (2) *우트나피쉬팀*과 그의 가족은 선택된 치료용 식물들을 가지고 홍수에서 살아남았다.
 - (3) 홍수는 7일 동안 계속되었다.
 - (4) 그 배는 페르시아 북쪽에 있는 니시르 산 위에 머물렀다.
 - (5) 그는 마른 땅이 드러났는지를 알기 위해 세 가지의 다른 새를 보냈다.
5. 고대 홍수를 묘사하는 메소포타미아 문학 자료는 모두 같은 자료에서 나왔다. 종종 이름은 다르지만 줄거리는 같다. 한 예로 *지우수드라*, *아트라하시스*, *우트나피쉬팀*은 인간 왕으로서 모두 같은 사람을 나타낸다.
6. 창세기 초기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행은 인간이 흠어지기 전(창 1-11장)에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이러한 중요한 실제적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홍수 사건으로 다듬어졌고 신화화되었다. 창조(창 1,2장)와 홍수(창 6-9장)뿐 아니라 인간과 천사의 결합(창 6장)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7. 족장의 시대(중기 청동기 시대)
 - ㄱ. 마리 서판 - 법률을 다룬 설형문자(암문 문화)와 아카디아어로 기록된 개인적 글로서 주전 1700년경에 속함
 - ㄴ. 누지 서판 -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어떤 가족(호리 또는 후르 문화)의 설형문자로 된 도서관으로서 니느웨의 남동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주전 1500-1300년경의 것임. 이 서판들은 가족과 사업의 진행과정을 기록했다. 더

자세한 예를 보기 위해서는 존 H. 월튼의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의 이스라엘 문학*, 52-58 쪽을 보라.

- ㄷ. 알라락 서판 - 시리아 북쪽에서 출토된 설형문자 본문으로서 주전 2000 년경의 것
- ㄹ.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름들은 마리 서판에서 지명으로 나온다: 세룩, 펠렉, 데라, 나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반, 요셉. 이 점은 성경의 이름이 이 시대와 장소에 걸맞는 것임을 보여준다.
- 8. “사료편찬의 비교 연구는 근동 역사에서 히브리어가 히타이트어와 함께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R. K. 해리슨, *성경적 비평*, 5 쪽.
- 9. 고고학은 성경의 역사성을 세우는데 매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고학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길잡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 ㄱ. 초기 발굴에서의 부족한 기술
 - ㄴ. 발견된 사물에 대한 다양하며 매우 주관적인 해석들
 - ㄷ. 고대 근동의 일치되지 않는 연대기(비록 이것이 나이테와 도자기 연대표에 근거하고 있지만).
- 다.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는 존 H. 월튼의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의 이스라엘 문학* 에서 발견된다(그랜드 래피드, 미시간: 존더반, 1990) 23-24, 32-34 쪽.
 - 1. 이집트의 문학에서 창조는 통일되지 않고 혼돈된 태고의 물에서 시작되었다. 물의 혼돈으로부터의 발전된 구조(언덕)로서 창조가 말해진다.
 - 2. 멤피스에서 나온 이집트 문학에서 창조는 프타가 한 말에 의해 발생했다.
 - 3. 이집트의 각 주요 도시는 각자의 수호신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전통을 가졌다.
- 라. 존 H. 월튼의 새로운 책인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 (IVP, 2009)은 신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고대근동인의 믿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준다. 그는 누가 누구를 복사했는지가 중요하기 보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조화에 관하여 전체 고대근동 세계가 일반적인 문화적 공감을 가졌음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그리고 나는 그것에 동의한다). 모든 문화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을 공유한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유일신주의를 가졌지만 또한 문화적 관점을 공유했다.

VII. 문학적 단위(문맥)

- 가. 모세가 사용한 “계보”(톨레돏)란 표현에 기초한 개요:
 - 1. 하늘과 땅의 기원, 1:1-2:3
 - 2. 인간의 기원, 2:4-4:26
 - 3. 아담의 계보, 5:1-6:8
 - 4. 노아의 계보, 6:9-9:17
 - 5.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10:1-11:9
 - 6. 셈의 계보, 11:10-26
 - 7. 데라의 계보(아브라함), 11:27-25:11
 - 8. 이스마엘의 계보, 25:12-18
 - 9. 이삭의 계보, 25:19-35:29
 - 10. 에서의 계보, 36:1-8
 - 11. 에서의 아들들의 계보, 36:9-43

12. 야곱의 계보, 37:1-50:26(1-11 항은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12 항은 이집트의 문학적 배경을 풍긴다.)

나. 신학적 개요:

1. 인간을 위한 창조와 인간의 창조, 1-2 장
2. 인간과 창조세계의 타락, 3 장
3. 타락의 결과, 4-11 장
 - ㄱ. 악이 가인과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다
 - ㄴ. 악이 셋과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다
 - ㄷ. 악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
 - ㄹ. 대홍수
 - ㅁ. 악이 노아의 가족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 ㅂ. 여전히 반역하는 인간; 바벨탑
 - ㅅ. 하나님께서 흠으심
4. 모든 인류를 위한 한 사람(3:15), 12-50 장(롬 5:12-21)
 - ㄱ. 아브라함(12:1-3), 11:27-23:20
 - ㄴ. 이삭, 24:1-26:35
 - ㄷ. 야곱, 27:1-36:4
 - (1) 유다(메시아의 계보)
 - (2) 요셉(두 배의 땅을 유산으로 받음), 37:1-50:26

VIII. 주요 진리

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가?

1.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창 1-2 장). 성경의 세계관은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다. 이것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제시이다. 비록 약간의 단어, 활동방식, 주제가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 발견되지만 성경의 신학은 그 시대에 완전히 독특한 것이었다.
2.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셨다. 창조는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한 무대이다. 지구는 “접촉된 행성”이다(참조, C. S. 루이스)
3. 창 1, 2-4 장과 11-12 장 없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다.
4. 인간은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한다(창 15:6 과 롬 4 장).

나.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하고 불공평한가? 세상은 “심히 좋았더라”(1:31)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다(참조, 창 3 장; 롬 3:9-18, 23; 5:17-21). 그 무서운 결과가 명백하다:

1.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4 장)
2. 라멕의 복수(4:23)
3. 비합법적 결혼(6:1-4)
4. 사람의 악함(6:5, 11-12; 8:21)
5. 노아의 술취함(9 장)
6. 바벨탑(11 장)
7. 우르의 다신교(11 장)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시는가?

1. 메시아가 모든 인간을 위해 오실 것이다(3:15)

2. 하나님께서 모두를 부르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신다(창 12:1-3 과 출 19:5-6, 참조, 롬 5:12-21)
3.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함께 기꺼이 일하실 것이고(아담, 하와, 가인, 노아, 아브라함, 유대인, 이방인) 그의 은혜를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공급하실 것이다.
 - ㄱ. 약속
 - ㄴ. 언약(조건없는 그리고 조건있는)
 - ㄷ. 희생
 - ㄹ. 예배

독서의 첫 번째 단계(xv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책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당신 자신의 말로 진술하라.

1. 책의 전체 주제
2. 문학의 형식(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xv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단번에 그 책을 다시 읽으라. 중심 논제를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그 논제를 설명하라.

1. 첫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2. 두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3. 세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4. 네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5. 기타

창세기 1:1-2:3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창조 (1:1-2:3)	창조의 역사 (1:2-2:7)	창조 이야기 (1:1-2:4a)	창조 이야기 (1:1-2:4a)	세계의 창조
1:1-5	1:1-5	1:1-5	1:1-5	1:1-2 1:3-5
1:6-8	1:6-8	1:6-8	1:6-8	1:6-8
1:9-13	1:9-13	1:9-13	1:9-13	1:9-10 1:11-13
1:14-19	1:14-19	1:14-19	1:14-19	1:14-19
1:20-23	1:20-23	1:20-23	1:20-23	1:20-23
1:24-25	1:24-25	1:24-25	1:24-25	1:24-25
1:26-31	1:26-28 (27)	1:26-31	1:26-2:4a	1:26-27 1:28-31
남자와 여자의 창조	1:29-31			
2:1-3	2:1-3	2:1-3		2:1-3
	2:4a	2:4a		2:4a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에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 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아야만 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 4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들어가는 말

- 가. 창세기 1-11 장을 연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1. 우리가 속해있는 문화와 교파적 훈련에 의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2. 오늘날의 여러 가지 압력이 “시작”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ㄱ. 현대 고고학(메소포타미아와 평행을 이룸)
 - ㄴ. 현대 과학(현재의 이론들)
 - ㄷ. 해석의 역사
 - (1) 유대교
 - (2) 초대교회
 3. 성경의 첫 부분을 이루는 이 문학단위가 역사로서 나타나지만 해석가를 놀라게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 ㄱ. 메소포타미아와 평행을 이루는 내용
 - ㄴ. 동양의 문학적 기술(창조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이야기)
 - ㄷ.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
 - (1)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여자
 - (2) 말하는 뱀
 - (3) 모든 동물의 쌍이 일년 동안 땀던 배
 - (4) 천사와 인간의 섞임
 - (5) 사람의 긴 수명
 - ㄹ. 중심 인물의 이름에 대한 여러 단어 유희(참조, 카. 3 항)
 4.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창 1, 2 장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에 있어서(참조, 골 1:16)에서 성부의 대리인이시다(참조, 요 1:3, 10; 고전 8:6; 히 1:2). 이러한 새로운 계시는 창 1-3 장을 글자대로 이해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삼위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다.
 - ㄱ. 창 1:1 에서 성부 하나님
 - ㄴ. 창 1:2 에서 성령 하나님
 - ㄷ. 점진적 계시에 의한 신약에서의 성자 하나님
 이것은 창 1:26; 5:1, 3; 9:6 에 있는 복수형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 나. 창 1-11 장은 과학적 문서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현대 과학이 창세기의 설명과 평행을 이룬다(창조의 순서와 지질학적 수준). 그것은 과학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이전의 진술이다. 이것은 다음의 관점에서 진리를 나타낸다:
1. 땅의 관점에서(이 행성에 있는 인간 관찰자)
 2. 현상학적 관점에서(즉, 오감; 인간 관찰자가 물체를 보는 방법)

이것은 오랫동안 여러 문화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계시자로서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현대의 과학적 문화에 대하여도 진리를 나타냈지만 사건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다. 이 부분은 놀라우리만큼 간결하고 아름답게 설명되었으며 예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물체의 분리
2. 물체의 발전
3. 혼돈에서 생명이 가득찬 행성으로

라. 이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는 다음에 있다

1. 이것의 장르
2. 이 본문과 그 당시의 관계(존 H. 윌튼의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을 보라*)
3. 이것의 구조
4. 이것의 유일신주의
5. 이것의 신학적 목적

반드시 균형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1. 절의 주해
2. 모든 성경에 대한 조직적인 이해
3. 장르의 특이성

이것은 물리적 물체의 기원(“좋았더라,” 참조, 1:31)과 그 물체의 부패(참조, 3 장)를 드러낸다.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새로운 창조이고 예수는 새 아담이다(참조, 롬 5:12-21). 새로운 시대는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 동물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일 것이다(창 1-2 장과 계 21-22 장을 비교해 보라).

마. 이 장에 있는 커다란 진리는 어떻게나 언제가 아니라 누가와 왜이다!

바. 창세기는 참 지식을 나타내지만 모든 지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고대(메소포타미아) 사상의 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신학적 진리이다. 이것은 그 시대와 관계되지만 전적으로 독특하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세계관(누가 그리고 왜)이지 세계의 그림(어떻게 그리고 언제)이 아니다.

사. 창 1-3 장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얼마나 이야기가 급속히 변하는지 주목하라: (1) 죄에서 구속으로 (2) 인류에서 이스라엘로. 창조는 전 세계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서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한다(창 3:15; 12:3; 22:18; 출 19:5-6 과 요 3:16; 행 3:25; 갈 3:8; 딤후 2:4; 벧후 3:9).

아. “영감과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창 1 장을 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창조에 대한 사실의 전달을 그 목적이라고 본다면 당신은 이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볼 것이다(즉, 명제적 진리로). 만일 당신이 이것을 하나님, 인간, 죄에 대한 일반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본다면 당신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수 있다(즉, 유형적으로).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것의 기본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서 본다면 아마도 또 다른 종류의 해석을 취할 것이다(즉, 실존적으로).

- 자. 창세기의 이 부분은 분명히 신학적이다. 출애굽의 재앙이 이집트의 자연 신을 능가하는 야웨의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창 1, 2 장은 메소포타미아의 별 신을 능가하는 야웨의 능력을 보여준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하셨다.
- 차. 나는 나 자신의 무식함에 놀란다! 나는 나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조건에 묶여 있음을 인해 소스라쳐 놀란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과 능력, 은혜와 공의에 있어서 균형을 이룬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더욱 더 알게 된다!
- 카. 다음은 기초적 접근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다:
1. 현대 과학의 맥락에서 해석한 창 1-2 장:
 - ㄱ. 버나드 램의 *과학과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과학적 신학적 도움을 줌)
 - ㄴ. 휴즈 로스의 *창조와 시간 그리고 창세기의 질문*(과학적으로는 도움을 주나 신학적 면에는 약함)
 - ㄷ. 해리 페오와 지미 다비스의 *과학과 믿음: 복음주의적 대화*(매우 유익함)
 - ㄹ. 다렐 R. 팔크의 *과학과 평화를 누리기: 믿음의 세계와 생물학 세계 사이에 다리놓기*(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
 - ㅁ. 프란시스 S. 콜린스의 *하나님의 언어*
 - ㅂ. 파잘레 라나와 휴즈 로스의 *아담은 누구였는가?*
 2. 고대근동과 평행이 되는 맥락에서 해석한 창 1-2 장:
 - ㄱ. R. K 해리슨의 *구약개론과 구약의 시간들*
 - ㄴ. 존 H. 월튼의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의 이스라엘 문학*
 - ㄷ. K. A. 키친의 *고대 기원과 구약*
 - ㄹ. 에드윈 M. 야마우찌의 *돌들과 성경*
 3. 라살, 후바드, 부쉬가 쓴 *구약개론*의 신학 맥락에서 해석한 창 1-2 장
 - ㄱ. “사용된 이름에서도 문학적 고안이 발견된다. 여러 경우에 어떤 사람의 기능이나 역할이 그 사람의 이름과 일치하는 것은 매우 놀랍다. 아담은 “인류”라는 뜻이고 이브는 “생명(을 주는 여자)”이라는 뜻이다. 이야기의 저자가 중요한 인물을 인류와 생명으로 이름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꾸밈없이 의도된 것이 전달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가인은 “버리는 자(쇠)”라는 뜻을 가지고; 에녹은 “헌신, 신성화”(4:17; 5:18)라는 뜻과 연결되고; 유발은 뿔과 트럼펫(4:21)과 연결된다; 한편 나드(“방랑자”)가 되는 것으로 저주받은 가인이 논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은 명백하게도 같은 히브리어 어근에서 온 이름을 가진 방랑의 땅이다! 이 사실은 저자가 문학적 방법과 기교를 사용한 예술가요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가 사용한 문학적 도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의도한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72 쪽.
 - ㄴ. 창 1-11 장의 신학적으로 함축된 의미:

“창 1-11 장에 함축된 의미. 창 1-11 장의 문학적 기교와 형식을 인식하고 그것의 문학적 배경을 확인하는 것은 표현된 “사건”의 실제성에 대한 도전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내용을 신화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목격자의 말이나 객관적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로 상징적이고 회화적인 문학적 장르로 표현된 사건의 신학적 진리를 전달한다. 이 말은 창 1-11 장이 역사적 허위를 시사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결론은 이 부분이 전적으로 객관적인 설명이라고 보려는 경우에만 얻어질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분명한 증거는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이 장들에서

말하는 진리에 객관적 기초가 없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 이 장들은 근본적 진리를 확인해 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심; 첫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음; 인간 혈통의 단일성; 인간을 포함하는 창조된 세계가 본래 좋았음; 첫 부부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들어옴; 타락 이후의 부패와 만연하는 죄. 이 모든 진리는 사실이며 그 확실성은 이 사실의 실재성을 말한다. 성경의 저자는 시간의 제약, 인간의 조건, 경험에 기초한 역사적 유추를 할 수 없는 독특한 태고의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이러한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기에 오직 상징으로서 설명한다. 같은 문제점이 종말을 다룬 내용에도 생긴다. 계시록에서 성경의 저자는 비밀적인 상징과 묵시문학적 기교를 사용한다” 74 쪽.

ㄷ. 만일 창 1-10에서 한 언어로 말하여진 것이 사실이라면(참조, 사무엘 노아 크라머, *언어의 바벨: 수메르역*,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8: 108-11) 그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모든 히브리어 단어유회는 모세의 시대에 속한 것이거나 혹은 족장 시대의 구전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창 1-11 장의 문학적 성격을 입증한다.

4. 나의 개인적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성경의 메시지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있고 권위있는 메시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깊은 감사를 표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참조, 마 22:37)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시도한다. 믿는 자인 우리가 각자 다르게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불신이나 반역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실한 헌신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내가 창 1-11 장과 또한 이와 관계된 내용들, 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그것이 문자적이 아닌 문학적 진실임을 인식하게 된다. 성경해석의 열쇠는 나의 개인적 철학이나 해석학적 잣대를 본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가 자신들의 생각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상징적이고 회화적 내용을 암시하는 문학적 본문을 문자적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나의 편견을 더하는 일이 된다. 장르(문학의 형태)는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가”와 “어떻게 모든 것이 마쳐질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열쇠이다. 실제로 고대 동방의 책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 때문이든 혹은 전문적 훈련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현대적, 문자적, 서양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해석한 사람들의 성실함과 헌신에 나는 감사한다. 그들이 창 1-11 장을 다룸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과 비슷한 성격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을 사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다가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나는 *창조연구협회*(즉, 젊은 지구)의 접근방법이든지 혹은 휴즈 로스의 *믿음의 이성*(즉, 늙은 지구)의 접근방법이든지 간에 창 1-11 장과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의 이 부분은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와 “언제”가 아닌 “누구”와 “왜”를 강조한다고 나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창조의 물질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현대 과학의 신실함을 나는 인정한다. 나는 “자연주의”(즉, 모든 생명은 자연적 진행을 따라 우연히 발전된 것이다)는 거부하지만, 한편 이 세상과 우주에 발전과정이 드러남을 분명히 본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진화과정을 주관하셨고 그것을 또한 사용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진행은 과거와 현재에 나타나는 생명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현재적 실재를 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의 이론적 모델과 창 1-11 장의 신학적 모델이 모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창 1-11 장은 성경의 그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지만 이것은 현대 서양의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대 동양의 간결한 문학적이고 예술적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역사적 이야기체로 쓰여있다. 성경에는 문자적 해석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다: 즉 아브라함을 부르심, 출애굽, 동정녀 탄생, 갈보리, 부활, 재림과 영원한 나라가 이에 속한다. 해석에 있어서 핵심은 실재의 문제가 아닌 장르의 문제이고, 해석에 있어서 개인적 경향을 따르는 것이 아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참조, 롬 3:4)!!!

특별주제: 지구의 나이와 그 형성

- I. 이 주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고 심하게 추구하는 전제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치우쳐졌다. 이 가정은 신학적 이해와 해석을 이와 비교되는 우주론자, 지질학자, 관계된 과학에 의해 표현된 다른 견해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음이 틀림없다.
- II. 과학의 분명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오늘날 지구상에서 기록되고 측정되는 변화의 비율(즉,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은 과거에도 일정했다(즉, 동일과정설,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 나. 지구와 우주의 사건의 연대를 측정하는 열쇠인 방사능연대측정(절대적 연대로 불림)은 여러 가지 가정으로 매혹된다:
 1. 바위의 최초의 구성(즉, 불안정한 원자의 본래 요소와 파생 요소의 관계)
 2. 이 요소들의 정확한 반감기
 3. 온도 또한 표본의 본래 요소와 파생 요소의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즉, 형성의 시간 그리고/ 또는 화산의 마그마 공간)
 4. 방사능 물질의 원 자료와 그것이 창조된 시간은 확실치 않다. 무거운 요소들이 들쭉날쭉 세대의 별들에서 열핵반응으로 창조되었고 초신성에 의해 퍼졌다고 현재 이론은 말한다.
 - 다. 지질학의 여섯 가지 연속적 원리에 대한 가정은 고생물학에 영향을 미친다:
 1. 지층누층의 법칙—퇴적된 바위가 방해받지 않고 계속 쌓일 때 위에 있는 층의 기반은 나이가 어리고 밑에 있는 층은 오래된 것이다
 2. 원래의 수평선의 원리—형성기의 바위 층은 평지 근처에 쌓였다
 3. 횡단 관계의 원리—바위가 잘라지거나 단층에 의해 갈라질 때 그것은 단층보다 오래된 것이 틀림없다
 4. 포함의 원리—바위는 근접한 다른 것과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은 보통 1 항의 가정이 입증하는 윗층에 끼어든 아래 층의 조각들을 포함한다
 5. 상호관계의 원리—비슷한 구성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부터의 바위의 연대를 알 수 없을 때, 형성이 비슷한 시기를 알기 위해 비슷한 화석을 사용하여 비교해야만 할 것이다
 6. 화석의 천이(계승)의 원리—화석의 유기적 조직체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연속안에서 또 다른 것에 계승된다:
 - ㄱ. 넓게 퍼진 화석
 - ㄴ. 지리학적 시간의 짧은 기간에 한정된
- III. 과학자에 의한 설명
 - 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해하기를 참된 과학은 입증할 수 있는 이론으로써 알려진 모든 사실과 예외를 상호 연결시키는 연구 방법이라고 이해한다. 어떤 것은 그 성질상 시험할 수 있지 않다.

- 나. 이런 영역에 사용하는 과학적인 가정에 대한 과학자들의 설명
1. “학설(즉, 동일 과정설)은 너무 글자 그대로 취해져서는 안된다. 과거의 지리학적 과정이 오늘날의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이 항상 같은 정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탈북과 루트겐스, *지구과학*, 6 판, 262 쪽).
 2. “정확한 방사능 연대측정은 그것의 형성기 동안 그 광물질이 오직 폐쇄된 환경 안에 있다는 가정하에만 가능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동위원소의 처음 것과 나중 것에 어떤 첨가나 손실이 있다면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지구과학, 6 판, 276 쪽).
 3. “우리는 이 동일과정이 우리가 자연에 관해 세운 가설이라고 서둘러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논리적으로 입증된 법칙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학설이다”(도트와 발텐, *지구의 진화*, 4 판, 44 쪽).
 4. “방사성 붕괴의 비율, 동위원소 측정과 이에 상응하는 전과 동위원소 나이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방사선 붕괴상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가장 정확한 어떤 연대 측정 방법(예, $^{40}\text{Ar}/^{39}\text{Ar}$ 기술)은 정확성이 열배나 과장된 경우이거나 혹은 전혀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지질 연대학에서의 진보와 도전” 레네, 루드윅, 카르너 저, *과학의 진보* (2000), 83(1), 107).
 5. “과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는 요소의 반감기에 근접한 나이를 갖는 표본에 대해 어떠한 방사능 측정 방법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휴즈 로스, *믿기 위한 이유* 신문).

IV. 가설은 과학 공동체에만 독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 가. 인간은 자신들의 감각적 경험을 연결시키고 감정적 안정을 주는 어떤 통일된 원리나 모델을 가지려 한다. 과학에서는 이 통일적 원리를 “진화” 라고 한다
1. 테오도시우스 뉘프헨스키(“변화하는 사람,” *과학*, 155, 409-415), “진화는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이 생산되고 동물이 사람이 된 과정이다. 상상컨대 미래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바뀌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2. 브라이언 J. 알터스와 산드라 M. 알터스(*진화의 정의*, 104 쪽), “진화는 모든 생물학의 기본적인 배경이다...진화는 설명적 구조이고 통일된 이론이다. 마치 원자이론에 화학이 필요 불가결한 것처럼 이것은 생물학에 필요 불가결하다.”
- 나. 많은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과정이론(즉, 해석)은 창 1-3 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되었다. 이것은 지구나이를 젊다고 믿는 자(*창조연구협회*는 지구의 나이를 약 10,000 년으로 측정한다)에게와 오래 되었다고 믿는 자(*신뢰할 수 있는 이성*은 현재 지질학적 관점에서 46 억년으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한다)에게 참이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른 것을 보고 평가하는 렌즈가 된다. 모든 인간의 지식은 어느 정도의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정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진리” 진술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조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 다. 중심 문제가 해석학적 방법론일 때 근본적 기독교는 “과학적” 논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것은 “현대 진화론적 과학”이 가정적이 아니라거나 그것의 결론이 선형적 세계관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 해야만 하고 또한 분석해야 한다. 양편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관점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이끌리는지 물어보아야만 한다(즉, 자기 만족 가정).

V. 개인적 결론

가.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의 동일과정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화”가 아니라 “자연주의”에 흥분된다(칼 사간에 의해 대중적으로 된 정의는 “우주는 과거에 있었던 것의 모든 것이고 현재 있는 모든 것이며 미래에 있을 것의 모든 것이다”).

비록 편견이 있지만 나의 종합적 생각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창조를 믿는 주의로서, 나는 진화를 부정하거나 혹은 진화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나의 기본 시각은 목적을 갖고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나에게 “지적 디자인” 이론은 이치에 맞는 이론이다(참조, M. J. 베헤, *다윈의 검은 박스*와 윌리엄 A. 뎀스키 편저, *단순한 창조: 과학, 믿음, 지적 디자인*). 나에게 고통과 혼동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진화의 “무작위성”이고 자연주의의 “작인이 없음”이다. 과정은 생명의 분명한 부분이다. 내가 진화를 부정하여 편안한 것을 취하려 하지 않은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나의 가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는 노력했다:

1. 창 1-3 장(또한 이것에 관계된 내용과 계시록의 많은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영감된 원저자의 의도가 아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모든 것이 마쳐질 것인가”는 문학적 장르에서 가려져 있다(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이것을 가린 것이 분명하다).
2. 진화는 어떤 수준에서(“수평적 진화,” “소진화,” 종 안에서의 진화)는 확실하지만 이 행성의 생명체나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통합적 요인이 아니다. 신비가 여기에 있다! 나는 성경(즉, 특별 계시)과 자연(즉, 자연 계시)을 받아들인다. 성경은 “누구”와 “왜”에 대해 말하며 자연(자연 계시), 곧 현대의 과학적 연구는 발전된 모델과 이론에 기초하여 “어떻게”와 “언제”에 대해 말한다.
3. 심지어 “유신론적 진화”의 궁극적인 내용도 내 믿음의 어떤 가정도 거부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대럴 R. 팔크의 *과학과 평화를 누리기: 믿음의 세계와 생물학 세계 사이에 다리 놓기*와 프란시스 S. 콜린스의 *하나님의 언어*를 보라. 나는 정말 믿음 위에 기초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의 세계관은 성경적 기독교이다. 나의 세계관적 그림은 성장해 가고 변화해 가는 이해이다.

나. 지구의 “실제” 나이는 나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1. 물질의 우주적 형성에 대한 “빅뱅”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분명한 개념으로서, 진화적 발전(즉, 자연주의)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무한대의 시간을 제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화석의 기록에 나타나는 시작과 멈춤은 “중단된 평형”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진화의 기회가 분출(아마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단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점진적으로 생긴 변화가 아님을 보여준다.
3. 오래된 지구에 인간이 나중에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내가 택한 전체적 모델이다. 내가 성경, 고고학, 현대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이 이론을 수용할 것이다. 이러한 순서는 나의 편견을 나타낸다(하지만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4. 과학은 나에게 적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 늘어나는 지식의 시대를 살아 가는 것은 매우 흥분된다! 해석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신자라는 사실은 매우 격려가 되는 일이다! 믿음과 이성 또는 성경과 과학을 신빙성있게 통합하는 것은 놀랍도록 가능하다!

VI. 지구의 나이에 관한 현재의 가설들

가. 달의 바위와 운석에 대한 방사능연대측정은 46 억년으로 일치된다. 그것들이 태양계의 행성들처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태양에 관계된 행성, 혜성, 소행성도 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바위의 나이는 방사능연대 측정으로 38 억년이다.

나. 최초의 인간 부부(*호모 사피엔스*)를 초자연적으로 창조한 연대를 규명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이지만 수 만년 전 정도의 범위에 해당한다(아마도 40,000 년). 파잘레 라나와 휴즈 로스의 *아담은 누구였는가*를 보라.

연대기적으로 연속적인 시간의 틀에서 창조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고의 피조물과 교체하시기 위한 “장소”를 공급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지구와 지구의 환경을 창조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영감된 성경이 이러한 믿음의 유일한 출처이다. 나는 성경을 고집하며 또한 현대 과학이 물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나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허락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1-5

¹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²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³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⁴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⁵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1 “태초에” *베레셀* (BDB 912)은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이다. 70 인역에서는 *제네시스* 라고 부른다. 이것은 역사의 시작이지 하나님의 활동의 시작은 아니다(참조, 마 25:34; 요 17:5, 25; 엡 1:4; 딤후 1:2; 딤후 1:9; 뱀전 1:19-20; 계 13:8). R. K. 해리슨은 이것을 “시작으로서”(구약개론, 542 쪽, 각주 3)라고 번역해아 한다고 말한다. 존 H. 윌튼(*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은 그것은 일정 기간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45 쪽).

▣ “하나님” *엘로힘* (BDB 43)은 고대근동에서 사용하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인 *엘*(BDB 42)의 복수형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할 때 보통(여섯 번의 예외) 단수형 동사를 사용했다. 랍비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 공급자, 유지자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참조, 시 19:1-6; 104 편). 1 장에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주목하라.

나는 이 절을 하나의 독립된 절이라고 믿는다. 이븐 에즈라는 이것이 2 절을 강조하는 독립절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래쉬는 2 절이 삼입구이기에 강조점이 3 절에 있다고 말한다. 현대의 세대주의 주석가들은 1 절을 이전에 일어난 타락으로 보는 관점(간격 이론)을 지원하기 위한 종속절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을 주목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만들지 않았다(헬라적 우주론)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헬라적 생각과 같이 *에누마 엘리쉬*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에서 영(좋은 것)과 물질(나쁜 것)은 영원히 공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을 다루지도 않고 이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신다(참조, 시 90:2). 여기에 완전한 신비가 있다. 솔직히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이 절에 대한 논의는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유대인 출판 협회에서 출판한 성경은 창 1:1 을 시간에 대한 절로 번역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땅은 형태를 이루지 않고 공허했다...” 이 번역은 헬라의 우주론(참조, *쥬다이카 백과사전*의 “창조와 우주론,” 제 5 권, 1059 쪽) 과 같이 하나님과 물질은 영원히 공존한다는 결론일 것이다. 수메르의 창조 이야기인 *에누마 엘리쉬* 는 “태초에...했을 때”로 시작한다. 2:4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창조하시니라**” *바라* (참조, 1:1, 21, 27; 2:3, 4)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나타내기위해 특별히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BDB 137, KB 153, *칼 완료형*)이다. 이것의 기본적 의미는 잘라서 만들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 비록 물이 창조 되었다고 말한 곳이 없지만(참조, 창 1:2), 시 33:6, 9; 히 11:3; 벨후 3:5 은 무(엑스 니힐로)는 하나님의 말씀(*피아트*)으로 된 창조(우주론)를 나타낸다. 헬라(영지주의적)와 메소포타미아의 철학자들은 “영”과 “물질”의 영원한 이원론을 강조한다. 어쨌든 *바라* 의 뜻을 무엇으로 취하든 이 단어는 하나님의 활동과 목적을 강조한다!

성경은 창조에 출발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21 세기의 과학은 이것을 “빅 뱅”으로서 특징지을 것이다. 자연주의는 이제 무제한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창 1 장은 물질적인 면의 시작이 아니라 지구의 기능에 대한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존 H. 윌튼,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

▣ “**천(하늘)**” “하늘”(BDB 1029)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1) 이것은 8, 20 절에서처럼 지구의 대기를 의미할 수 있다 (2) 이것은 전체 우주를 의미할 수 있다(즉, 모든 물질적 존재) (3) 이것은 보이는 것(물질)과 보이지 않는(천사, 하나님의 보좌로서의 하늘) 모든 것의 창조를 의미할 수 있다. 만일 (3)항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골 1:16 과 평행을 이룰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창 1 장은 단지 이 행성의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경은 지구 중심의 시각을 강조한다(즉, 마치 지구에 있는 목격자가 지켜 본 것 같은 창조). 어떤 사람은 창 1 장은 우주의 창조(즉, 태양, 달, 별, 은하계) 를 진술하고 창 2-3 장은 이 행성과 사람의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창 2-4 장이 하나의 문학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분명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부분(창 1 장과 2-4 장)은 지구 중심적인(즉, 지구에 초점을 둔) 창조를 말한다.

▣ “**지(땅)**” 이 용어(BDB 75)는 어떤 특정한 땅, 지역, 또는 행성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 창 1 장은 명백히 지구 중심적이다(참조, 15 절). 이것은 이 장의 신학적 목적과 어울리지만 과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성경이 신학적 목적을 위해 설명적 언어로 쓰여진 것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과학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이전의 것이다.

1:2 “**땅이 ... 하고**” 이 동사(BDB 224, KB 243, *칼 완료형*)는 “되었고(became)”라고 거의 번역되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있었고(was)”가 적합하다. 두 번의 타락(간격 이론)의 전체를 가진 당신(즉,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의 신학이 본문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라.

▣	
NASB	“형태가 없고 공허한”
NKJV	“형태가 없고 공허한”
NRSV, NJB	“형태가 없는 공허”
TEV	“형태가 없고 황량한”
NIV	“형태가 없고 빈”
REV	“거대한 황무함”
SEPT	“보이지 않고 설비가 안 된”
JPSOA	“형성되지 않고 공허한”

여기의 두 가지 단어는 BDB 1062, KB 1688-1690 과 BDB 96, KB 111 에서 발견된다. 여기의 두 단어는 오직 물에 대하여만 말하고 있는가? 지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구조학적 판)이다(즉, 판게아라고 불리던 하나의 초대륙이 여러 대륙이 되었다). 반복되는 질문은 지구의 나이이다. 이 단어들은 렘 4:23 에 같이 나타난다. 수메르와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지만 신화적 의미로서이다. 이와같은 창조의 진술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에 점진적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사 45:18). 이 두 단어는 물질의 시작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직 기능을 나타내도록 발전되지 않은 체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존 H. 윌튼의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 49 쪽). 이것은 사람을 위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 “**흑암**” 이 단어(BDB 365)는 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혼돈을 말하는 것이다. 5 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이룸하신 것처럼 어두움에 이름을 주신다. 비록 두 단어가 영적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최초의 물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 “**깊음**”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테흠* (BDB 1062 3 항, KB 1690-91)이다. 비슷하면서 다른 셈족어의 어근은 의인화된 *티아마트*이다. 수메르와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서 *티아마트*는 혼돈의 괴물이며 앞수의 아내이며 신들의 어머니로서 나온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난 모든 낮은 신들을 죽이려 했다. 마르둑이 그녀를 죽였다. *에누마 엘리쉬*라 불리는 바벨론의 창세기에서 마르둑은 그녀의 몸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히브리인들은 물이 창조의 시작 요소였다고 믿었다(참조, 시 24:1; 104:6; 뱀후 3:5). 물이 창조되었다고 결코 말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로 물은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이고 따라서 어원적으로 티아마트와 관계가 없다.

야웨께서 의인화된 물의 혼돈과 싸우는 것을 묘사한 구약의 구절들이 있다(참조, 시 74:13-14; 89:9-10; 104:6-7; 사 51:9-10). 그러나 이 구절들은 모두 시적이고 은유적인 내용이다. 물은 창조의 중요한 면이다(참조, 1:2b, 6-7).

■

NASB, NKJV

TEV, NIV

NRSV, JPSOA

NJB

REV

SEPT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로서 온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 (BDB 924)와 헬라이어 단어 *프뉴마* (참조, 요 3:5, 8)는 “영,” “호흡,” “바람”을 의미한다(참조, 요 3:5, 8). 성령은 종종 창조에 관계되어 언급된다(참조, 창 1:2; 욥 26:13; 시 104:29-30; 147:14-18). 구약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욥 28:26-28; 시 104:24; 잠 3:19; 8:22-23 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 지혜(여성형 명사)를 사용하셨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하여진다(참조, 요 1:1-3; 고전 8:6; 골 1:15-17; 히 1:2-3). 구속에서처럼 창조에서도 역시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관계하셨다. 창 1 장 자체가 어떤 이차적 원인자도 강조하지 않고 있다.

■

NASB, TEV

NKJV, NIV

NRSV

NJB

“움직이고 있는”

“떠 있는”

“휘몰아치는”

“휘몰아치고 있는”

이 단어(BDB 934, KB 1219, *피엘분사*)는 “알을 품는” 또는 “활동적으로 하늘을 나는”(참조, JB)의 의미에서 발전되었다. 이것은 *어미* 새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이다(참조, 출 19:4; 신 32:11; 사 31:5; 40:31; 호 3 장; 11:4). 이 여성적 은유는 지구가 알에서 생겼다는 페니키아의 우주론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발한 부성적인 돌보심과 그로 인해 창조의 초기 단계에서 발달이 일어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말로 이루어진 창조에 대한 신학적 개념으로서 라틴어로는 *피아트*를 사용했다(참조, 9, 14, 20, 24, 29 절; 시 33:6; 148:5; 고후 4:6; 히 11:3). 이것은 종종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으로 설명되는데 라틴어로는 *엑스 니힐로*이다(참조, 마카비 2서 7:28).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창 1 장이 물질의 처음 창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물질의 정렬일 것이다(참조, 존 H. 월튼의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 54 쪽 이하).

이러한 말의 힘은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1. 족장의 축복
2.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시는 구속의 말씀, 사 55:6-13, 특히 11 절
3. 요 1:1 에서의 말씀이신 예수님
4.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 선 검으로서 오실 예수님(참조, 딤후 2:8; 히 4:12; 계 1:6; 2:12, 16; 19:15, 21). 이것은 생각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창조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 **“있으라 하시니”** 이것은 지시형이다(참조, 3, 6 절[2 회], 9 절[형태가 아니라 의미에서 2 회], 11, 14, 20[형태가 아니라 의미에서 2 회], 22, 24, 26[형태가 아니라 의미에서]).

1: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4, 10, 12, 18, 21 25, 31 절) 창조의 모든 것이 좋았다(참조, 1:31). 악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라 좋은 것의 왜곡이다. 여기에서 “좋았더라”는 “그것의 목적에 적합하다”(참조, 사 41:7) 또는 “본질적으로 흠이 없음”(BDB 373)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 **“하나님이 . . . 나누사”** 여기의 동사(BDB 95, KB 110, *히읃 미완료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해 나가시는지 그 특징을 나타낸다. 그는 나누시고(KJV) 새 일을 시작하신다(참조, 4, 6, 7, 14, 18 절).

▣ **“빛”** 아직 태양이 없음을 기억하라. 시간의 연속성(즉, 지구의 자전의 주기인 24 시간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 일정치 않았었다)에 대해 독단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빛(BDB 21)은 생명, 청결, 진리에 대한 성경적 상징이다(참조, 욕 33:30; 시 56:13; 112:4; 사 58:8, 10; 59:9; 60:1-3; 요 1:5-9; 고후 4:6). 계 22:5 에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창조하셨고(참조, 사 45:7) 하나님께서 이름하시므로(참조, 5 절)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참조, 시 74:16; 104:20-23; 139:12)에 있음을 주목하라.

4 절과 5 절에 기초하여 존 H. 월튼의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55 쪽 이하)은 이것이 “빛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태양의 기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5 “하나님이 . . . 부르시고”(8, 10 절) 이렇듯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통치하심을 보여준다.

▣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순서는 빛의 창조 이전에 어둠이 있었음을 반영할 것이다. 랍비들은 저녁을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의 단위로서 해석했다.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이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저녁의 황혼에 새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겼다.

▣ **“날”** 히브리어로 *욘* (BDB 398)은 시간의 길이를 의미할 수 있는데(참조, 2:4; 5:2; 룻 1:1; 시 50:15; 90:4; 전 7:14; 사 4:2; 11:2; 숙 4:10) 일반적으로 이것은 24 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의미한다(즉, 출 20:9-10).

특별주제: **욘**

존 해리스 박사(동부 텍사스 침례대학의 기독교 연구과 학장이며 구약학 교수)의 구약총론 1 권 강의안에서 취하여 수정한 **욘**(날)의 의미에 대한 이론들:

1. 문자적인 24 시간의 이론
이것은 단도직입적인 접근이다(참조, 출 20:9-11). 이 접근에 대해 갖는 의문이 있다:
 - ㄱ. 제 4 일이 될 때까지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첫 째 날에 어떻게 빛이 있었는가?
 - ㄴ.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동물(특히 세상의 다른 쪽에 토착적으로 사는 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가(참조, 창 2:19-20)?
2. 날이 시대를 말한다는 이론(Day-Age, 장일설)
이 이론은 성경과 과학(특히 지질학)을 조화시키려 한다. 이 이론은 “날들”이 “지질학적 기간”을 말하는 긴 기간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길이는 서로 같지 않으며 균일성에 기초한 지질학의 다양한 지층(기)에 근접한다. 과학자들은 창 1 장의 일반적인 전개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증기와 큰 물이 육지와 바다의 분리보다 먼저 이루어지며 생명의 출현은 그 이후이다. 식물계가 동물계보다 먼저이고 인간은 가장 나중에 그리고 가장 복잡한 생명 형태이다. 이 접근에 대해 갖는 질문은:
 - ㄱ. 태양이 없이 식물이 “시대들”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 ㄴ. 만일 이후의 “시대들”이 될 때까지 곤충이나 새들이 없었다면 행성 안에서 수분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3. 대체 장일설
날들은 실제로 24 시간이지만 각 날은 피조물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의해 구분된다. 이 접근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 ㄱ. 날-시대의 이론에서와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ㄴ. 본문에서 “날”이 24 시간으로서 또한 한 시대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4. 점진적 창조-지각의 격변 이론
이 이론은 다음을 주장한다: 지질학적 시대들이 발생했던 무한정의 긴 시간이 창 1:1 과 창 1:2 사이에 있었다; 이 기간동안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들이 화석에 의해 제시된 순서대로 창조되었다; 200,000 년 전경에 초자연적 재난이 일어났고 지구 상의 많은 생명체가 파괴되었으며 많은 동물들이 사라졌다; 그 후에 창 1 장의 날들이 생겼다. 이 날들은 최초의 창조라기보다 재창조를 가리킨다.
5. 오직 에덴 이론
창조의 이야기는 오직 에덴동산의 창조와 이의 물리적인 면만을 가리킨다.
6. 간격이론
창 1:1 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 1:2 에 기초하여 루시퍼(사탄)는 세상을 담당하도록 되었고 그(사탄)는 반역했다고 이해한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셨다. 수 백만년 동안 세상은 버려져 있었고 여러 지질학적 시대를 거쳤다. 창 1:3-2:3 에 기초하여, 주전 4004 년에 하루가 문자적으로 24 시간인 6 일 간의 재창조가 있었다. 어서 주교(주후 1654 년)는 창 5 장과 11 장의 족보를 사용하여 인간창조의 시기를 주전 4004 년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족보가 완전하게 연대적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7. 거룩한 주간 이론
창세기의 저자는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신적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문학적 기교로써 날과 주간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드러낸다.
8. 우주적 성전의 시작

이것은 창세기 1 장의 6 일을 물질적 존재론이 아니라 기능적 존재론으로서 보는 존 윌튼(*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 IVP, 2009)의 최근 관점이다. 이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기능을 하는 우주를 명령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묘사한다. 이것은 고대의 다른 우주론과 생각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처음의 3 일은 “계절(즉 시간)”과 “기후(즉, 작물)”와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다. “좋았더라”라는 구절의 반복은 기능적인 면을 의미할 것이다.

제 7 일은 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생물로 가득찬 장소인 “우주적 성전”의 정당한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것을 묘사한다. 창 1 장은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한 기능적 장소로서 질서를 갖게 된 것을 뜻한다.

“날들”이란 표현은 문학적 기교로써 일반적인 고대근동의 생각을 반영한다:

1. 거기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구별이 없다.
 2. 신은 생명의 모든 면에 관여하셨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타나는 독특성은 일반적 세계관이 아닌 사실에 있다.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ㄱ.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
 - ㄴ. 인간을 위한 창조이지 신들을 위한 창조가 아니다
 - ㄷ. 이스라엘의 기록에는 신들 사이에 혹은 신들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없다.
- 이스라엘이 창조의 기록을 다른 데서 따온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일반적인 세계관을 공유한 것을 보이는 것뿐이다.

개역개정 1:6-8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⁷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⁸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6 이 절에는 “있다”(BDB 224, KB 243)라는 동사에서 온 두 개의 **칼지시형**이 있다. 14 절과 22 절에 같은 구조가 나온다.



NASB, NET

JPSOA

“넓게 펼쳐진 장소”

NKJV

“창공

NRSV, TEV

“등근 천장”

NJB

“아치형 천장”

이 단어(BDB 956, KB 1290)는 사 42:5 과 같이 “망치로 두드려 평평하게 퍼다” 또는 “퍼다”를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지구 표면 위(참조, 사 40:22)의 아치형 지붕 또는 등근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공간으로서 지구의 대기(참조, 1:20)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 “물” 민물과 짠물은 성경 이외의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조절하신다. 창 1 장에 짠물과 민물 사이에 구분이 없다. 대기에 있는 물이 땅 위에 있는 물에서 분리된다. 창 1 장의 분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것을 나누시는 것을 보여준다(어둠에서 빛을, 아래의 물에서 위의 물을, 물에서 아래의 물을, 달의 시간에서 태양의 시간으로).

■ “물로 나뉘라” 하나님은 물의 혼돈을 조절하신다(BDB 95, KB 110, *히필 분사*).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하신다(참조, 욥 38:8-11; 시 33:6-7; 사 40:12).

1:7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참조, 1:9, 11, 15, 24, 30).

개역개정 1:9-13

⁹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¹⁰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¹¹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¹²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¹³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10 각 절에서 시작하는 동사(BDB 876, KB 1082 와 BDB 906, KB 1157)는 둘 다 지시형으로 사용된 *니팔명령*이다. 이것은 하나의 대륙을 의미하는가(즉, 판게아)? 지구는 계속적으로 형태가 변하고 있다(즉, 판 구조론). 지구의 나이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현상을 조절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 자연신은 없다!

1:9 “물이 드러나라” 이것은 이집트 우주론에 있는 최초의 거룩한 언덕과 비슷하다. 고대근동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계관의 또 다른 예는 흙에서 창조된 인간일 것이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스라엘의 창조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11-12 이것은 모든 식물계의 기원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식물의 세가지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풀, 곡물, 과일. 동물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것을 먹을 것이다; 인간은 두 번째의 것과 세 번째의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과 교체하시고 그들을 부양하시기 위한 장소로서 지구를 단계적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식물계의 진화 순서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현대 과학 이론이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성경의 순서 그대로를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 이론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과 고고학이 사실을 확증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평화와 성경 자체의 영감된 진술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1:11 “땅은 ... 내라” 이것은 동사 “씩이 트다”(BDB 205, KB 233)의 *히필 지시형*이다.

■ “각기 종류대로” 한 번 창조된 식물, 동물, 사람은 재생산할 수 있고 또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참조, 12, 21, 24, 25 절; 6:20; 7:14). 하나님은 생명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창조하셨다. 여러 다른 조건에 대한 진화가 이런 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실제로 발생했다(미세한 진화 또는 수평적 진화).

하나님께서 인간을 (1) 여러 단계를 거쳐 또는 (2) 아담과 하와를 최종 단계에서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창조하셨다(참조, 버나드 램과 휴즈 로스의 저서)는 것을 뜻하는 점진적 창조의 개념쪽으로 신학적 이해가 점점 기울고 있다.

다산을 의미하는 쌍둥이 신을 숭배했던 고대 근동지역과는 반대로 이 구절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지 성행위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출애굽시 일어난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을 격하시켰던 것처럼, 많은 면에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근동지역에 있던 신들(물; 빛/어두움; 천체; 자연의 힘; 다산의 신)의 권위를 감소 시킨다. 유일한 창조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시다!

개역개정 1:14-19

¹⁴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¹⁵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¹⁶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¹⁷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¹⁸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¹⁹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14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은 절기(참조, 18:14; 레 23 장; 신 31:10)와 휴식, 일, 예배의 주기(참조, 시 104:19-23)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태양은 달과 각각의 날을 시간의 구획으로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그들의 모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즉,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1:16 “두 큰 광명체 . . .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천체의 창조자시다(참조, 사 40:26). 그것들은 예배를 받을 신적 존재(메소포타미아의 별 숭배, 참조, 신 4:19; 겔 8:16)가 아니라 물리적인 종(참조, 시 19:1-6)이다. 이것은 신학적인 진술이다!

1:17-18 히브리어의 이 평행 구조는 14 절에 나타난 목적외에 세 가지 목적을 더 말한다.

개역개정 1:20-23

²⁰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²¹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²²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²³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1:20-23 무척추 동물이 캄브리아기에서 갑자기 그리고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점진적 진화의 물리적 증거는 없다.

20 절에서 사용된 동사인 “번성하다”(BDB 1056 KB 1655)와 “날다(BDB 733, KB 800)는 모두 **미완료형**이지만 **지시형**으로 사용되었다.

1:20 “생물” *נֶפֶשׁ* (BDB 659)가 인간(참조, 2:7)과 동물에게 같이 사용되고 있다(참조, 2:19; 레 11:46; 24:18).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 관계되고 이에 영향을 받는 생명력(참조, 겔 18:4)을 나타낸다.

▣ “새” 문자적으로 이것은 “나는 것들”(BDB 733)이다. 왜냐하면 신 14:19-20 에서 이것은 곤충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1:21 “창조하시니” 이 단어는 창 1:1 에서와 같이 *בָּרָא*(BDB 135, KB 153, **칼미완료형**)이다. 이것은 신의 창조행위를 의미한다. “사람과 동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체(즉, 흙)로 1:24-25 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1:27 에서 “사람”에 대하여 *בָּרָא*가 사용되었다(3 회).

이 특별한 단어는 (1) 1:1 에서 우주(또는 지구)의 창조를 (2) 1:21 에서 바다에 있는 피조물을 (3) 1:27 에서 사람의 창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NASB, NRSV
 TEV, NJB
 NKJV, NIV
 LXX, KJV
 JB

“큰 바다 괴물”
 “큰 바다 동물”
 “큰 고래”
 “큰 바다 뱀”

이것은 *리워야단*(BDB 1072, 참조, 시 104:26; 148:7; 욥 41 장)을 의미할 수 있다. 때때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적을 나타낸다: (1) 이집트, 사 51:9; 겔 29:3; 32:2(때로는 “라합”으로 말해진다, 참조, 시 89:10; 사 51:9) (2) 바벨론, 렘 51:34. 종종 이것은 우주적/영적인 적을 뜻한다, 욥 7:12; 시 74:13; 사 27:1. 가나안 사람들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것을 바알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신으로 묘사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말한다.

▣ “날개 있는 모든 새” 이것은 날아 다니는 모든 새와 곤충을 말한다(참조, 신 14:19-20).

1:22 식물처럼 동물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행성이 생물로 가득차기를 원하셨다(연속적인 *칼 명령*[그리고 하나의 *지시형*], 참조, 1:28; 9:1, 7). 바벨탑(참조, 창 10-11 장)사건이 드러낸 논점 중 하나는 이것에 대한 반역이었다(즉, 흩어져 지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음).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과학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창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와 언제가 아니라 누가와 왜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창 1-2 장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가?
3. 하나님은 물리적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마치 이 장이 시라면 우리는 *피아트*, *엑스 니힐로*(무에서의 창조)를 고집해야 하는가?
4. 창 1 장의 중심 목적은 무엇인가?
5. 성경이 다른 창조 기록과 어떤 점에서 같은가/다른가?

도움이 되는 자료들

- 가. 필립 존슨의 *보류된 목적*
- 나. 필립 존슨의 *시험 중에 있는 다윈주의*
- 다. 휴즈 로스의 *창조와 시간*
- 라. 휴즈 로스의 *창조주와 우주*

- 마. 휴즈 로스의 *창세기의 질문*
- 바. 버나드 램의 *과학과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 사. 말콤 A. 지베스의 *과학적 기획과 그리스도인의 믿음*
- 아. 다렐 R. 팔크의 *과학과 평화를 누리기*
- 자. 프란시스 S. 콜린스의 *하나님의 언어*
- 차. 파잘레 라나와 휴즈 로스의 *아담은 누구였는가?*

창 1:24-2:3 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서론

- 가. 지난 2 세기 동안 구약학자들은 창세기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저자를 통해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나타낸다고 종종 주장했다. 그러나:
 1. 이것은 일반적인 기술 후에 좀 더 특징적인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는 전형적인 동방의 문학형태일 것이다.
 2. 창 1:1-23 은 이 행성의 창조에 대한 요약적인 기록이며 창 2:4-25 은 첫 번째 부부를 창조한 기록일 것이다.
 3.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에 대한 다른 면을 반영할 것이다(즉, 랍비들의).
 - ㄱ. 엘로힘 -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시며 유지자이시다
 - ㄴ. 야웨 -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 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과 창조된 것이 형성되는 것 사이에 구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21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20 절에서는 물이 산출했다; 25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24 절에서는 땅이 이것들을 만든것으로 말한다. 어스틴은 이 차이를 식별했고 창조의 두 가지 행위를 가정했다: (1) 물질과 영적 존재들 (2) 그것들의 구성과 다양성.
- 다. 이 구절은 인간이 땅 위의 고등한 동물과 비슷함을 분명히 알려준다: (1) 둘 다 *네페쉬*로 불린다, 1:24 과 2:7 (2) 둘 다 제 6 일에 창조되었다, 1:31 (3) 둘 다 흙에서 만들어 졌다, 2:19 (4) 둘 다 식물을 음식으로 취한다, 1:29-30 (5) 둘 다 자손을 낳는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점도 있다: (1) 특별한 창조, 1:26; 2:7 (2)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1:26 (3)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1:26, 28.
- 라. 창 1:26 의 “우리가... 하자”(참조, 1:26; 3:22; 11:7; 19:24; 사 6:8)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여러 이론이 나타났다:
 1. 장엄한 복수형(그러나 성경이나 랍비의 문학에서 초기의 예가 없다)
 2.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하늘 궁전에 있는 천사들에게 말하고 계신다, 왕상 22:19
 3. 하나님의 복수성을 가리키므로 삼위일체를 암시한다, 3:22; 11:7; 사 6:8; 61:14. (ㄱ) 엘로힘이 복수형인 것과 (ㄴ) 시 2:2; 110:1, 4; 숙 3:3-9, 11 에 신적 위격이 언급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 마. 형상과 모양의 의미에 대한 이론들:
1.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 ㄱ. 형상—인간의 육체적인 면
 - ㄴ. 모양—인간의 영적인 면
 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힐라리, 암브로스, 어거스틴, 다마스쿠스의 존
 - ㄱ. 형상—인간의 비육체적 특징들
 - ㄴ. 모양—거룩함이나 도덕성과 같이 발전될 수 있는 인간의 면, 만일 발전되지 않을 경우 잃어버리게 된다.
 3. 스콜라 철학자들(토마스 아퀴나스)
 - ㄱ. 형상—인간의 이성적인 능력과 자유(자연적인)
 - ㄴ. 모양—원래의 의로움과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타락으로 잃어 버렸다
 4. 종교개혁자들
 - ㄱ.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두 용어 사이의 어떤 차이도 부인했다(창 5:1; 9:6).
 - ㄴ. 루터와 칼빈은 다른 용어로 이 개념을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진리를 나타냈다.
 5. 나는 이 용어들이 우리의 (1) 인격 (2) 의식 (3) 언어의 능력 (4) 의지 그리고/또는 (5)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바. 특별주제: 자연적 자료

특별주제: 자연적 자료

I. 서론

- 가. 창조는 모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배경이고 무대이다.
- 나. 타락으로 자연도 영향을 함께 받았다(참조, 창 3:17; 6:1 이하; 롬 8:18-20). 또한 자연은 종말적 구속도 함께할 것이다(참조, 사 11:6-9; 롬 8:20-22; 계 21-22 장).
- 다. 죄 많고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인 유기로 자연 환경을 약탈했다. 다음은 에드워드 카펜터의 *웨스트민스터 캐논*에서 인용한 것이다.

“... 지구 전체에서 인간이 그들 주위의 우주에 행한 잔인한 폭행—즉 하나님의 창조—공기를 오염시키는 인간의 공격; 인간이 더럽힌 자연의 수로; 인간이 못쓰게 만든 땅; 육심껏 숲을 파괴한 결과로써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인간이 마구 베어 넘어뜨린 숲. 이 공격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의 균형에 대한 부족한 관심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 한 세대의 책임성이 없는 행동을 가져왔다.”
- 라. 우리의 지구를 오염시키고 약탈한 결과를 우리 자신이 거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은 더욱 더 심각하여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II. 성경적 자료

가. 구약

1. 창 1-3 장

- ㄱ. 창조는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장이다(참조, 창 1:1-25)
- ㄴ. 창조는 선하고(참조, 창 1:4, 10, 12, 18, 21, 25) 또한 매우 좋은 것이다(참조, 창 1:31).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함을 의미한다(참조, 시 19:1-16).
- ㄷ. 인간은 창조의 결정적인 목적이다(참조, 창 1:26-27).
- ㄹ.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통치(히브리어, “밧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조, 창 1:28-30; 시 8:3-8; 히 2:6-8). 하나님은 창조주/유지자/ 구원자/ 창조의 주인이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신다(참조, 출 19:5; 욥 37-41 장; 시 24:1-2; 95:3-5; 102:25; 115:15; 121:2; 124:8; 134:3; 146:6; 사 37:16).

- .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 정신은 창 2:15 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참조, 레 25:23; 대상 29:14).
- 2.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동물을 사랑하신다.
 - ㄱ. 동물을 적절히 다룰 것에 관한 모세의 법
 - ㄴ. 리위야단을 물 속에서 놀게 하시는 야웨(참조, 시 104:26)
 - ㄷ. 하나님은 동물들을 보살피신다(참조, 요 4:11)
 - ㄹ. 자연의 종말론적 출현(참조, 사 11:6-9; 계 21-22 장)
- 3. 자연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ㄱ. 시 19:1-6
 - ㄴ. 시 29:1-9
 - ㄷ. 욥 37-41 장
- 4.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이다.
 - ㄱ. 신 27-28 장; 왕상 17 장
 - 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 신약

- 1.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낸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의 창조주만 계실 뿐이다(엘로힘, 창 1:1; 성령, 창 1:2; 예수님, 신약).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이다.
 - ㄱ. 행 17:24
 - ㄴ. 히 11:3
 - ㄷ. 계 4:11
- 2. 예수님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셨다
 - ㄱ. 요 1:3, 10
 - ㄴ. 고전 8:6
 - ㄷ. 골 1:16
 - ㄹ. 히 1:2
- 3.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신다
 - ㄱ. 마 6:26, 28-30,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 ㄴ. 마 10:29, 참새
- 4. 바울은 모든 인간이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즉, 자연 계시, 참조, 롬 1:19-20; 계 21-22 장).

III. 결론

- 가.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속해 있다!
- 나. 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남용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도 남용했다.
- 다. 자연의 질서는 일시적이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벧후 3:7).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를 다음의 역사적 단계로 옮기고 계신다. 죄는 자신의 길로 행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창조는 회복될 것이다(참조, 롬 8:18-25).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24-25

²⁴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²⁵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BDB 43)은 1 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복수형태로 된 고대로부터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랍비들은 이 이름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창조주, 공급자, 유지자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1:26; 3:22; 11:7 과 관련되는 점에서 또한 유일신주의(쉐마, 신 6:5-6)를 나타내는 위대한 기도에 있는 “하나”가 이 단어의 복수형과 연결됨을 고려할 때 이 복수형은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보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사용된 경우 이 동사는 거의 대부분 단수형으로 되어있다.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1) 천사들(참조, 시 8:5); 인간 재판관들(참조, 출 21:6; 22:8, 9; 시 82:1) 또는 (3) 다른 신들(참조, 출 18:11; 20:8; 삼상 4:8)을 가리킨다. 2:4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땅은 . . . 내라 하시니” 이것은(BDB 422, KB 425) *히필* 지시형이다. 창 1 장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재생산하는 것 사이의 구분이 있다(즉, 적응시키는 것). 20 절과 21 절, 24 절과 25 절을 비교해 보라.

▣ “생물을 그 종류대로” 24-25 절은 땅 위에 사는 크고 작은 가축과 야생동물을 말한다. “생물”(BDB 659 과 311)이란 단어가 창 2:7 에서 인간에게 사용된 단어인 *네페쉬*에 기초함을 주목하라. 인간의 독특성이 헬라어에서 “영혼”으로 종종 번역되는 *네페쉬*란 단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 “기는 것” 문자적으로 이것은 “미끄러지듯 움직이다” 또는 “미끄러지다”(BDB 943)를 의미한다. 이것은 21 절에서 사용된 “움직이는”과 같은 단어이다. 이것은 그들의 다리로 걸지 않거나 혹은 눈에 띄지 않게 작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가리킬 것이다.

▣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 1:7 의 설명을 보라.

1:25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좋았고(BDB 373) 1:31 에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포된다. 이것은 부여된 목적에 적합하다는 의미인 히브리어의 관용어일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에 죄가 없었음을 말할 것이다. 죄는 반역의 결과이지 창조의 결과가 아니다.

개역개정 1:26-31

²⁶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²⁷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²⁸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²⁹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³⁰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³¹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26 “우리가 만들자” 이 동사의 형태(BDB 793, KB 889)는 **칼미완료형**이지만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라는 **복수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필로와 에벤 에즈라는 이것이 “**장엄한 복수형**”이라고 말하지만 이 문법적 형태는 유대 문학 역사에서 훨씬 나중까지 나타나지 않는다(NET 성경은 이것이 동사들과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5 쪽); 라쉬는 이것이 하늘의 법정(참조, 왕상 22:19-23; 욥 1:6-12; 2:1-6; 사 6:8)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천사들이 창조된 한 부분을 감당했다거나 그들이 신적 형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표현한 초기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기록에서 신(보통 각각의 도시와 연결됨)들은 항상 서로 다투지만, 여기서는 유일신의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수의 복수적 표현에서도 변덕스러운 불평없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 **“사람”**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담”(BDB 9)인데 **흙**(*아다마*, 참조 9 절)을 가리키는 히브리 용어와의 분명한 언어유희이다. 또한 이 단어는 “**붉음**”을 뜻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계곡(참조, 2:7)의 붉은 흙 덩어리나 점토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창세기의 첫 부분에 있는 장들에서만 히브리어 단어 “아담”은 이름으로써 사용되었다. 70 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하여 **앤스로포스**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남자와(또는 남자나) 여자를 의미하는 총칭적인 용어이다(참조, 5:2; 6:1, 5-7; 9:56). 남자나 남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이쉬*(BDB 35, 참조 2:23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다)이고 여자나 아내는 *이샤*(BDB 61)이다.

나의 신학적 입장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 부부에 대한 창조와 화석으로 남아 있는 여러 종류의 두 발 동물인 **호모 이렉투스**를 관련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몇몇 고대의 무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과 분명히 연결되는 매장물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종 안에서 진화에 대해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원시의 인간이고 창 1-11 장의 역사적 시간의 틀은 근본적으로 넓혀져야만 할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아담과 하와를 “**현대**” 인간(**호모 사피엔스**)으로 창조(즉, 점진적 창조)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들의 관계는 문명이 발생하는 것과 근접한 시기에 특별한 창조가 있었을 것을 가정한다. 나는 이것이 결국 이면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나간 고대의 일에 대하여 현대인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다시 말하건데 신학적으로 “어떻게” 또는 “언제”가 아닌 “누가” 그리고 “왜”가 매우 중요하다!

▣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란 단어는 5:1, 3; 9:6 에서도 발견된다. 구약에서 이것은 종종 **우상**(KB 1028 II)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이 어원의 기본적인 뜻은 “어떤 모양으로 깎아 만들다”이다. **형상**(BDB 853, KB 1028 5 항)과 **모양**(BDB 198)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는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신약 성경에서 이에 상응하는 헬라어 용어들은 인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참조, 고전 11:7; 골 3:10; 엡 4:24; 약 3:9). 내 의견으로 그 용어들은 동의어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면을 설명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이 아담 안에서 될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날 이루어질 것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파잘레 라나와 휴즈 로스의 아담은 누구였는가?**, 79 쪽을 보라.

▣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짓밟다**”(BDB 853, KB 1190, **지시형**의 의미에서 사용된 **칼미완료형**)이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말하는 강력한 단어이다(참조, 시 8:5-8). 같은 개념이 28 절에서 발견된다. 26 절과 28 절의 “**다스리라**”와 28 절의 “**정복하라**”는 두 단어는 “**밟다**” 또는 “**짓밟다**”를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같은 어원을 가진다. 비록 이 동사들이 딱딱하게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반영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은 창조된 지구를 지배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스리고/지배하도록 되어있다. 신학적 관심은 힘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자신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에 있다!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지배할 것을 뜻하는 복수형을 주목하라(참조, 5:23). 또한 28 절의 복수형으로 되어있는 명령들임을 주목하라. 여자의 복종은 다만 3 장의 타락 후에 왔다. 실제적인 질문은 “이 복종이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다.

1:27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이 절에서 *바라*(BDB 127)라는 단어가 세 번(두 *칼완료형*이 뒤 따라오는 *칼미완료형*) 사용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진술이며 또한 이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 부분은 NRSV 와 NJB 에서 시로 되어 있고 NIV 에서는 각주로 이 사실을 나타냈다. 구약에서 *바라*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다.

▣ “자기 형상” 26 절에서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이 여기서 단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것은 복수성의 신비를 나타내면서 또한 하나님의 통일성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BDB 853)은 동등하다!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성적인 면은 지구의 필요와 환경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것을 계속하신다(1:4 의 설명을 보라). 2:18 과 5:2 에서 친밀한 관계를 주목하라. 우리 안에 있는 신적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도록 이끈다.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 . .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BDB 138, KB 159, *피엘미완료형*)의 일부는 출산(참조, 신 7:13)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동물(참조, 22 절)과 사람(참조, 28 절; 9:1, 7) 모두에게 주셨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기록에서는 인간의 인구 과잉에서 오는 시끄러움이 신들이 인간을 파멸하는 이유가 된다. 창세기의 기록은 인구증가를 격려한다. 반역(참조, 창 10-11 장)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흩어져 지구를 충만케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었다.

▣ “땅을 정복하라 . . . 다스리라” 히브리어 본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평행을 이루는 두 명령이 있다(세 개의 *칼명령*의 연속).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성이 하나님의 뜻을 조절하도록 한다.

“정복하라”(BDB 461, KB 460)와 “다스리라”(BDB 921, KB 1190)는 히브리어 동사는 둘 다 부정적(즉, 잔인한 통치)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자비로운 통치인지 아니면 공격적인 것인지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1:29 지구의 식물은 세 가지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먹이 연쇄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시작한다. 모든 지구의 동물은 식물의 기적에 의존한다. 이 절에서 곡식과 과일이 인간에게 음식(참조, 2:16; 6:21)으로서 주어진 반면에 세 번째 그룹인 목초는 동물에게 주어졌다.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인간이 고기를 먹도록 허용되지 않았다(참조, 창 9:3). 그 해에 추수할 것이 없었다는 사실과 연결 될 것이다. 창 1 장에서 보편적인 매일의 음식 규정을 끌어내는 것은 신학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 설명이 단지 에덴 동산에만 관계될 수도 있다. 죽음과 육식동물에 관한 것은 생물화석의 기록이 풍부하게 시작되는 500,000 년전의 캄브리안 층과 관계된 최초의 화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0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 진술의 요점은 모든 생명이 광합성 작용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즉, 먹이 연쇄).

1:31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창조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후기에 영지주의자들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헬라의 사상체계에서(몇몇 메소포타미아 본문처럼) 물질과 영은 둘 다 영원히 공존한다. 이 체계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기록은 매우 다르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물질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에 악은 없었고 오직 “자유”만 있었을 뿐이었다!

▣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 삼일과 같이 제 육일에도 두 가지 창조 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육일 동안 8가지의 창조 행위가 이루어진다. 랍비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에 기초하여 황혼 때부터 새 날로 계수한다.

개역개정 2:1-3

¹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²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³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1 “천(하늘)” 이 단어(BDB 1029)는 지구의 대기권을 의미한다. 어떤 문맥에서는 이것이 별이 있는 대기권 위의 하늘을 의미한다.

▣ “지(땅)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신 일은 완성에 이르렀다(BDB 477, KB 476, *푸알미완료형*, 1 절 그리고 *피엘미완료형*, 2 절). 이것은 이제 인간의 거주를 위해 준비되었다. 창조의 각각의 단계는 적합한 거주자를 갖는다(즉, “무리” BDB 838). 이것은 특별히 천사의 창조를 의미하지 않는다(1:1 이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본문은 물리적 창조를 다루고 있다.

어떤 문맥에서는 히브리어로 “군대”가 (1) 하늘의 빛과 연결된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즉, 태양, 달, 행성, 혜성, 별자리[참조, 신 4:19]) 또는 (2) 야웨의 천사적 군대(참조, 수 5:14)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온갖 종류의 창조된 생명을 의미한다.

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것은 매우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거나, 피조물이나 인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행동을 영구히 멈추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휴식과 예배가 필요한 인간에게 주신 기본 모델이다.

▣ “안식하시니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안식일”(BDB 991, KB 1407, *칼미완료형*, 참조, 출 20:11; 31:12-17)과 똑같은 어근이다. 안식일에 대하여 신 5:15 은 출 20:8-11 과 같은 신학적 이유가 아닌 사회학적 이유를 말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는데 특히 신약의 히 3:7-4:11 와 시 95:7-11 에서 독특하다. 히브리어에서 “휴식하다”라는 단어는 안식일의 휴식, 약속의 땅, 하나님과의 교제(하늘)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이 규정을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규칙적인 교제가 말로는 진술되지 않았지만 문맥에서 창조의 중심 목적을 이룬다!

▣ “일곱째 날” 제 1 일에서 제 6 일이 저녁에서 시작하여 아침에 마쳐졌지만(참조, 1:31) 제 7 일의 아침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랍비들과 히브리서 저자(3:7-4:11)는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참조, 시 95:7-11).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신성하게 하다”는 용어는 “거룩하게 만들다”(BDB 872, KB 1073, *피엘미완료형*)란 의미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용을 위해 어떤 것을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매우 일찌기 하나님과 인간의 사귀를 위해 정기적으로 한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 놓으셨다. 이것은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해있지만 그 하루는 특별히 교제, 예배, 찬양, 힘을 얻는 휴식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의미이다.

일주일이 7일인 것에 대한 기원은 오래된 신비 속에 가려져있다. 사람들은 한 달이 달의 모양과 어떻게 관계있는지 일 년이 계절의 변화와 어떻게 관계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일주일에 대한 분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대 문화는 그들의 역사기록이 시작되었을 때 일주일이 7일인 것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주제: 예배

I. 서론

가. 중요한 질문들

1. 예배란 무엇인가?
2.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었는가?
3.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4. 누가 참여하는가?
5. 어디서 그리고 언제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나. 이 질문들은 우리의 연구를 위한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성경적 암시와 역사적 발전과정이 있다.

II. 예배란 무엇인가?

가. 영어 단어 “워십”은 어떤사람이 존경과 존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웰드스카이프”라는 색슨 용어에서 왔다.

나. 구약의 중요한 용어는:

1. ‘*아보다*, “섬기다” 또는 “일하다”(BDB 715)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왔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번역된다.
2. *히쉬타하와*, “구부리다” 또는 “(자신을) 엎드리다”(BDB 1005, 참조, 출 4:31)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왔다.

다. 신약의 중요한 용어는 히브리어 용어를 따른다.

1. ‘*아보다*에 대해서는 고용된 일꾼이나 종의 상태를 말하는 *라트레이아*를 사용한다.
2. *히쉬타하와*에 대해서는 “(자신을) 엎드리다,” “숭배하다,” 또는 “예배하다”를 의미하는 *프로스퀴네오*를 사용한다.

라. 예배가 강한 영향을 주는 두 면이 있음을 주목하라.

1. 우리의 존경하는 태도
2. 삶에서의 우리의 행동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참조, 신 11:13).

III.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었는가?

가. 구약은 예배의 기원에 대해 특별히 진술하지 않지만 창세기에 여러 가지 암시가 있다.

1. 창 2:1-3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나중에 중요한 예배인 매 주의 예배로 발전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일주일 단위의 구분을 지음으로써 인간의 휴식과 예배를 위해 선례를 정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말한다.
2. 창 3:21에서 타락함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타락한 인간 부부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그들의 옷을 지으신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사용하는 희생제사의 체계를 발전시킬 여지를 주신 것처럼 보인다.
3. 창 4:3 이하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희생제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정규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이 본문은 채소를 헌물하는 것을 알보거나 혹은 동물로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합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과 거부하심을 어떻게든지 전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4. 셋의 경건한 메시아적 계보는 창 4:25 이하에 전개된다. 26 절에 있는 분명한 예배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언급한다(이 본문을 출 6:3 과 조화를 이루어 이해해야 한다).
5. 창 7:2 에서 노아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사이의 상이점을 진술한다. 창 8:20-21 에서 그의 희생물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이른시기에 희생물의 규정이 상세히 정해졌음을 의미한다.
6. 창 12:7, 8; 13:18; 22:9 을 통해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현존과 약속에 대한 그의 반응을 나타낸다. 분명히 그의 자손은 이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다.
7. 욥기서는 족장시대의 배경을 가진다(즉, 주전 2000 년). 그는 욥 1:7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에 익숙했다.
8. 성경의 자료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경외심과 존경심에 기초한 예배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희생제사로 발전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 ㄱ. 십계명과 성결 법전
 - ㄴ. 성막 예식

IV.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 가. 인간의 태도가 희생을 드리는데 있어서 열쇠인 것은 분명하다(참조, 창 4:3 이하). 개인적 요소는 계시된 성경적 믿음에 있어서 항상 기둥을 이룬다(참조, 신 6:4-9; 11:13; 30:6; 렘 31:31-34; 겔 36:26-27; 롬 2:28-29; 갈 6:15).
- 나. 그러나 인간의 경건한 태도는 매우 일찌기 예식으로써 성문화되었다.
 1. 정결 예식(죄의 의미와 관련된)
 2. 섬김의 예식(절기, 희생, 예물 등)
 3. 개인적 예배 예식(공공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
- 다. 내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계시의 세 가지 자료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참조, 렘 18:18).
 1. 모세와 예식(제사장들)
 2. 지혜서의 현인들
 3. 예언서
 이들은 각각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각각 예배의 일관되고 생명력있는 면에 초점을 둔다.
 1. 형식(출애굽기-신명기)
 2. 삶의 양식(시 40:1 이하; 미 6:6-8)
 3. 동기(삼상 15:22; 렘 7:22-26; 호 6:6)
- 라.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서 구약의 형식을 따르신다. 예수님은 결코 구약을 비웃지 않으셨지만(참조, 마 5:17 이하), 주후 1 세기까지 발전되었던 구전은 거부하셨다.

마. 초대교회는 일정기간 동안 유대주의식으로 계속 예배드렸고(즉, 주후 90년의 랍비적 부흥과 개혁 때까지) 그후 독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회당의 방식이었다. 예수님, 그의 생애, 가르침, 십자가, 부활이 중심을 이루었고 구약의 의식을 대신했다. 설교, 침(세)례, 성찬이 중심적 의식이었다. 안식일은 주의 날로 교체되었다.

V. 누가 참여하는가?

- 가. 고대 근동의 족장중심적 문화는 종교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 나. 족장들은 희생을 드릴 때나 종교적 가르침에서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행동했다(욥 1:5).
- 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공공적, 공동적 예배 상황에서 종교적 직무를 책임진 반면에 아버지는 개인적 예배에서 이 역할을 감당했다. 바벨론 포로생활(주전 586년)로 회당과 랍비가 교육과 예배의 중심장소로 발전했다.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리새파로부터 발전된 랍비적 유대교가 우세해졌다.
- 라. 교회적 상황에서 족장적 방식은 보존되었지만 여자의 은사와 동등성에 대한 강조가 더해졌다(참조, 고전 11:5; 갈 3:28; 행 21:9; 롬 16:1; 딤후 3:11). 이 동등성은 창 1:26-27; 2:18에서 나타난다. 이 동등성은 창 3장의 반역으로 손상을 입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어린이는 항상 부모를 통해 예배에 참여했지만 어렸든 성경은 어른 중심의 책이다.

VI. 어디서 그리고 언제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 가. 창세기에서 인간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숭배한다. 이러한 장소에 제단이 세워졌다. 요단을 건넌 후 여러 장소가 늘어나지만(길갈, 벧엘, 세겜) 예루살렘이 언약궤와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로서 선택된다(참조, 신명기).
- 나. 농경의 시기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인간의 감사를 위한 의식이 따른다. 용서와 같은 특별한 의미의 필요는 특별한 예식으로 발전되었다(즉, 레 16 장, 속죄일). 유대교에는 정해진 절기가 있었다—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참조, 레 23 장). 이것은 또한 개인을 위한 특별한 기회도 인정하였다(참조, 겔 18 장).
- 다. 회당의 발전은 안식일 예배의 개념에 대한 기초를 형성했다. 교회는 예수께서 부활 후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연속하여 나타나심에 기초하여 예배드리는 날을 안식일에서 주의 날(주간 의 첫 번째 날)로 바꾸었다.
- 라. 처음에 초대교회는 매일 만났지만(행 2:46) 분명히 이것은 곧 주간 동안에는 개인적 예배로 그리고 주일에는 공동예배로 되었다.

VII. 결론

- 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하거나 제정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인간의 절실한 필요이다.
- 나.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이다.
- 다. 예배는 삶 전체로 드러야 한다. 이것은 형식이며 태도를 모두 말한다. 이것은 공공예배와 개인예배로 이루어 진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과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있다.
- 라. 참된 예배는 개인적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온다.
- 마. 예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신약의 신학적 본문은 요 4:19-26 일 것이다.

▣ “만드시던” 이것은 문자적으로 “만들고 있는”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었다(BDB 793 I, KB 889, 칼부정사 연계형). 하나님께서 유기적 피조물들이 진화해 가도록 지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반복되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를 따라 재생산 하는 생물(인간 포함)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창조의 행위는 변화를 일으킨다.

창세기 2:4-25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남자와 여자의 창조 2:4-9	(1:1-2:7) 하나님 동산에서의 삶 2:8-9	남자와 여자의 창조 2:4b-9	에덴 동산 2:4b-6 2:7 2:8-9	낙원과 자유의지의 시험 2:4b-7 2:8-9
2:10-14	2:10-14	2:10-14	2:10-14	2:10-14
2:15-17	2:15-17	2:15-17	2:15-17	2:15-17
2:18-25	2:18-25	2:18-25	2:18-20 2:21-24	2:18-23 (23)
(23)	(23)	(23)	(23) 2:25	2:24 2: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배경 연구

- 가. 나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모세오경을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한 것으로(참조, 창세기 서론, 라향의 오늘날의 학자들) 주장하는 J(야웨), E(엘로힘), D(신명기), P(제사장들)의 자료비평 이론을 거부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기 원하면 조쉬 맥도웰의 *평결을 요구하는 더 많은 증거*나 H. C. 루폴드의 *창세기해설*, 제 1 권을 읽으라.

- 나. 창 2:4-25 은 창 1:1-2:3 를 특별히 신학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히브리 문학의 기교이다. 2 장은 3 장의 신학적 배경을 놓는다.
- 다. 창 1:31 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작을 극치에 올려 놓는다; 1:1-2:3 이 문학적으로 한 단위이기 때문에 2:1-3 을 1 장과 더불어 이해해야만 한다.
- 라. 신학적으로 2:4-25 은 1 장보다 3 장과 더 관계가 깊다. 이것은 하와의 유혹과 지구 전체에 미치는 치참한 결과를 가져온 죄에 대한 문학적 장을 마련한다(참조, 롬 5:12-21; 8:18-23).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4-9

⁴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⁵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⁶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⁷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⁸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⁹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4 “이것이 ... 내력이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세대들이 있었으니”(BDB 41 과 410)이다. 이 표현은 저자가 창세기의 문학적 단락을 나누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참조,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8; 37:2, 즉, 이것은 이 책을 구성하는 저자의 방법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단락의 시작으로 보는데(즉, 데렉 키드너)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단락의 끝부분으로 본다(즉, R. K. 해리슨과 P. J. 와이즈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1:1-2:3 은 우주의 창조를 다루고 2:4-15 은 문맥적으로 3 장과 4 장과 연결되는 인간의 창조에 초점을 맞춘다.

▣ **“날”** 히브리어로 **יום** (BDB 398)은 보통 24 시간으로 된 시간의 단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은유적으로 좀 더 긴 기간에도 사용된다(참조, 2:4; 5:2; 룻 1:1; 사 2:11, 12, 17; 4:2; 시 90:4). 4 절의 상반절은 소제목이고 4 절의 하반절은 토론을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 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두 이름이 합쳐진 야웨 엘로힘이다. 이것은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된 첫 번째 경우이다. 많은 현대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들의 사용을 놓고 창 1 장과 2 장에 두 명의 저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랍비들은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킨다고 단언한다: (1) 엘로힘; 이 지구의 모든 생명에 대한 창조자 공급자, 유지자로서(참조, 시 19:1-6) (2) 야웨; 구원자, 구속자,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참조, 시 19:7-14). 이것은 신학적으로 영원히 사시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이 거룩한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본문을 큰 소리로 읽을 때마다 히브리어 단어인 **아돈**(남편, 소유자, 주인, 주)을 대신 사용했다. 이것이 영어로 야웨를 “여호와(LORD)”로 번역한 이유이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이 용어가 고대에 가진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 (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샴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보통은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합성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방법이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 16
 - ㅁ. 엘-베렛 (“언약의 하나님”), 사 9:46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신실하신” 신 7:9; 32:4
 - ㅂ.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ㅅ. “지식” 삼상 2:3
 - ㅇ.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ㅈ.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ㅊ. “거룩하신 분” 사 5:16
 - ㅋ. “힘” 사 10:21
 - ㅌ. “나의 구원” 사 12:2
 - ㅍ. “크고 능하신” 렘 32:18
 - ㅎ. “값으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합성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가 반복됨)

나. 엘론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병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 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 단 3:26; 4:2; 5:18, 21 에서는 일라이르(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은 종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였다.

ㄱ. 뿔기세텍, 창 14:18-22

ㄴ. 발람, 민 24:16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또한 헬라어로 같은 뜻을 지닌 **ἑλωσιστός**를 사용(참조, 1:32, 35, 76; 6:35; 8:28; 행 7:48; 16:17)

다. **엘로힘**(복수형), 시편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이방의 신들을 말할 수 있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엘로힘**은 영적 존재들(악한 천사)들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이것은 또한 사람인 재판관들에게도 사용되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성경에서 이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야웨와 함께 사용된 창 2:4 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의 생명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이것은 **엘**의 동의어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와 정확하게 병행하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병행한다.

5.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6.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ㄱ. 뿔기세텍, 창 14:18-22

ㄴ. 발람, 민 24:2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7.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 용어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에 가깝다.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 7).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 하나님의 창조; 창 1:2 에서 성령의 행하심;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있어서 아버지의 대행자였다(참조, 요 1:3, 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라. 야웨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가지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갖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해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야웨)을 불렀다” 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족장들과 그들의 가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샤다이*로 알았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동사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하필*동사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 에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 구약의 문맥 개요,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 (2) *야후*(이름, 예, 아사야)
 - (3) *요*(이름, 예,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조합이 가능한 많은 경우에서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출 31:13
 - ㅁ. *야웨-살롬*(야웨는 평화이시다), 사 6:24
 - ㅂ. *야웨-쓰바웃*(만군의 야웨), 삼상 1:3, 11; 4:4; 15:2; 종종 예언서에서 쓰임
 - ㅅ. *야웨-로이*(야웨는 나의 목자), 시 23:1

- . ~~야웨~~-치드케누(야웨는 우리의 의이다), 렘 23:6
- 즈. ~~야웨~~-삼마(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겔 48:35

▣ “땅과 하늘” 단어의 순서가 1 절과 반대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2:5 “들에는 초목” 이것은 야생 식물을 가리킨다(참조, 창 21:15; 욥 30:4, 7).

▣ “밭에는 채소” 이것은 경작하여 재배하는 식물을 가리킨다.

2:6 “안개” 이것은(BDB 15, KB 11) 아카디아 용어로서 (1) 홍수나 (2) 지하수의 범람을 말한다. 이것은 홍수에 의한(“늘 일어나다,” BDB 748, KB 828, **칼미완료형**) 물의 범람을 의미할 수 있다. 아랍어에서는 안개가 평행을 이루어 사용되는데 후자는 원래“이슬비”로 번역된다. 우리는 이것을 많은 양의 이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국한된 환경을 말하는 또 다른 내용일 지 모른다. 지질학은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창조하시기 오래 전에 지구표면에 물이 있었다는 고대의 결과를 입증하는 듯하다.

2:7 “지으시고” 문자적으로 이것은 “흙으로 만들다”(BDB 427, KB 428, **칼미완료형**, 참조, 렘 18:6)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하기 위해 사용한 세 번째 용어이다(“만들고,” 1:26[BDB 793, KB 889]; “창조하시되,” 1:27[BDB 135, KB 153]; “지으시고,” 2:7). 신약은 창조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셨음을 나타낸다(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6; 히 1:2).

▣ “땅의 흙으로 사람을”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BDB 9)이다. 이것은 (1) “붉은”(참조, 출 25:5; 28:17; 민 19:2; 사 63:2; 숙 1:8)이란 단어와 동음이의어이거나 또는 (2) “붉은 흙 덩어리”를 뜻하는 말로서 “땅”(아다마, 참조, 6 절)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나타낸다. 여기에 인간의 고귀함(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과 비천하고 연약한 상태 상호간의 긴장이 있다! 19 절에서 동물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이 표현은 인간의 기원이 흙에서부터 입을 말할 것이다(참조, 창 3:19; 시 103 편; 전 12:7). 이것은 인간을 흙으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나타낸다(사 29:16; 45:9; 64:8; 렘 18:6; 롬 9:20-23).

▣ “생기를 . . . 불어넣으시니” “불어넣다”(BDB 655, KB 708)라는 동사는 **칼미완료형**이다.

“호흡”(BDB 675)이란 명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신중하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같은 육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즉, 숨을 쉬고, 먹고, 배설하고, 자녀를 생산한다).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지구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우리의 본질은 두 가지 면을(영적이고 육체적인) 지닌다.

▣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간은 *네페쉬*(BDB 659, KB 711-713)가 되었고 가축도 그러하다(참조, 1:24; 2:19). 인간의 독특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점에 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혼이다! 우리는 육체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의 존재이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참조, 살전 4:13-15) 사이에 있는 중간 상태를 제외하고 항상 육체를 가질 것이다

아담은 원시인이었는가 아니면 현대인이었는가? 그가 고대의 영장류(모든 원시 인류)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200,000 년전 갈멜산 지역에 석기시대의 사람이 살았다. 아담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그는 진화의 마지막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특별한 피조물로서 최초의 사람이었는가?

2:8 “동산” 이 단어(BDB 171)는 에워싸인 공원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70 인역은 이것을 페르시아어로 “천국”으로 번역한다.

▣ **“에덴에”**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 또는 “행복한 땅”(BDB 727 III, KB 792 II)이라는 의미이다. 그 동산이 “에덴”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에덴에 그것이 위치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분명히 지리적 위치로서 어떤 장소의 이름이다. 이것과 관련된 수메르 용어는 “비옥한 평지”를 의미할 수 있다. 8, 10-14 절의 설명은 매우 상세하게 위치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있지만 이것의 지리적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1) 현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구 또는 (2) 이 강들의 상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강들의 이름은 현대 지리와 맞지 않는다. 홍수로 지구가 어느 정도나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메소포타미아의 기록과 성경 기록의 유사성은 논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 동산이 있었음을 의미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파잘레 라나와 휴즈 로스의 *아담은 누구였는가?*, 46 쪽을 보라.

2:9 “생명 나무 . .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마지막 구절은 삼입어구일 것이다(참조, NET 성경, 7 쪽). 창 3:3은 그곳에 오직 한 나무만 있었다고 설명하는 반면 3:22은 두 나무가 있었다고 말한다. 고대 근동의 자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 나무는 마술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인간에게 그들의 창조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과 같거나 혹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지식이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음을 약속하는 듯했다. 이것이 죄의 정수이다. 이것은 또한 하와에게 창조 안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아담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역개정 2:10-14

¹⁰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¹¹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들렀으며 ¹²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¹³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고 ¹⁴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2:10 “강” 이것은 “지류”였다(BDB 625).

2:11 “비손” 이것은 문자적으로 “분출하다”(BDB 810)이다. 이것은 고대의 수로나 “피사누”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물길 또는 운하를 의미할 것이다.

▣ **“들렀으며”** 이것은 문자적으로 “굽이지다”(BDB 685, KB 738, *칼능동 분사*)이다.

▣ **“하월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모래가 많은 땅”(BDB 296)이다. 이것은 이집트에 위치한 지역이 아닌 10:7의 구스와 연결된다. 이 용어는 아라비아에 있는 모래의 땅에 대해 10:29에서 다시 사용된다.

2:12 “베델리엄” 이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고무액일 것이다(BDB 95). 이 용어와 그 다음 용어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진주”(참조, 헬렌 스푸렐과 제임스 모팻의 번역)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호마노” 보석에 대한 고대의 모든 용어는 매우 불확실하다(BDB 995). 이 돌은 대제사장(참조, 출 28:9)의 흉패에 물리는 12 개의 돌 중 하나이다. 에텐의 보석은 겔 28:13 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된다.

2:13 “기혼” 이것은 문자적으로 “거품”(BDB 161)이다. 이것은 고대의 수로나 “구하나”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운하를 의미할 것이다.

▣ “구스” 이 용어는 구약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 (1) 여기와 10:6 이하, 티그리스 계곡 동쪽의 카시테스를 의미한다 (2) 합 3:8; 대하 14:9 이하; 16:8; 21:16, 아라비아의 북쪽을 의미한다 (3) 일반적으로 북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나 누비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BDB 468).

2:14 “히테겔” NASB 개정판은 이것을 “티그리스”로 번역했다(BDB 293).

▣

NASB, NKJV

NRSV, TEV “앗시리아”

NJB “아수르”

JPSOA, NIV “앗수르”

이 단어(BDB78)는 (1) 사람(즉, 민 24:22, 24; 호 12:2; 14:4) 또는 (2) 땅(참조, 창 2:14; 10:11; 호 5:13; 7:11; 8:9; 9:3; 10:6)을 의미할 수 있다. 문맥상 2 항이 더 적합하다.

▣ “유브라데” 문자적으로 이것은 “페라쓰”이다. 이것은 종종 “그 강”이라고 불린다(참조, 창 15:18; 왕상 4:21, 24).

개역개정 2:15-17

¹⁵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텐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¹⁶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¹⁷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15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이전부터 일은 인간의 임무였고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 “경작하다”란 용어는 “봉사하다”(BDB 712, KB 773, 칼부정사 연계형)라는 의미인 반면 “지키다”는 “보호하다”(BDB 1036, KB 1581, 또 다른 칼부정사 연계형)라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배에 따르는 책임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지구에 있는 자원의 착취자가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수메르와 바벨론 신화에서는 항상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지만,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하도록 정해진 일은 오직 이 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

2:16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것은 강조를 위해 칼부정사 절대형이 같은 어근(BDB 37, KB 40)의 칼미완료형과 결합된 경우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 충성하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계셨다(참조, 창 22:1; 출 15:22-25; 16:4; 20:20; 신 8:2, 16; 13:3; 사 2:22; 대하 32:31).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마술적인 나무가 아니었다. 그 열매 안에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비밀스런 어떤 성분을 함유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순종과 신뢰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 나무가 강함과 약함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하라. 인간이 지구의 물리적 자원으로부터 산출해낸 것에 나는 감탄한다. 인간은 선과 악의 가능성을 둘 다 가진 놀라운 피조물이다. 지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 “악”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아*이며 “무너뜨리다” 또는 “파괴하다”(BDB 948)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행동과 그 결과를 결합시킨다(참조, 로버트 B. 거드레스트의 *구약의 동의어*, 80 쪽).

▣ “날” 과일을 먹은 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계속 살았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24 시간(BDB 398)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기간의 의미를 갖는 “날”이다.

▣	
NASB	“너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NKJV	“너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NRSV	“너는 죽을 것이다”
TEV	“너는 바로 그 날에 죽을 것이다”
NJB	“너는 죽을 운명에 있다”

이것은 부정사 절대형과 같은 어원을 갖는 대격이 사용된 경우로서 “죽는 것을 죽고있다”(BDB 559, KB 562)이다.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문법적 표현이다. 이것은 16 절의 경우와 같다. 이 구조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참조, *구약의 26 가지 번역*). 여기서의 죽음은 분명히 영적인 죽음(참조, 엡 2:1)으로서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가져온다(참조, 창 5 장). 성경은 세 단계의 죽음을 설명한다: (1) 영적인 죽음(참조, 2:17; 3:1-7; 사 59:2; 롬 5:12-21; 7:10-11; 엡 2:1, 5; 골 2:13a; 약 1:15) (2) 육체의 죽음(참조, 창 5 장) (3) “둘째 사망”(참조, 계 2:11; 20:6, 14; 21:8)이라 불리는 영원한 죽음. 실제 의미에서 여기의 단어는 세 가지 죽음을 모두 의미한다.

개역개정 2:18-25

¹⁸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¹⁹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²⁰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²¹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²²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²³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²⁴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²⁵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18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구약의 앞부분에서 “좋지 아니하니”가 사용된 유일한 경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교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남자가 여자와의 동반자 관계 없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이룰 수 없으며 또한 지구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성취할 수 없다.



NASB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
NKJV	“그에게 필적하는 돕는 자
NRSV	“그의 협력자로서 돕는 자”
TEV	“그를 돕는 적합한 동료”
NJB	“돕는 자”

이것은 “보충하고 완전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이다(BDB 740 I, KB 811 I). NET 성경은 “없어서는 안되는 동료”(8 쪽)라고 기록한다. 이 용어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는데 사용한다(참조, 출 18:4; 신 33:4, 7, 29; 시 33:20; 115:9-11; 121:2; 124:8; 146:5). 1:26-27 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친밀한 관계와 1:28 의 복수형 명령을 주목하라. 타락(참조, 3:16)하기 전까지 여자의 복종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 같은 여자의 창조에 관한 특별한 기록은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 유일한 것이다.

“남자에게 상응하는 능력(또는 힘)”(또는 남자와 대등한 자)이라고 번역한 월터 카이저의 흥미있는 언어 연구가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92-94 쪽에 있다.

2:19 “하나님이 . . . 각종 들짐승(을) . . .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 번째 창조 기록(참조, 창 2:4-25)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동물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며 이 구절을 그 증거로 사용한다. 이 동사(BDB 427, KB 428, 칼미완료형)는 “지으셨었고”(참조, NIV)라고 번역할 수 있다. 히브리어 동사의 시간은 문맥에서 알 수 있다.

이스트 텍사스 침례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리치 존슨 박사는 이 주석에 대한 비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동사와 같이 와우의 연속과 함께 쓰인 미완료형의 의미는 단순과거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사건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구문의 방법이다. 이와 같이 연속적인 동사는 동사의 순서대로 사건에 대해 말한다. 당신은 여기서 번역에 영향을 주는 해석가의 전제를 언급한다. 여기에 이 절과 2: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 .”)을 잘못 번역한 NIV 번역가의 전제가 있다. NIV 의 번역가는 이 장이 1 장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야기체로 된 히브리어 본문을 읽을 때 적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이러한 전제를 어디에서 갖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KJV, ASV, ERV, RSV, NRSV, NASB, ESV, NEB, REB, NET 역, 영(Young)의 문자적 번역, 유대인 출판협회역, TANAKH, NAB, NJB 는 이 동사를 단순과거로 번역한다. NIV 의 번역은 이상하다.”

▣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부르다”(BDB 894, KB 1128)란 동사는 19, 20 절에서 세 번 사용된다. 이름은 히브리인에게 매우 중요했다. 이것은 인간의 권위와 동물에 대한 지배를 나타낸다.

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일까: (1)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 (2) 최초로 시작된 종류의 동물 (3) 메소포타미아의 동물?

2:21 이 절은 남자와 여자(아담과 하와, 참조, 23 절)의 독특한 관계를 강화한다. 이것은 가까움과 친숙함을 나타내기 위한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일 것이다. “갈빗대”라는 히브리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모두 “옆”(BDB 854, KB 1030 I)으로 번역되었다.

R. K. 해리슨의 책 *구약개론* 555-556 쪽에서 “갈빗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인격적인 면”을 의미한다고 흥미롭게 주장한다. 즉, 인격적인 면을 포함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아담과 비슷하게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수메르의 창조 이야기에서 “갈빗대”가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 사용된 부분이었다는 것 또한 흥미롭다: *엔키*에서 *난-티*가 왔다(참조, D. J. 와이즈만의 *성경적 고고학의 실례들*). 이 문맥에서 갈빗대란 수메르 단어(즉, *티*) 또한 “살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참조, 3:20).

모세가 이 장들을 한참 나중에 기록(편집 혹은 편찬)한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단어유희에 속하지만 히브리어는 최초로 사용된 언어는 아니었다.

2:22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남자로서 행동하신다고 말한다.

2:23 “남자... 여자” 이 절은 시적이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이샤*(BDB 35)... *이쉬*(BDB 35)로서 분명한 소리의 유희를 나타낸다(특히 “*이샤*라는 그녀의 이름”). 아담은 또한 하와를 이름했다(또는 최소한 하와가 자신과 비슷함을 나타낸다). 어원은 불 확실하다. 보통 *아담*은 총체적인 인간을 *이쉬*는 개인을 의미한다.

2:24 “부모를 떠나” 이 동사(BDB 736, KB 806)는지시형의 의미를 갖는 *칼미완료형*이다. 가족의 중요성을 이 초기의 기록에서 확인하게 된다. 모세는 그가 살던 시대의 환경과 확장된 가족의 삶의 상황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은 혼인으로 인한 관계보다 더 큰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

NASB	“달라붙다”
NKJV	“결합하다”
NRSV	“밀착하다”
TEV	“하나가 되다”
NJB	“~에 부착되다”

이것은 충성이나 친밀함(BDB 179, KB 209, *칼미완료형*, 참조, 룻 1:14; 마 19:5-6; 엡 5:31)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관용어이다.

▣ **“한 몸”** 이것은 결혼한 부부의 완전한 결합을 보여주고 또한 결혼한 부부의 우선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하나”라는 단수형태는 두 사람이 하나로 묶인 것을 말하고 있다.

2:25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3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표현의 의미는 아담이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BDB 101, KB 161, *히트폴렐미완료형*). 그러므로 이것은 결백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사물은 곧 변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매우 통제된 환경을 말한다. 에덴 동산이 보호되었고 나중에 지구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특별히 창조되었다는 면(즉, 점진적 창조주의)에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창 1 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나타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같은가?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가?
3.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단지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가?
4. 남자가 창조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표현이 인구 폭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6. 인간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7. 창 2:2, 3 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토요일 대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당한가?
8. 1 장과 2 장이 매우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9. 아담이 특정한 이름과 총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번역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 에덴의 지리학적 위치가 그렇게 상세하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11.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세 가지 종류를 말해보라.
12. 18 절은 성적 존재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3. “돕는 자”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가?

창세기 3:1-24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가인과 아벨	유혹과 인간의 타락	유혹 이야기	인간의 불순종	타락
3:1-7	3:1-8	3:1-7	3:1-7 3:2-3 3:4-5 3:6-7	3:1-7
3:8-19	3:9-19	3:8-19	3:8-9 3:10 3:11 3:12 3:13a 3:13b	3:8-13
(14-16)	(14-16)	(14-16)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다	
(17b-19)	(17b-19)	(17b-19)	3:14-15	3:14-16 (14-16)
3:20-21	3:20-24	3:20-21	3:20-21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으로 쫓겨나다	3:17-19 (17-19) 3:20-24
3:22-24		3:22-24	3:22-2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 3. 세 번째 문단
- 4. 기타

서론

- 가. 창 3 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죄와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랍비들이 악, 죄, 인간의 반역에 대하여 토론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놀랍다.
- 나. 인간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고의적인 반역의 결과는 그들의 종교적 영역 뿐 아니라 그들 각자의 삶과 가족관계, 그들이 사는 세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지불하신 커다란 값을 생각하라. 창조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기쁨과 원래의 목적은 인간의 반역으로 철저하게(그러나 영구적이지는 않음) 영향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공급하심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반역(그리고 아마 천사의 반역도)은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무시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다. 또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약속(참조, 3:15)은 그 근간에 있는 은혜로운 성격을 더욱 드러낸다!
- 다. 비록 이 장은 고대 근동의 다른 자료와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지만, 이 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이원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신적이다.

죄의 기원과 목적

- 가. 성경의 자료
 - 1. 사탄이 창조된 목적에 대한 나의 신학적 가정은 (1)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진 피조물에게 독립적이 되고 하나님을 비난하도록 유도하는 선택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나, 욥 1-2 장; 숙 3 장 또는 (2) 창 3 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앞서서 천사의 반역이 있었거나 혹은 적어도 천사적 대리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명백한 비방을 인간에게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 2. 인간은 유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3. 성경은 “악”의 기원과 목적에 대하여 특별히 논하지 않는다.
 - ㄱ. 약간 후기의 유대 저작들은 죄가 창 3 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사탄 안에서, 그 후에는 사람 안에서)
 - ㄴ. 신구약 중간시대에 쓰여진 유대인의 다른 저작들은 죄가 창 6 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서)
 - ㄷ. 예수님 시대 이후에 거짓교사들은 유대주의와 헬라의 사상을 결합시켜 악이 육체적 물질을 따라 유전되었다고 주장했다(즉, 헬라 영지주의적 사고, 참조, 골; 엡; 딤후; 딤후; 딤후)
 - 4. 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나 또는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나의 가정이다. 오히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악과 사탄의 분명한 집중적 활동이 나온다(참조, *구약신학*, A. B. 데이비슨, 300-306 쪽). 구약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적은 아니지만(아마도 이 장을 제외하고) 항상 인간의 적이다. 랍비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악한 자가 질투했다고 말한다.

5. 아담의 죄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다(즉, 형체에 대한 히브리 개념, 참조, 창 3:14-24; 롬 5:12-21; 8:18-23).

나. 역사적-신학적 발전(L. 벌코프의 *조직신학*에서 발췌함)

1. 랍비들은 원죄를 부인하고 두 가지 의도(선 대 악)를 취한다. 구약은 창 3 장을 길게 논하지 않는다(랍비들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이레니우스(주후 130-202)는 아담의 죄와 그 결과를 논의한 첫 번째 교부이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인간이 타락하였다는 관점은 서방교회(즉, 어거스틴)에서 우세하게 되었다. 명백히 이것은 악의 문제를 물질 자체에 돌렸던 영지주의와 논쟁하는데 사용되었다.
3. 오리젠(주후 182-251)은 각각의 인간이 전생애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주장했다(플라톤주의).
4. 3-4 세기의 헬라 교부들(동방교회)은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한 아담의 책임을 덜 강조했다. 이러한 견해는 아담과의 어떤 관계도 거부한 펠라기우스주의(영국의 수도사로부터)로 발전되었다.
5. 어거스틴을 추종하는 라틴교부(즉, 서방교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 죄,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아담의 책임을 강조했다.
6. 기독교 종교개혁 기간동안 대부분의 개혁가들은 어거스틴을 따랐고 반면에 알미니우스는 교리주의적인 칼빈에 반발하여 반펠라기우스를 발전시켰다.
7.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주장했다:
 - ㄱ. 칸트—잘 알려지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서 오감을 초월한 영역에 있는 것
 - ㄴ. 라이브니츠—물질적 우주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에 기인함
 - ㄷ. 슐라이엘마허—인간의 감각적 상태에 기인함
 - ㄹ. 리츨—인간의 무지에 기인함
 - ㅁ. 바르트—예정설의 신비에 포함됨
 - ㅂ. 화이트헤드—죄는 이 세계의 구조 안에 본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다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8. 성경의 중심 내용은 죄와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죄의 기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특별주제: 타락에 대한 신약 신학의 발전

1. 롬 5:12-21 에서 바울이 분명히 설명한 것처럼 타락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다
 롬 5:12-21 은 둘째 아담(참조, 고전 15:21-22, 45-49; 빌 2:6-8)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논의이다. 이것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강조한다. 아담 안에서 인간의 타락을 발전시킨 바울의 방법은 독특하고 랍비들과는 다르다. 반면에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그의 관점은 랍비들의 가르침과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하(참조, 행 22:3)에 있는 동안 배웠던 진리를 성령의 영감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보충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창 3 장에 있는 원죄의 교리는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주장한다. 시 51:5; 58:3; 욥 15:14; 25:4 은 종종 구약의 증거 본문으로서 사용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선택과 운명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대안적인 신학적 견해는 랍비들이 처음 발전시켰고 그 다음은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에 의해 교회 안에서 발전되었다. 신 1:39; 사 7:15; 은 4:11; 요 9:41; 15:22, 24;

행 17:30; 롬 4:15 에 그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이 신학적 견해의 골자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 어린이는 무죄하다는 것이다 (랍비들은 이런 나이의 경계를 남자 아이는 13 세, 여자아이는 12 세로 보았다).

선천적인 악의 경향과 도덕적 책임의 나이가 둘 다 맞다는 견지에서 중간 입장이 있다! 악은 단지 공동체적일 뿐만 아니라 악 자체와 죄가 발전된 것도 포함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인간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라(참조, 창 6:5, 11-12, 13; 롬 3:9-18, 23) 그것이 언제부터인가가 문제이다(태어날 때 또는 살다가 나중에).

2.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약의 종말론적 주제가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카이노스)라는 헬라어 용어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닌 질을 말하는 것이다(참조, 2:17; 3:12; 5:9; 14:3; 21:1, 2, 5). 이것은 구약의 주제인 재창조된 땅이었다(참조, 사 11:6-9; 65:17; 66:22; 롬 8:18-25; 뱀후 3:10, 12). 모든 믿는 자는 새 왕국의 시민(참조, 빌 3:20; 엡 2:19; 히 12:23)이고 그들은 새로운 창조에 동참할 것이다 (참조, 고후 5:17; 갈 6:15; 엡 4:24). 이와 평행이 되는 신학적 개념은 히 11:10, 16; 13:14 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지지않은 하나님의 성”일 것이다.

새로운 창조는 처음의 창조와 같을 것이다. 천국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람, 동물, 모든 자연의 피조물은 다시 교제를 나누며 기뻐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동물이 동산에서 완전한 교제를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참조, 창 1-2 장). 성경은 동산을 배경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참조, 계 21-22 장) 그리고 예언에 따르면 동물(참조, 사 11:6-8; 65:25)이 함께 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믿는 자들은 하늘에 가지 않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참조, 계 21:2) 재창조되고 정하게 된 땅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것이다(참조, 창 3:15; 사 7:14; 8:8, 10; 계 21:3).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1-7

¹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²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³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⁴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⁵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⁶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⁷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3:1 “그런데” 이것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창조 사건에서 새로운 막을 소개하는 단순한 문학적 기교이다. 우리는 이 기록 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지 또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지 모른다.

▣ “뱀” 다음에 나오는 특별주제를 보라. 길가메쉬 서사시(참조, 11:287-289)에서도 뱀이 영생을 주는 식물을 훔친 원수로 나온다.

특별주제: 뱀

- 가. “뱀”이라는 용어는 *나하쉬* (BDB 638)이다. 이것은 여러 어원을 가지고 있다:
1. *칼 형* - “씻 하는 소리를 내다”
 2. *피엘 형* - 마법이나 점을 칠 때 말하는 것과 같이 “속삭이다”
 3. 4:22 에서 - 아마도 “청동”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빛나다”
 4. 아라비아어의 어근에서 - “슬며시 접근하다”
- 나. 뱀 앞에 붙은 정관사는 특별한 뱀이나 의인화된 실체를 나타낸다.
- 다. 다음의 내용은 이것이 글자 그대로의 뱀인 것을 지지한다: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 하나로서 기록된다.
 2. 3:14 에 있는 한 실제 동물로서의 형벌
 3. 신약(고후 11:3; 딤페전 2:13-14)에서 특별히 암시되었다.
- 라. 특별히 뱀을 사탄과 동일시 하는 기록은:
1. 신구약 중간시기의 책인 “지혜서” 2:23-24.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않게 창조하셨다; ... 그렇지만 사탄의 시기를 통해 죽음이 세상에 왔다.”
 2. 이레니우스(주후 130-202 년경)
 3. 계 12:9; 20:2
 4. 창 3 장에서 이것에 대하여 길게 논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일시는 구약 자체에는 없다.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거나 해석하지 않았다.
- 마. 왜 사탄을 특별히 이름하지 않았는가—본문의 강조는 인간의 책임성에 있는 것이지 초자연적인 유혹에 있는 것이 아니다. 롬 1-3 장에서는 사람의 죄성이 나타나고 4-8 장에서는 죄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 “간교하니라” 이 용어(BDB 791, KB 886)와 관계가 있을 두 가지 동음이의어가 있다(이 용어는 2:25 의 “벌거벗은”과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난다): (1) “간교한” 또는 “지혜로운” (2) “슬기로운”(예, 잠 1:4; 8:5, 12; 12:16, 23; 13:16; 14:8, 15, 18; 22:3; 27:12). 이것은 뱀을 부정적으로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뱀의 특성에 대한 인식으로 보인다(참조, 마 10:16).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자신을 육체로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이 들짐승을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 “들짐승 중에” 이것은 이 뱀이 창조된 많은 동물의 모습 중 하나였다는 것을 단순히 나타낸다.

▣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위치한 단어 “여호와”는 히브리어 동사의 “있다”(참조, 출 3:14)에서 온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야웨이다. 뒤에 위치한 “하나님”이란 용어는 *엘로힘*이란 히브리어 단어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엘)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일반적 이름으로서 **복수형**으로 되어있다. 랍비들은 야웨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나타내는 반면 *엘로힘*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2:4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뱀이 ... 물어 이르되” 명료하게 말하는 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다(인칭 대명사[he]를 주목하라). 타락 이전에는 인간과 동물이 친하게 지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관계를 잘 모른다. 나는 언어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동물과의 교제가 종말론적 상황에서

회복될 것이다(참조, 사 11:6-11). 나는 사탄이 뱀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들려진 것은 사탄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한다. 신학적으로 놀라운 것은 하와가 놀라지 않았다는 점이다!

▣ “여자” 비록 사탄에 의해 사용된 동사는 복수형이지만 왜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있었는가에 대해 주석가들 사이에 많은 추측이 있다. 3:6 에서 아담은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와가 자의식을 찾으려는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참조, 2:16-17) 사탄이 그녀를 유혹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생각은 모두 추측에서 나온 것이다.

▣ “하나님이 참으로 . . . 하시더냐” 랍비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야웨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의 인격 안에 있는 사악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참조, 구약신학, A. B. 데이빗슨 저, 300-306).

특별주제: 개인적 악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선에 대한 큰 원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인간에게 다른 쪽의 여지를 제공하거나 사람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야웨의 종을 말한다.
2. 하나님께 대항하는 옛 원수의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글에서 페르시아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이러한 사상은 이어서 랍비적 유대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들을 놀랍도록 뚜렷하면서도 선택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만일 누구든지 악의 문제를 성경신학의 관점(각 책 또는 저자별, 장르별로 연구하고 개요를 구별하는)에서 접근한다면, 그때는 매우 상이한 견해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외의 자료를 가지고 악에 대해 연구하거나 세계종교에 대한 성경이외의 자료나 동방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그리스-로마의 강신술에 의해 신약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권위를 받아들이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념의 발전은 반드시 점진적인 계시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민속전승이나 서양문학(즉, 단테, 밀톤)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단단히 해야한다. 계시에는 어느 정도 신비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해, 악의 기원에 대해, 악의 목적에 대해 모든 면을 다 알도록 하지 않으셨으나, 그는 악의 패배를 계시하셨다!

구약에서 사탄 혹은 고발자는 세 가지 종류로 사용된 것 같다

1. 사람인 고발자(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 23, 25; 시 109:6)
2. 천사인 고발자(민 22:22-23; 슥 3:1)
3. 악령인 고발자(대상 21:1; 왕상 22:21; 슥 13:2)

신구약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 3 장의 뱀이 사탄으로 알려졌다(지혜서 2:23-24; 에녹 2 서 31:3), 하지만 그 이후에서도 이러한 해석은 랍비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했다(참조, *Sot 9b* 와 *Sanh. 29a*). 창 6 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 1 서 54:6 에서 천사로 이해되었다. 내가 이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되어 온 것임을 밝히려는 이유에서다. 신약은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천사로 의인화된 악으로 묘사한다(고후 11:3; 계 12:9).

의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결정짓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당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이유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강한 유일신 사상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겔 7:14; 사

45:7; 암 3:6). 모든 것의 원인은 야웨께로 돌려져 그의 유일하심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사 43:11; 44:6, 8, 24; 45:5-6, 14, 18, 21, 22).

가능한 정보로는 (1) 욥 1-2 장으로서 여기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중 하나로 나온다 (2) 사 14; 겔 28 장인데 사탄의 자긍심에 비유된 근동 왕들(바벨론과 두로)의 교만이 나온다(참조, 딤편 3:6). 나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교차되는 느낌을 갖는다. 에스겔은 사탄으로써 두로왕을 표현하고(참조, 겔 28:12-16) 이집트왕을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비유함(겔 31)으로써 에덴동산의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교만으로 일어난 천사의 반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의 특별한 정체와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간접적인 본문은 그것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조직신학의 경향인, 신구약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 다른 저자, 다른 책, 다른 장르에서 취한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적인 퍼즐의 조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그의 책 *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간*, vol. 2, 부록 XIII (748-763 쪽)과 XVI (770-776 쪽)에서 랍비적 유대교는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추론적인 귀신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랍비들의 저술은 이 부분에서 유용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달랐다. 나는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일에 있어서 천사의 중재적인 역할과 반대에 대한 랍비적인 관념이 야웨와 인간의 적인 천사장의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란의 이원론에 나오는 두 높은 신들(*아후라 마즈다* [선한 신] 대 *앙그라 마인유* [악한 신]) 이 지구에 대한 패권을 놓고 지구에서 싸웠다. 이 갈등은 유대교에서 야웨와 사탄과의 이원론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신약에는 악의 발전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랍비들의 저술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록된 내용도 묵시적 장르로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 7, 12-13). 비록 사탄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는 아직 야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한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편 1:20).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제어해야만 한다. 유혹과 악에 대한 존재가 있지만,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구원의 이전과 이후 양쪽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승리가 온다. 악은 패배하였고 제거될 것이다!

▣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하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언처럼 보인다. 뱀은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자와 대화를 시작한다.

3:2 하와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음식으로 주셨다고 말한다(참조, 2:16). 그러나 뱀은 그 대답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신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춘다.

3: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창 2:9 으로부터 우리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두 나무의 열매는 적절한 때에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지만, 사람의 탐욕스러운 아집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이것을 취한다(빌 2:6-11 에 있는 예수님의 태도와 얼마나 반대되는가). 생명나무는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창조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에만 유일하게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마술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사용하신 사실이 이 나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지 그 열매가 본래 어떤 특별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용어(BDB 559, KB 502)는 3, 4 절에서 세 번 사용된다. 아무 동물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죽음을 이해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든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세 종류의 죽음을 말한다 (1) 창 3 장; 사 59:2; 롬 7:10-11; 엡 2:1; 약 1:15 에 나타나는 영적 죽음 (2) 그 결과로서 생긴 육체적 죽음, 창 5 장; (3) 사람의 완고하고 반역하는 마음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참조, 계 2:11; 20:6, 14; 21:8).

3: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강조를 위해 같은 어근(BDB 559, KB 562)의 부정사 절대형과 칼미완료형이 사용된 경우이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실성을 먼저 공격한다; 지금 그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5 절에서 그는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공격할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이 문장의 형식은 특별하게 강조를 나타내는 형태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 . .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했던 말에는 부분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이것은 비극적인 반쪽 진실이었다(참조, 딤후 1:15). “~할 때에는 언제나”의 뜻인 “날”의 사용은 번역자의 문학적 기교(은유적)로 보인다. 문자적으로 이 표현은 “~할 때”이다.

“밝아지다”(BDB 824, KB 959, 니팔 완료형, 참조, 7 절)라는 동사는 대리자(도구)를 포함하는데 아마도 나무나 악한 자의 능력일 것이다.

▣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다. 2:4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많은 번역본이 이 구절을 해석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천사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참조, 시 8:5, 6; 82:1, 6[히 2:7 에서 인용했음]; 97:7); 이것은 “영적 존재”(참조, 삼상 28:13)를 가리킬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참조, 출 21:6; 22:8-9)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또는 아마도 하늘의 법정(참조, 3:22)에 서 있는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처럼 될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된다. 인간이 이미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취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의아하다. 인간은 천사보다 높은 영적 순위에 있다(참조, 히 1:14; 2:14-16; 고전 6:3).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우리는 유혹에서 출발하여 죄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가는 삼중적인 발전과정을 본다. 눈과 귀가 영혼의 창문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자라게 한 그것이 결국 치명적인 행동을 낳는다고 랍비들은 말한다.

▣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절에 대하여 많은 추측이 있다. 랍비들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분리되지 않으려고 그것을 먹었다고 주장한다. 밀톤의 *실낙원*에서도 역시 이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맥상 사탄이 하와에게 나아간 것처럼 하와도 그녀가 이미 먹었는데도 죽지 않은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아담에게 권한 것으로 보여진다. 랍비들은 심지어 뱀이 하와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뱀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만지라고 강요하면서, “봐, 너는 죽지 않잖아.”라고 말했다. 아마도 하와는 아담에게, “나를 보세요, 죽지 않잖아요.”라고 했을 것이다.

3:7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유혹으로 이끄는 성적 본질로 본다(참조, 고후 11:3,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랍비들은 심지어 뱀이 하와를 성적으로 미혹했다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본문을 편향되게 읽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새로운 지식은 축복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 영망이 되게 했다(참조, 딤후 1:15).

▣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하와가 사과를 먹었다는 전통적 입장은 대단히 추론적이다. 랍비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 잎을 취했던 바로 그 나무에서 하와가 무화과를 따먹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열매”는 대추야자의 열매나 어떤 다른 종류의 열매일 수 있다—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열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개역개정 3:8-13

⁸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⁹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¹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¹¹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¹²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¹³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8 “그들이 . . .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흠정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의미한다(BDB 229, KB 246, *히트파엘분사*). 히브리어의 구조와 문맥에서 불 때 하나님과 최초의 부부가 교제를 위해 일상적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한 매우 의인화된 표현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와 교제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고 가정한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육체를 가지셨던 삼위일체의 한 위는 오직 아들뿐이시다. 어떤 사람은 신약이 아들을 통한 창조를 말하고(참조, 요 1:3, 10; 고전 8:6; 골 1:16; 히 1:2)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종종 나타나시기 때문에(즉, 여호와의 천사, 예, 창 16:7-13; 22:11-15; 31:11, 15; 48:15-16; 출 3:2, 4; 13:21; 14:19) 이것이 성육신 사건 이전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이라고 추론한다.

▣ “그 날 바람이 불 때” 이 히브리어 표현은 바람(BDB 398)이란 용어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아침이나 저녁의 시원한 바람을 말한다.

▣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 . . 숨은지라” 이 동사(BDB 285, KB 284)는 *히트파엘미완료형*이다. 죄의 비극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육체적 분리(참조, 시 139 편; 계 6:16) 및 정서적 분리로 이미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3:9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위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묻고 있는 것이다(참조, 11 절). 구약에서 이런 형식의 수사적 질문은 “개방적 신문”(즉, 클라크 펜녹, *가장 깊이 감동을 받은 격려자*)이라고 한다.

3:10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아담은 그를 만드시고 그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한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 또한 자연의 질서로부터 숨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악의 정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가 벗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실제 문제를 알면서 살짝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3:12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핑계를 대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비록 하와나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댈지라도 아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플립 윌슨의 신학인 “악마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은

“문화적 환경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또는 “유전적 경향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등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3:13 “뱀이 나를 찌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재빨리 배워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찌다”라는 용어는 “잇게 만들었다”(BDB 674, KB 728, *히필 완료형*)는 의미로 보인다. 이것은 뱀의 씹씹하는 소리에 대한 의성어일 것이다(즉, *히시 아니*). 신약은 하와의 행동을 고후 11:3 과 딤편 2:14 에서 언급한다.

창 3:14-24 에 대한 문맥적 통찰

서론

- A. 3:1-12 과 같이 이 본문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죄, 아픔, 고통, 불의, 악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셨던 상태가 아니다.
- 나. 이 본문(특히 15 절)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개입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타락하고 반역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으로서 그는 “여자”를 통해서 올 것이다.
- 다.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에 반역한 결과가 분명히 묘사되어 있다! 사탄이 거짓말장이인 것이 분명히 나타났고 죄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계속 진행된다.
- 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16 절에서 분명히 구분된다(참조, 딤편 2:9-15; 앵 5:22; 골 3:18; 뎌전 3: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힘든 관계는 최초에 행해진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만일 구약에 질병의 원인에 대한 학문이 있다면, 이것이 그 경우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참조, 고전 11:11; 갈 3:28).
- 마. 랍비들은 원죄를 거부하고 두 “옛제르”(의도)를 둔다. 그러나 구약은 욥 14:4; 15:14; 25:4; 시 51:5 에서 신약은 전통적으로 롬 5:12-21 에서 아담의 원죄를 확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14-19

¹⁴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¹⁵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¹⁶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¹⁷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¹⁸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¹⁹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3:14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중요한 두 단어인 야웨와 엘로힘의 결합이다. 2:4의 설명을 보라.

▣ **“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뱀에게는 묻지 않으신다. 뱀은 악한 자의 도구가 되었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 **“네가 모든 가축... 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동사(BDB 76, KB 91)는 칼수동 분사이다. 이것은 모든 가축(아마도 소나 땅의 동물들 보다 넓은 의미)이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더욱”이란 표현은 “모든 가축에서”라는 의미일 것이다. 랍비들은 이것이 가축의 임신 기간과 비교하여 뱀의 임신 기간을 탈무드에서 7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의미라고 주장한다.

▣ **“배로 다니고”** 히브리인들은 배로 기어다니는 어떤 것이든 부정하게 생각했다(참조, 레 11:42).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뱀이 기어다니도록 다리를 제거했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무지개가 전에도 똑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심으로써 무지개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창 9:13의 무지개 사인과 비슷할 것이다.

▣ **“흠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사 65:25에서 암시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의 뱀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패배와 부끄러운 것(참조, 시 79:9; 사 49:23; 미 7:17)을 의미하는 은유일 것이다. 이 절에 있는 **미완료형**들은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다.

3:15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적대감(BDB 33)은 사람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문자적 뱀이 아닌 사탄에게로 내려지는 변화의 과정으로 보인다(참조, 계 12:9; 20:2). “우리의 문법적 역사적 해석적 개념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창 3:15을 통한 점검, 번 S. 포이쓰레스, JETS, 볼륨 50.1, 87-103).

▣ **“너로 여자와...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 절에 대하여 주석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다. 성경의 보다 더 큰 문맥에서 이것은 악한 자(참조, 마 13:38; 요 8:44)의 후손(즉, “씨,” BDB 282)과 메시아의 후손(참조, 이레니우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he)”과 “네(you)”가 단수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구속사역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악한 자 사이의 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이레니우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고, 신 18:18에서 모세가 자기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모세도 이 말씀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것이 원래의 인간 저자에게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적 저자(성령)에게는 알려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암시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자의 충동성으로 인간이 타락한 것과 같이,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메시아의 잉태에 있어서 여자의 순종을 통해 인간은 구속받을 것이다(참조, 사 7:14; 마 1:18-25 눅 1:26-38, *성경의 예언에 대한 안내*, 78, 80 쪽을 보라). 불가타 성경은 다음 구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he)”을 완전히 부적합하게 “그녀(he)”로 바꾸는데, 그것(성)은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으로 성취되기까지 이 예언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것처럼 창 1장과 2장의 해석도 이 같은 상태에 있다. 지구에 대한 계속적인 과학적 연구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복잡성과 상호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역사는 계시의 진실성을 드러낸다! 갈등은 없다. 단지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인간 편의 좀 더 완전한 지혜가 요구될 뿐이다!

■

NASB “그는 네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할 것이요”
 NKJV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NRSV “그는 네 머리를 칠 것이요”
 TEV “그녀의 후손은 네 머리를 부술 것이요”
 NJB “그것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하다”라는 용어는 “부수다,” “세게 치다,” “문질러 없애다,” “가루로 만들다,” 또는 “치다”를 의미한다(BDB 1003, KB 1446, **칼미완료형**, 두 번 사용됨, 참조, 욥 9:17). **인칭 대명사가 단수형인 것에 주목하라**(참조, 롬 16:20). 전쟁은 결국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

NASB “그리고 너는 그의 뒤통치에 상처가 나게 할 것이니라”
 NKJV “그리고 너는 그의 뒤통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NRSV “그리고 너는 그의 뒤통치를 칠 것이니라”
 TEV “그리고 너는 그녀의 후손의 뒤통치를 물 것이니라”
 NJB “그리고 너는 그것의 뒤통치를 칠 것이니라”

같은 동사(BDB 1003, KB 1446, **칼미완료형**)가 둘에게 사용되었지만 사탄은 가장 나쁜 죽음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 신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할 것이다.

3:16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네 가지 중심되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1) 커다란 해산의 고통(**히** **부정사 절대형**과 같은 동사의 **히** **미완료형**, BDB 915, KB 176) (2) 양육하기에 너무나 많은 자녀 (3) 자녀를 기르는데 따르는 문제들 (4) 남편의 지배이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하와의 반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다: (ㄱ) 그녀는 독립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완전히 남편(하나님이 아닌)에게 종속된다 (ㄴ) 그녀는 금지된 열매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았지만 이제 일상의 삶에서 고통을 갖게 된다. 신약은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타락한 관계에 대한 신학적 의미로서 이해하는 것이 분명하다(참조, 딤후 2:9-15). 우리는 그리스도 안(고전 11:11; 갈 3:28)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아담 안(엡 5:22; 골 3:18; 뱀전 3:1)에 있는 우리의 계속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 사이에서 어느 편을 택할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본문에 약간의 혼동이 있다. 여기에서 “아이를 가진”이라고 번역한 용어는 철자가 다르다. 이 히브리어 자음은 “엎드려 기다리는”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를 유혹하는 악을 가리킨다(참조, **성경의 어려운 말들**, 90-99 쪽).

■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 “원함” 또는 “갈망”(BDB 1003, KB 1801)으로 번역된다. 월터 카이저는 이것이 아마도 “지배하다”(참조, 창 4:7)의 의미에서 “바꾸다”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와는 야웨께로부터 떠났다. 그녀에게 준 형벌은 여러 상황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남편에게로의 계속적인 귀환이다(참조, **성경의 어려운 말들**, IVP, 97-98 쪽).

■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동사(BDB 605, KB 647)는 **칼미완료형**이다. 이것은 타락의 결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남성은 죄된 본질을 따라 이 내용을 극단적으로 취했다. 시기, 강간, 이혼, 경건하지 않은 지배는 남성의 성적 충동을 특징짓는 내용이다! 우리는 성적 욕망에 이기적 자아의 문제가 더해진 동물처럼 되었다!

3:17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 . . 은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지만 그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어겼다(참조, 2:15-17).

▣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동사(BDB 76, KB 91, 칼수동 분사)는 축복을 받는 것의 반대 의미이다. 땅은 더 이상 기꺼이 풍성한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지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상태가 아니다!

“아담”(아담, BDB 9)이란 단어와 “땅”(아담, BDB 9)이란 단어에 언어유희가 있다. 이 두 단어의 어근이 같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가져 온 결과와 자연에 미친 영향을 롬 8:18-23 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자연의 상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서 쫓겨나 사냥꾼/농사꾼이 되어 필사적인 세상의 현실에 처하였다.

▣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타락 이전에는 통치의 표시로서 동산을 지키는 임무가 아담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그의 임무는 지겹고 반복적이며 의무 때문에 하는 끝없는 일(즉, “수고” BDB 781)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땅은 빈약한 소산을 산출한다(참조, 18 절).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떡다”(BDB 37, KB 46)라는 동사가 사용된 횟수를 주목하라(참조, 2:16, 17; 3:1, 2, 3, 6, 11, 12, 13, 14, 17[2 회], 18, 19, 22)! 이것은 풍성함과 저주받음에 모두 관계된다.

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 . .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것은 아담의 타락, 영적 죽음(3 장), 육적 죽음(5 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들이 불순종의 모든 결과로써 죽음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 “흙이니” (참조, 창 2:7).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20-21

²⁰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²¹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3: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는 이제 그가 여자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서 상징된다. 어원학적으로 “하와”(하와)와 “산자”(하야)는 매우 비슷하고 이것은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언어유희였을 것이다. 아담, 하와, 가인-노아의 이름과 관련된 언어유희는 이 초기 기록의 문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여자가 생명 대신 죽음을 가져왔을 때에 그녀를 “삶”이라는 의미인 “하와”라고 부른 것은 역설적이다.

3:21 에덴 동산 밖에서 기후 혹은 다른 과격한 변화가 인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옷이 필요없었을 것이다.

심판과 그 결과가 사실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 정하신 최초의 죽음도 그러하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는가?

- 가. 동산 밖의 거친 삶에 대한 준비로서
- 나. 벌거벗은 것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 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을 사용하는 것의 적법성을 보여주려고
- 라. 인간의 준비(나뭇잎)와 하나님의 준비(가죽 옷)의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
- 마. 그들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생각나게 하려고(참조, 창 5 장)
- 바. 전가된 의의 새로운 옷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옷의 은유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참조, 롬 13:14; 갈 3:27; 엡 4:24; 골 3:8, 10, 12, 14; 약 1:21; 벧전 2:1)
- 사.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과 공급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개역개정 3:22-24

²²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²³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²⁴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3:22 “보라 이 사람이 . . .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창세기에 있는 이 복수형(우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참조, 1:26; 3:22; 11:7). 22 절이 단수형으로 시작하여 복수형으로 발전된다. 만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장엄한 복수형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의 문법형태가 아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천사의 모임(참조, 왕상 22:19) (2) 시 110:1 에 있는 하나님의 두 위격 또는 심지어 (3) 하나님의 천사로서 알려진 하나님의 의인화; 이러한 여러 예 가운데 하나로서 출 3:2, 4 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라.

■ “생명 나무” 고대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창조 기록에서 생명나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인간은 생명나무에의 접근이 금지된다. 이것은 신들의 질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영생”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올람(영원히)

올람(BDB 761, KB 798)은 매우 자주 사용되는(400 번 이상 사용됨) 용어이다. 이것은 말하려고 하는 어떤 것의 본질과 관계되어 그것이 여러 면에서 시간의 지속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 가. 과거의 것(몇 가지 예만 들었음)
1.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창 6:4
 2. “산들과 언덕들,” 창 49:26
 3. “역대의 연대,” 신 32:7
 4. “조상,” 수 24:2
 5. “옛날,” 사 51:9
- 나. 평생동안 계속되는 것(몇 가지 예만 들었음)
1.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즉, 모세) 출 19:9
 2. “영구히 (네) 중,” 신 15:17; 삼상 27:12
 3. “네 평생에,” 신 23:6
 4. 사무엘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삼상 1:22
 5.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상 1:21; 느 2:3; 시 21:4
 6.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시 115:18; 145:1-2
 7. “영원히 노래하며,” 시 89:1; 115:18; 145:1-2
 8.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은유),” 램 20:17
 9. 잠 10:25 도 가능한 예임
- 다. 계속 있는 것(그러나 분명한 한계를 갖고)
1. 인간의 영생, 창 3:22
 2. 지구, 시 78:69; 104:5; 148:6; 전 1:4(참조, 벧후 3:10)
 3. 아론 가족의 제사장직분, 출 29:9; 40:15(참조, 삼상 2:30)
 4. 안식일, 출 31:16-17
 5. 절기의 날들, 출 12:14, 17, 24; 레 16:29, 31, 24; 23:14, 21, 41
 6. 할례, 창 17:13(참조, 롬 2:28-29)
 7. 약속의 땅, 창 13:15; 17:18; 48:4; 출 32:13(참조, 유배)
 8. 황폐된 성읍들, 사 25:2; 32:14; 34:10
- 라. 조건적 언약
1. 아브라함, 창 17:7, 8, 13, 19
 2. 이스라엘, 신 5:29; 12:28
 3. 다윗, 삼하 7:13, 16, 25, 29; 시 89:2, 4
 4. 이스라엘, 사 2:1(참조, 갈 3 장)
- 마. 무조건적 언약
1. 노아, 창 9:12, 16
 2. 새 언약, 사 55:3; 램 32:40; 50:5(즉, 램 31:31-34; 겔 36:22-30)
- 바. 하나님 자신
1. 그의 존재, 창 21:33; 신 32:40; 시 90:2; 93:2; 사 40:28; 단 12:7
 2. 그의 이름, 출 3:15; 시 135:13
 3. 그의 통치, 출 15:18; 시 45:6; 66:7; 램 10:10; 미 4:7
 4. 그의 말씀, 시 119:89, 160; 사 40:8; 59:21
 5. 그의 자비, 시 25:6; 89:2; 103:17; 118:1-4, 29; 램 33:1

사. 그의 메시아

1. 그의 이름, 시 72:17, 19
2. 영원한 복, 시 45:2, 17; 89:52
3. 통치, 시 89:36, 37; 사 9:7
4. 제사장, 시 110:4
5. 선재하심, 미 5:2

아. 새 시대의 삶

1. 영생, 단 12:2
2. 영원한 부끄러움, 단 12:2
3. 다시는 울지 않음, 사 65:19(계 21:4)
4. 태양이 없음, 사 60:19-20(계 21:23)

NIV 역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주목하라

1. 영원히
2. 옛날, 옛날의
3. 영구히
4. 영원한
5. 영속적인
6. 항상
7. 평생동안
8. 계속되는
9. 정기적인
10. 불변의
11. 언제든지
12. 고대, 고대의 시간
13. 끝이 없는
14. 앞으로 영원히
15. 끝까지
16. 오랫동안
17. 오래전에

3: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강한 동사형태(BDB 1081, KB 1511, *피엘미완료형*)로 되어있다. 신 21:14에서 이것은 이혼을 의미하고 왕상 9:7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3:24 “그들” 이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던 날개를 가진 천사적 존재(BDB 500)들이다. 이들은 후에 성막/성전에 사용된 양식에서 나타난다. 그 동산을 지켰다는 사실은 이 곳이 특별한 장소이었고 보호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인간에게 접근이 제한된 곳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그룹

- 가. 천사적 존재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다. 이 특별한 종류의 천사는 성소를 지켰다(참조, 출 25:18-22; 왕상 8:6-7).
- 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1. 아카디아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또는 “조정자”이다
 2.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전차” 와 “그룹이란 이름의 천사들”(참조, 겔 1 장, 10 장)의 단어유희일 것이다
 3.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빛나는 형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 다. 육체적 모습—이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설명과 고대 근동의 다양한 동물 모양을 가진 인간의 기록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다음과 연결시킨다:
1. 메소포타미아의 날개 달린 황소
 2.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을 한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날개 달린 독수리 사자
 3. 두로 왕 히람의 왕좌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
 4.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왕의 상아 궁전에서 발굴된 이와 비슷한 형상
- 라. 육체적 설명
1. 그룹의 모습은 사 6 장의 스랍과 연결된다.
 2. 다른 모습의 예들
 - ㄱ. 얼굴의 수
 - (1) 둘—겔 41:18
 - (2) 넷—겔 1:6, 10; 10:14, 16, 21, 22
 - (3) 하나—계 4:7
 - ㄴ. 날개의 수
 - (1) 둘—왕상 6:24
 - (2) 넷—겔 1:6, 11; 2:23; 10:7, 8-21
 - (3) 여섯(사 6:2 의 스랍과 같이)—계 4:8
 3. 다른 특징
 - ㄱ. 인간의 손—겔 1:8; 10:8, 21
 - ㄴ. 다리
 - (1) 무릎이 없이 곧음—겔 1:7
 - (2) 송아지 발—겔 1:7
 4.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참조, *유대 고대사*, VIII:3:3).
- 마. 성경에서 이들이 언급되는 곳과 목적
1.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 창 3:24(아마도 겔 28:14, 16 에서 사탄에 대해 은유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임)
 2. 성막을 지키는 자
 - ㄱ. 언약궤 위에; 출 25:18-20; 민 7:89; 삼상 4:4
 - ㄴ. 성막을 덮는 막 휘장에 그룹의 모양을 수놓음; 출 26:1, 31; 36:8, 35
 3. 솔로몬 성전을 지키는 자
 - ㄱ. 지성소 안에 둔 조각한 두 큰 그룹; 왕상 6:23-28; 8:6-7; 대하 3:10-14; 5:7-9
 - ㄴ. 내 외소 사방 벽에; 왕상 6:29, 35; 대하 3:7

- 4. 에스겔의 성전을 지키는 자
 - ㄱ. 벽과 문에 새겨짐; 겔 41:18-20, 25
 - 5.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연결됨
 - ㄱ. 아마도 바람에 대한 은유: 삼하 22:11; 시 18:10; 104:3-4; 사 19:1
 - 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 시 80:1; 99:1; 사 37:16
 - ㄷ. 하나님의 움직이는 수레 보좌를 지키는 자; 겔 1:4-28; 10:3-22; 대상 28:18
- 6. 헤롯 성전
 - ㄱ. 벽에 그림(즉, 지키는 자, 참조, 탈무드 “요마” 54a)
- 7. 계시록의 보좌 장면(즉, 지키는 자, 참조, 계 4-5 장)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것은 알레고리인가 신화인가 아니면 역사적 이야기인가?
2. 그 뱀은 실제의 뱀인가 또한 그 뱀이 말을 했는가?
3. 그 뱀은 악한 자에 의해 움직여졌고 그 영의 지배를 받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랬는가?
4.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할 것을 아셨는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왜 그대로 두셨는가?
5. 뱀이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한 특정적인 비난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당신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라.
6.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가질 수 있으신가?
7. 3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하여 설명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죄의식을 설명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구약에서 왜 이것을 좀 더 완벽하게 논하지 않는가?
8. 그 뱀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것인가(참조, 욥 1-2 장과 스 3 장)?
9.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 그저 사용된 동물을 왜 심판하셨는가?
10. 15 절은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는가 아니면 여자와 뱀 사이의 두려움을 단순히 표현한 것인가?
11.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는 16 절을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이기를 부인한다. 당신이 이 절을 보편적 원리로서 유효하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혹은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12. 20 절은 아담 편의 회개와 믿음에 따른 행동인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확인인가?
13. 22 절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복수형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예시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왜 그런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

창세기 4:1-26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가인과 아벨 4:1-8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다 4:1-8	가인, 아벨, 셋 4:1-7 4:8-16	가인과 아벨 4:1-7 4:8	가인과 아벨 4:1-8
4:9-15	4:9-15		4:9a 4:9b 4:10-12 4:13-14 4:15-16	4:9-16
4:16	가인의 가계 4:16-18		가인의 후손	
4:17-22	4:19-24	4:17-22	4:17-22	4:17-22
4:23-24		4:23-24	4:23-24	4:23-24
(23-24)	(23-24) 새로운 아들	(23-24)	(23-24) 셋과 에녹	(23-24) 셋과 그의 후손
4:25-26	4:25-26	4:25-26	4:25-26	4:25-2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서론

- 가. 4:1-24 이 반역하는 가인 자손의 확장 과정을 설명하는 반면 4:25-5:32 은 경건한 셋 자손의 확장 과정을 설명한다고 많은 주석가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이 4-5 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러한 발전은 6:5-6, 11-12, 13 에 나타나듯이 모든 인간의 악으로 완전히 붕괴된다.
- 나. 많은 사람들은 4 장이 서양의 세부적인 계보가 아니라 동양의 히브리 계보가 가진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가장 중요하거나 돋보이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당신이 창 5 장의 년수를 더해보면 그것은 겹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오직 약 2,000 년 정도의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완전한 계보가 아닌 대표적 표본이거나 상징적인 수(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와 같은)라고 믿는다.
- 다. 5 장은 죽음의 장으로 설명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은 에녹의 기록인 21-24 절은 인간의 구속에 대한 커다란 소망을 약속한다. 왕하 2:3, 5, 9, 10 에서 같은 용어가 엘리야에게 사용된다.
- 라. 창 3:8-11:9 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다.
- 마. 가인의 후손은 셋의 후손처럼 기록되지 않는다(즉, 아이를 낳은 나이나 죽은 나이가 주어지지 않음). 가인의 후손은 홍수로 완전히 죽는다. 아마도 그가 결혼한 사람 때문일 것이다. 두 발 동물로서 연장을 만들 수 있던 큰 두개골을 가진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지 않았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1-8

¹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²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³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⁴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⁵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⁶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⁷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⁸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문자적으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이다. 히브리어로 “알았다”는 용어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말한다(BDB 393, KB 390, **칼 완료형**, 참조, 렘 1:5).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말하여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들이 몇명의 자녀를 가졌는지 그리고 언제 그들을 낳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이름을 말해주는 세 명에 대해서만 안다. 신약의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 뿐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대하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믿어야 할 진리 (2) 영접하여야 할 존재 (3) 합당한 생명의 삶!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알다(대부분의 예를 신명기에서 들음)

히브리어 단어 “알다”(BDB 393)는 칼동사형에서 여러 의미를 가진다(의미론적인 분야).

1. 선과 악을 이해하는 것 - 창 3:22; 신 1:39; 사 7:14-15; 수 4:11
2. 이해를 통해 아는 것 - 신 9:2, 3, 6; 18:21
3. 경험을 통해 아는 것 - 신 3:19; 4:35; 8:2, 3, 5; 11:2; 20:20; 31:13; 수 23:14
4. 숙고하는 것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아는 것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28:35, 36; 33:9
 - ㄴ. 신(god) - 신 11:28; 18:2, 6, 13; 28:64; 29:26; 32:17
 - ㄷ. 성(sexual) - 창 4:1, 17, 25; 24:16; 38:26
6.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 - 사 29:11, 12; 암 5:16
7. 지혜롭게 되는 것 - 신 29:4; 잠 1:2; 4:1; 사 29:24
8. 하나님의 지식
 - ㄱ. 모세의 - 신 34:10
 - ㄴ. 이스라엘의 - 신 31:21, 27, 29

▣ “가인” “가인”(카인, BDB 884 III, KB 1097; BDB 888-89) 이란 이름은 “얻어진”(카니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소리유희이다. 이것은 가인이 야웨의 도우심으로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3:15의 성취도 가능할 수 있는).

▣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남자 아이”라는 번역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하와가 딸을 먼저 얻었고 이 아이가 아들로서는 첫 아이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1절의 “여호와로 말미암아”(BDB 86)라는 표현은 창 3:15을 기초로 한 하와의 믿음을 나타내는 진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여호와)가 처음 사용된다. 이 이름이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경우는 4:26에 있는 예배로서 셋의 계보와 관련이 있다.

4: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랍비들은 2절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고”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

▣ “아벨” 이 히브리어 용어는 “호흡,” “증기,” “공허”(BDB 211 II, 참조, 전 1:2)라는 의미이다. 이 이름에 세 가지 가능한 의미가 있다: (1) 이것은 (ㄱ) 자신의 타락한 상황에 의한 하와의 낙담이나 (ㄴ) 아벨의 짧은 인생에 대한 예언일 수 있다 (2) 아카디아어의 “아들”(아벨)이라는 단어와의 연관성 (3)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약함”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다고 보아 많은 자녀(참조, 창 3:16)에 대한 저주 때문에 하와가 낙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3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여호와께 제물을 먼저 드린 것 (BDB 97, KB 112, *히필미완료형*)을 주목하라. 곡식으로 드린 제물이 동물의 제물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요성은 드리는 자의 믿음에 있는 것이지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문으로 제물을 가져왔을 것이다.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드렸더니” 열쇠는 “첫 새끼”(BDB 114)라는 용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인은 그의 농산물 중 얼마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과 존경의 표시로서 그의 가축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그러나 이 본문 자체는 매우 분명치 않고 간단함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초기 기록을 읽을 때 본문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만 한다.

■	
NASB	“그리고 그것들의 살찐 부분”
NKJV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
NRSV	“그것들의 기름이 있는 부분”
TEV	“그것들의 가장 좋은 부분”
NJB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 약간”
SEPT	“심지어 그것들의 가장 기름진 것 일부”
JPSOA	“고르고 고른”
NET	“심지어 그것들의 가장 기름진 것”

분명히 여기와 후의 유대주의에서 장기와 그 주위에 있는 지방은 제단 위에 드러졌던 부분이었다:

(1) 그것들은 감정의 중심으로 보여졌다 (2) 지방은 번영과 건강의 상징이었다.

SEPT, JPSOA, NET 성경은 이 표현을 제단에 드러진 장기의 지방이 아니라 가축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 해석이 문맥상 더 적합하다.

■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문맥적으로 이것은 긍정적 의미의 “관찰하다”이다 (BDB 1043, KB 1609, *칼미완료형*, 참조, TEV 와 NJB).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찰하셨는가에 대하여 많은 추측이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한편의 사람에게는 기쁨을 나타내시고 다른 편의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나타내신 것이 분명하다. 고대나 현재의 주식가들 모두 하나님께서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것이 항상 바른 순서이다(참조, 히 11:4). 가인의 문제는 그의 태도였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자가 아닌 나이 어린 자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위엄을 보이시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 보여진다.

4:5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기서 가인의 감정(BDB 354, KB 351, *칼미완료형*에 더하여 *부사형* “몹시,” BDB 547)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들이 매우 격렬하다.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났지만 그 화를 그의 형제에게 푸는 것을 주목하라. 이 문맥에서 보면 그는 예배 중 화를 내고 있다. 아마도 가인은 자기가 먼저 제물을 가져왔으나 자신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것이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다.

■ “안색이 변하니” 5-6 절의 “떨어졌다”(BDB 656, KB 709)와 7 절의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사이에 단어유희가 나타난다. “들었다”라는 용어는 “받아들였다”(BDB 669, KB 724, *칼부정사 연계형*, 참조, NKJV, NRSV, TEV)라는 의미일 수 있다.

4:6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정보를 알기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느낌과 동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질문을 하신다(참조, 9 절; 3:9, 11, 13).

4:7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이 절에서 잡아먹을 것을 찾는 사나운 동물(참조, 뱀전 5:8)처럼 죄를 의인화한다. 악마(BDB 918, KB 1181, *칼분사*)에게 사용되었던 “웅크리고 있는”이라는 단어는 아카디아어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죄의 정확한 본질을 나타낸다.

■ “죄가 너를 원하니” 여기에서 사용된 “원하다” (BDB 1003, KB 1802)와 같은 단어가 창 3:16 절에서 사용된다. 악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즉, “조종하다” 그리고 “지배하다”).

■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단어(BDB 605, KB 647)는 *칼미완료형*이다. 이것은 우리가 악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악을 대적하고(참조, 엡 6:13; 약 4:7; 뱀전 5:9)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인은 아담의 죄(참조, 겔 18:2-4)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4: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구절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6-7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 70 인역, 시리아역, 불가타역, RSV 역 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그를 들로 유인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즉, 계획적인 살인).

▣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3 장은 초자연적 유혹을 강조했다; 4 장은 아담의 타락한 본질이 인간 안에서 발전한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유혹하는 자는 없다. 단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과 결실하고 또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까지 미치는 죄의 확장이 있을 뿐이다(참조, 롬 8:9-18, 23; 요일 3:12). “들어 올렸다”(BDB 877, KB 1086, **칼미완료형**)라는 동사와 “죽였다”(BDB 246, KB 255, **칼미완료형**)라는 동사는 점진적인 폭력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4:9-15

⁹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¹⁰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¹¹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¹²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¹³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¹⁴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¹⁵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4:9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의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지키는 자”라는 용어는 아벨의 직업(참조, 2 절)을 흉내내는 “목자”(BDB 1036, KB 1581, **칼능동 분사**)를 의미할 수 있다.

4:10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호소하는” BDB 858, KB 1042, **칼능동 분사**).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힘은 피에 있다(참조, 레 17:11; 계 6:9, 10). “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이다. 라쉬는 피의 **복수형**이 아벨과 그의 잠재적 후손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복수형**은 또한 강조를 나타낸다.

4:11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것은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한 저주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농사를 짓고 있던 가인이 더 이상 그것을 직업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악마들의 거주지이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으로 그가 쫓겨난다.

4:12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히필지시형**(BDB 414, KB 418)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가인의 가계가 전원생활을 버리고 도시생활로 발전된 이유라고 주장한다(참조, 16-24 절).

▣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의 비슷한 소리(히브리어로)의 두 동사(BDB 631, KB 681 과 BDB 626, KB 678, 참조, 14 절)는 가인의 방랑생활을 묘사한다. 이것들은 **눅 땅**(BDB 627 II)에 대한 단어유희이다. 이 단어유희는 창세기의 앞에 있는 장들이 문학적 형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4:13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슬퍼한다.

4:14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것은 가인의 직업에 미친 죄의 결과인 반면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라는 그 다음의 구절은 가인의 죄로 인한 영적 결과(참조, 3:8)이다.

▣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가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랍비들은 그가 동물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맥상 이것은 아벨을 위해 그를 죽이려는 “고엘”(피의 보복자)인 자신의 친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름이 말해지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른 선사시대의 유인원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논의가 키드너의 *틴텔 창세기주석*과 인류학에 대한 토론인 버나드 램의 *과학과 성경에 대한 크리스천의 관점*에 있다. 이 절은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여러 피조물을 의미한다. 유인원과 고대 근동에서 그들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R. K. 해리슨의 *구약개론*, 147-163 쪽과 파잘레 라나와 휴즈 로스의 *아담은 누구였는가?*를 보라.

만일 가인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현생 인류가 아닌 생물과 결혼했다면 창 6:1-4 은 인간과 천사의 결혼 대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간 피조물과 두 발 동물이 섞인 것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4:15 “별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칠 배”라는 용어는 완전하게 원수갚는 것(BDB 988)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의 더욱 무서운 표로서 가인을 살도록 남겨두셨다. 랍비들은 일곱 세대째가 되는 라멕의 때 까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23 절은 라멕과 사고로 가인을 죽인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을 가리킨다는 랍비적 전설이 있다.

▣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것은 (1) 심판 중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비나 (2)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되는 것에 대한 표시(BDB 16, “표”)였을 것이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머리에 동물의 뿔을 붙이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마에 한 표(참조, 겔 9:4-6)였다는 것이 좀 더 가능성있게 보인다.

개역개정 4:16

¹⁶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낫 땅에 거주하더니

4: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것은 영적 결과(“떠나서” BDB 422, KB 425, *칼미완료형*)를 가리키는 육체적 행동으로 보인다. 16-24 절은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 조직을 시작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 야웨를 거부하는 세상조직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왕국들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큰 음녀 바벨론으로, 또한 요한이 사용한 “세상”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 “낫 땅” “낫”은 “방랑하는” 또는 “방랑의 땅” (BDB 627 II)이라는 히브리어 용어이다. 이것은 분명히 가인의 이름에 대한 유희이다. 우리는 이 장소의 위치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의 동쪽보다 더 동쪽에 있었다.

개역개정 4:17-22

¹⁷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¹⁸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¹⁹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썰라였더라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²¹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²²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4:17 “아내와 동침하매”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대부분의 보수적 신학자들은 그가 그의 여자 형제 중 한 명과 결혼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이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창 5:4 은 아담과 하와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기록한다. 어떤 사람은 4:14 에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동산 밖의 사람이 이들이 아닐까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4:14 의 설명을 보라).

▣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이름과 관련된 모든 어원은 매우 의심스럽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시작자” 또는 “창시자”(BDB 335)를 의미할 것이다. 가인의 후손의 목록과 5 장에 있는 셋의 후손의 목록 사이에는 명백한 유사성이 있다(예, 에녹과 라멕). 이런 어원론적 유사성의 정확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것은 (1) 두 가족이 깊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었든지 아니면 (2) 두 계보에 각각 나오는 에녹이 영적 차이점을 가진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인 가계의 수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셋 가계의 긴 수명이 명성이나 칭송의 상징임을 뜻할 것이다(홍수 전과 홍수 후에 오래 살았던 열 명의 수메르 왕의 목록과 같다. 홍수 후에 수명이 짧아지지만 오늘날의 기준에 비하면 그래도 매우 길다).

▣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을 방랑자로 지내도록 하신(참조, 12, 14 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두려움의 실례로서 이것을 본다; 이 경우에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다(바벨탑의 목적과 비슷함).

4: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 용어의 가능한 어원은: (1) 성의 장식 (2) 도시 사람 또는 (3) 발이 빠른(BDB 747)이다.

▣ **“므후야엘”** 이 용어의 가능한 어원은 (1)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이시다” (2)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을 주는 자이시다” (3) 하나님께 매맞은” 또는 (4) “하나님께서 지으신”(BDB 562)이다.

▣ **“므드사엘”** 이 용어의 가능한 어원은 (1) “하나님의 사람” (2) “건강한 젊은이” 또는 (3) “왕”(BDB 607)이다.

4: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것은 일부다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인데, 가인의 타락한 가계에서 시작한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불확실하다(BDB 541).

▣ **“아다... 썰라”**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육체적 아름다움과 관련된 용어의 언어유희이다. 랍비들은 한 명은 자녀들을 낳기 위한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쾌락을 위한 첩이었다고 말한다. “아다”라는 이름은 “장식” 또는 “아침”(BDB 725)을 의미할 수 있는 반면 “썰라”라는 이름은 “그늘,” “은신처,” “딸랑딸랑 울리는,” “악기 연주자”(BDB 853)를 의미할 것이다.

4:20 “야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용어는 “방랑자” (BDB 385 II) 로서, 그가 명백히 발전시킨 유목민적 삶을 가리킨다.

4:21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이 “소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음악적 기능에 대한 특정한 재능의 시작을 보인다. 겔 18:13 에서 음악이 악한 자와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재능과 같이 이것도 악용될 수 있다. 이 종족은 현악기 뿐 아니라 관악기도 발전시켰다.

4:22 “두발가인 . . .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사람(BDB 1063)은 처음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 21-22 절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세 사람이 각기 그들의 직업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 “나아마” 이 이름의 의미는 “유쾌한” 또는 “아름다운”(BDB 653 I)이다. 랍비들은 그녀가 노아와 결혼했다고 말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역개정 4:23-24

²³라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쉘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벡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²⁴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칠 배일진대 라벡을 위하여는 별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4:23 “라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시로된 기록들 중 하나이다(구약의 40%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22 절과 연결된다. 랍비적 전승은 그가 사고로 가인을 죽였고 또한 사냥하다가 그의 아들도 죽였기 때문에 그의 두 아내는 그를 떠났다고 말한다. 이것은 극단적인 공상처럼 보인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라벡이 도에 지나친 복수를 자랑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죄가 커졌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두발가인이 만든 첫 번째 전쟁무기를 치켜들고 그것을 장단에 맞추어 자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의 시간적 요소(과거, 미래)에 대하여 주석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다. 그것들이 일어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발생했던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대부분은 생각한다.

4:24 “칠십칠 배” 이것은 라벡의 복수가 극심함을 보여준다(참조, 4:15). 어떤 주석가들은 라벡의 말과 마 18:21, 22 에 기록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개역개정 4:25-26

²⁵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²⁶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25-26 이것은 문맥상 5 장과 연관지어 보아야 한다.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원문이나 헬라어로 쓰인 신약 원문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

4:25 이것은 히브리어 용어 “지정하는”(שָׁלַח, BDB 1011, KB 1483, *칼 완료형*)과 셋(שֵׁט, BDB 1011 I)과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창 1-11 장에서 이름과 관련된 문학적(소리)유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이 부분의 문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4:26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것은 “사람”(BDB 60)을 일컫는 히브리어 용어 중 하나로 아담(참조, 욥 25:6; 시 8:4; 96:3; 144:3; 사 51:12; 56:2)과 동의어이다.

▣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웨의 언약적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정규적인 공공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절과 출 6:3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마도 사람들은 모세의 시대가 이르기까지 야웨라는 이름의 충분한 중요성을 모른 채 그 이름을 사용한 것 같다. 이것은 메시아 계보의 시작을 이룬다(참조, 눅 3:38)

창세기 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아담의 후손	아담의 가계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세대들	아담의 후손	홍수 이전의 족장들
5:1-2	5:1-5	5:1-2	5:1-5	5:1-2
5:3-5		5:3-5		5:3-9
5:6-8	5:6-8	5:6-8	5:6-8	5:6-8
5:9-11	5:9-11	5:9-11	5:9-11	5:9-11
5:12-14	5:12-14	5:12-14	5:12-14	5:12-14
5:15-17	5:15-17	5:15-17	5:15-17	5:15-17
5:18-20	5:18-20	5:18-20	5:18-20	5:18-20
5:21-24	5:21-24	5:21-24	5:21-24	5:21-24
5:25-27	5:25-27	5:25-27	5:25-27	5:25-27
5:28-31	5:28-31	5:28-31	5:28-31	5:28-31
5:32	5:32	5:32	5:32	5: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1-2

¹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²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5:1 “계보를 적은” 이 단어(BDB 410)는 창세기에서 10 번 반복된다(참조, 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37:2). 이것은 글로 쓰여진 자료를 의미한다(아마도 점토판이나 양피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설형문자판에서 사용한 어떤 용어나 구는 여러 점토판을 하나의 문학(즉, 책끝의 장식)적 단위로 서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나는 모세가 (1) 구전과 (2) 족장들이 쓴 자료들 (3) 모세 오경의 기록을 위한 직접계시를 사용했다고 믿는다.

이 본문은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이것은 항상 문맥을 마무리짓는다. 이것은 글을 끝 마치는 표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것은 분리된 또 다른 돌판을 시작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 1-2 장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절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사용한 것에 비해 여기에서는 아담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에 주목하라. 1:26-27 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의 일반적인 사용은 남녀의 동등성에 대한 또 다른 확인이다.

▣ **“날에”** 여기에서 “날”의 사용은 24 시간의 단위로서가 아닌 세대나 시대를 말한다. 이와 같은 용법을 창 2:4; 시 90:4 에서도 볼 수 있다. 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5:3-5

³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⁴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⁵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5:3 “아담은 . . .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두 가지의 해석이 이 구절에 가능하다: (1) 지구상의 다른 동물과 같이 아담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자식을 낳았다(참조, 1:11) 또는 (2) 심지어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참조, 1:26-27)이 아직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5: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 직후(즉,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의 인간수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것은 비유적이다 (2) 그들은 년수를 다르게 세었다 (3) 오늘날처럼 죄가 지구에 널리 퍼지지 않았다 (4) 수메르의 열 왕의 목록과 같이 먼저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큰 수를 사용했다. 성경의 계보와 아주 비슷하게 수메르 왕의 기록에서도 홍수 후의 왕들 보다 홍수 이전의 왕들이 매우 오래 살았다.

개역개정 5:6-8

⁶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⁷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⁸그는 구백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은 앞에 있는 4:26 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5:9-11

⁹에노스는 구십 세에 계난을 낳았고 ¹⁰계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¹¹그는 구백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5:10 “계난”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소유자” (2) 어린이 (3) “지어진 것” (4) “젊은 남자” (5) “창을 사용하는 군인”(BDB 884).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단순한 이유는 이것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여러 경우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역개정 5:12-14

¹²계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¹³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¹⁴그는 구백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같이 반복되는 표현 양식은 당시에 이미 확립된 문학적 방법에 따른 진술인 것이 분명하다.

개역개정 5:15-17

¹⁵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렛을 낳았고 ¹⁶야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¹⁷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5:15 “마할랄렐”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함”(BDB 239)이라는 의미이다.

▣ **“야렛”** 이것은 “후손”(BDB 434)이라는 의미이다.

개역개정 5:18-20

¹⁸야렛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¹⁹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²⁰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5:18 “에녹” 이 이름은 (1) “시작자” (2) “헌신적인” (3) “창시자”(BDB 335)라는 의미이다. 가인의 계보(즉, 4 장)와 셋의 계보(5 장) 사이에 있는 비슷한 이름들에 대하여 4:17b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5:21-24

²¹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²²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²³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²⁴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5:21 “므두셀라” 이것은 (1) “창의 사람”이나 (2) “무기의 사람”(BDB 607)을 의미한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오래 살았다고 기록되었지만 그 이유나 강조점을 덧붙이지는 않는다. 랍비들은 므두셀라가 죽은 날 홍수가 났다고 말한다.

5:22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히브리어 동사(BDB 229, KB 246)는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히트파엘* 형이다. 고대 히브리어의 많은 이름에 대하여 그렇듯이 우리는 에녹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간단하게 말 할 수는 없다(BDB 335). 히 11:5 은 에녹이 믿음으로 동행하였음을 말한다. 이 표현으로 묘사된 사람은 오직 6:9의 노아 뿐이다.

5:24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같은 단어들(BDB 542, KB 534, *칼 완료형*)이 왕하 2:3, 5, 9, 10에서 엘리야에게 사용된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는 친밀한 개인적 교제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 “죽었더라”는 문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것은 (1) 하나님의 사랑을 인한 소망과 (2)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는 신선한 예이다.

개역개정 5:25-27

²⁵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²⁶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²⁷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5:26 “라멕” 이 이름은 (1) “강한” (2) “젊음” (3) “용사” (4) “정복자”(BDB 541)를 의미할 것이다. KB는 이 이름에 대해 “매우 힘센 사람”이라는 아라비아 어근을 언급한다. 또한 이 이름은 가인의 계보(참조, 4:18 이하)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은 (1) 이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2) 두 가계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역개정 5:28-31

²⁸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²⁹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³⁰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³¹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5:28 두 라멕이 얼마나 다른가! 한 편의 사람은 격렬한 복수를 하는 자만심이 강한 자(가인의 족보)이고; 다른 한 편의 사람(셋의 족보)은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자이다!

5:29 “노아... 안위하리라” 이것은 “휴식하다”(BDB 629)라는 용어의 언어학적 또는 어원적인 의미가 아닌 대중적인 의미이다. 이것은 창 3:17의 저주가 노아를 통해 의미있게 반전될 것이라는 라멕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라멕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였다.

개역개정 5:32

³²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32 “셈” 이 용어는 “명성” 또는 “이름”(BDB 1028)을 의미할 것이다.

▣ **“함”** 이 용어는 “뜨겁게 되는” 또는 “어둡게 되는”(BDB 325)을 의미할 것이다.

▣ **“야벳”** 이 용어는 “아름다움” 또는 “펼치는”(BDB 325)을 의미할 것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창 4장과 5장은 신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성경에서 가인의 계보가 발전되었다가 완전히 끊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3. 가인 족속과 셋 족속의 이름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에녹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창세기 6:1-22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인간의 부패	인간의 악함과 심판	네페림의 출생	인간의 악함	하나님의 아들과 여자들
6:1-4	6:1-4	6:1-4	6:1-4	6:1-4
		대홍수 (6:5-8:22)		인간성의 부패
6:5-8	6:5-8	6:5-8	6:5-8	6:5-8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노아	
6:9-10	6:9-10	6:9-10	6:9-12	6:9-12
				6:9b-12
6:11-12	6:11-13	6:11-22		홍수를 위한 준비 (6:13-7:16)
6:13-22	방주가 준비되다 6:14-21 6:22		6:13-22	6:13-16 6:17-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6:1-4

¹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²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³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⁴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6:1 “사람” 이것은 이 단어(참조, 5:2)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만일 2 절에서 이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그럴 가능성이 있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이론이 강화된다.

▣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표현은 그들이 딸들(참조, 5:4)을 처음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종(BDB 408, KB 411, **칼수동 완료형**)의 확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진술이다.

6:2 “하나님의 아들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창세기 6 장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 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절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세 가지 주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이것은 경건한 셋의 계보를 의미한다(참조, 창 5 장, 4:14의 설명을 보라)
 2. 이것은 천사적 존재의 무리를 의미한다
 3. 이것은 가인의 계보에 속한 왕들 또는 전제 군주를 의미한다(참조, 창 4 장)
- 나. 이 구절이 셋의 계보를 의미하는 증거
1. 창 4 장과 5 장에 곧 이어지는 문학적 문맥은 가인의 반역적 계보와 태함을 입은 셋의 계보의 전개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문맥상의 증거는 이것이 경건한 셋의 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운다.
 2. 랍비들은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 중 일부는 이 구절이 셋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대부분은 천사들이라고 주장한다).
 3.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이 비록 천사적 존재에 대해 대부분 사용되었지만 드물게 인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 ㄱ. 신 14:1 -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자녀”
 - ㄴ. 신 32:5 - “하나님의 자녀”
 - ㄷ. 출 22:8-9; 21:6(아마도 레위 재판관)
 - ㄹ. 시 73:15 - “주의 아들들”
 - ㅁ. 호 1:10 -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 다. 이 구절이 천사적 존재를 의미하는 증거
1. 이 관점은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이해이다. 창세기의 좀 더 큰 문맥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랍비들은 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초자연적인 악에 대한 또 다른 예로써 이 관점을 지지할 것이다.

2. 구약에서 천사들을 말할 때 복수형(“하나님의 아들들”)이 압도적으로 사용된다
 - ㄱ. 욥 1:6
 - ㄴ. 욥 2:1
 - ㄷ. 욥 38:7
 - ㄹ. 시 29:1
 - ㅁ. 시 89:6, 7
 - ㅂ. 단 89:6
3. 신구약 중간시대의 책인 에녹 1서(참조, 에녹 1서 6:1-8:4; 12:4-6; 19:1-3; 21:1-10)와 쥬빌리(참조, 욥 5:1)는 사해사본에 포함된 *창세기 외경*과 더불어 신약시대의 믿는 자들 중에서 매우 대중적이었는데 이 책들은 이것을 반역한 천사들로 해석한다
4.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6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문맥에서 그들은 창조의 질서에 합당치 않은 관계에서 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70 인역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한다.
6. 에녹 1서는 심지어 노아의 홍수가 야웨께와 또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천사와 인간의 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7. 우가릿 문학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신전의 일원을 의미한다(즉, 영적으로 좀 더 낮은 존재)

라. 이 구절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왕들이나 전제군주를 의미하는 증거

1. 이 관점을 지지하는 여러 고대 번역이 있다.
 - ㄱ. 온켈로스의 탈군(주후 2 세기)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귀족의 아들들”로 번역한다.
 - ㄴ. 구약의 헬라이어 번역본 심마쿠스(주후 2 세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의 아들들로 번역한다.
 - ㄷ.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사용된다(참조, 출 21:6; 22:8; 시 82:1, 6), NIV 성경과 NET 성경을 보라
 - ㄹ. *네펠림*은 창 6:4에 있는 *김보림*과 연결된다. *김보림*은 용기와 힘과 부와 능력이 있는 용사를 의미하는 *김불*에서 왔다.
 - ㅁ. 이 번역과 이것의 증거는 성경의 어려운 말들(106-108 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마. 두 용법을 지지하는 자들의 역사적 증거

1. 이 구절은 셋 족속을 의미한다

ㄱ.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ㅁ. 칼빈
ㄴ. 데오도렛	ㅂ. 카일
ㄷ. 어거스틴	ㅅ. 글리슨 아처
ㄹ. 제롬	ㅇ. 왓츠
2. 이 구절은 천사적 존재를 의미한다

ㄱ. 70 인역 저자들	ㅅ. 터툴리안	ㅍ. 올포드
ㄴ. 필로	ㅇ. 오리겐	ㅎ. 웨스터만

- | | | |
|--------------------|----------|-----------|
| ㄷ. 요세푸스(고대사 1:3:1) | ㅈ. 루터 | ㄱ. 웬함 |
| ㄹ. 순교자 저스틴 | ㅊ. 에발트 | ㄴ. NET 성경 |
| ㅁ. 이레니우스 | ㅋ. 텔리취 | |
| ㅂ.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 ㅌ. 헝스텐버그 | |

바. 창 6:4의 “네피림”이 창 6:1-2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음의 이론들을 보라:

1.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의 연합으로 생긴 거인들(참조, 민 13:33)이다.
2. 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창 6:1-2 사건을 기록할 때나 또는 그 이후에 지구상에 있었던 존재들을 단순히 언급한 것이다.
3. R. K. 해리슨의 *구약개론* 557 쪽에는 “호모 사피엔스와 아담 이전의 인종(이 구절이 포함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학자들이 동의할 만한)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매우 귀중한 인류학상의 통찰력을 전적으로 놓친 것”이라는 신비한 내용이 있다.

그(R. K. 해리슨)는 이 두 그룹을 인간에 가까운 다른 그룹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다고 나는 이해한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또한 호모 에렉투스로의 진화론적 발전을 의미할 것이다.

사. 이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본문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밝히는 것이 분명히 공정하다.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의 이 본문은 간략하고 모호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처음 모세의 말을 들은 청중은 부가적인 역사적 통찰력을 가졌음이 틀림없거나 또는 모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족장 시대로부터 내려 온 구전이나 기록된 전통을 사용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아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이 간략히 언급하여 모호한 내용에 호기심을 갖는다. 이런 것에서나 단편적인 성경의 내용에 기초하여 잘 정리된 신학을 세우려는 것은 불행하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지식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그것을 주셨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천사들과 인간들이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1. 구약에서 완전히 배제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절이 천사들에게 계속 사용된다
2. 70 인역(알렉산드리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번역한다(주전 1세기 말)
3. 위경적 묵시록인 에녹 1서(아마도 주전 200년경에 쓰인)는 매우 특별하게 이것이 천사를 의미한다(참조, 6-7장)고 말한다.
4. 이것은 신학적으로 벵후 2장과 유다서에 나오는 죄를 짓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과 연결된다.

나는 이것이 마 22:30과 어느정도 대조된다고 보지만 이 특정한 천사들은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감옥(*탈타루스*)에 있다는 것을 안다.

5. 창 1-11장에 나오는 많은 사건이 다른 문화에서 발견(즉, 비슷한 창조 이야기, 비슷한 홍수 이야기, 천사가 여자를 취하는 비슷한 이야기)되는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있었고 그 시기 동안 그들이 야웨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이후에 이 지식들은 왜곡되었고 다신적인 틀에서 각색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에 대한 좋은 실례는 타이탄으로 불렸던 반 인간/반 초인간인 거인이 *탈타루스*에 감금된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타루스*라는 이름은 처소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를 잡아두는 장소로서 성경에서 오직 한번 사용(참조, 뱀후 2 장)되었다. 라비들의 신학에서 하데스는 의인을 위한 곳(천국)과 악인을 위한 곳(*탈타루스*)으로 나누어졌다.

▣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운”이란 용어는 문자적으로 “좋은” 또는 “매력적인”(BDB 373)이다. 이것은 1 장에서 부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되어왔다(특히 1:31).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던 것을 지금은 악으로 보신다(참조, 5-6 절).

▣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의 뒷 부분은 결혼하다(BDB 542, KB 534, *칼미완료형*)로서 이들이 천사였다는 관점을 부정할 수 있는 논점이 된다. 그러나 첫 부분은 그들이 그들이 좋아하는(BDB 103, KB 119, *칼미완료형*) 기혼녀 그리고/또는 미혼녀를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 천사의 존재 또는 (2) 가인 계보의 강력한 지도자(즉, 전제 군주)가 일부다처제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3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노력하다”라는 용어는 “남아있다”(BDB 192, KB 220, *칼미완료형*, 참조, NRSV 역 “머무르다”)로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참으심(즉,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홍수를 지연시키셨다, 참조, 뱀전 3:20)이나 (2)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신 것을 의미할 수 있다.

6:3 이 6:1-2 그리고 6:4 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맥을 통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비록 인간이 천사와 결혼했지만 그들도 결국 죽었을 것이다. 하와가 “보았고” 그 열매를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고” 취했다. 이것은 같은 방식의 반역(즉, 아마도 영생이나 독립을 취하려는)을 의미한다.

▣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것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과 대조되는 천사적 존재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어성경(TEV)은 이것을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지나지 않으므로”라고 번역한다.

▣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이것은 은혜의 시간(참조, 뱀후 2:5)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 후서는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의 기간동안 전파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홍수가 닥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홍수가 일어난 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을 지적한다.

6:4 “네페림” 이것은 “타락한 자”를 의미한다(히브리어의 *나팔*에서, BDB 658, KB 709). 그들이 거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참조, 민 13:33; 또한 신 2:10-11; 9:2; 그리고 70 인역, 불가타역, 페쉬타역). 그러나 마틴 루터와 H. C. 루폴드와 같은 해석가들은 이 용어가 “전제 군주”로서 가인계보의 힘있고 많은 첩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강조한다.

구약의 가르침, 28-30 쪽에서 J. 워쉬 왓츠는 “네페림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인과 셋의 가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했다”라고 말한다. 이 해석에 의하면 네페림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참조, “하나님” 5:22, 24; 6:9).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키 큰/강한 전사들이나 종족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

몸이 크고/키 크고/강한 이들 민족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1. 네피림(BDB 658) – 창 6:4; 민 13:33
2. 르파임(BDB 952 혹은 BDB 952 II) – 창 14:5; 신 2:11, 20; 3:11, 13; 수 12:4; 13:12; 삼하 21:16, 20, 22; 대상 20:4, 6, 8
3. 삼숨빔(BDB 273), 숨빔(BDB 265) – 창 14:5; 신 2:20
4. 에빔(BDB) – 창 14:5; 신 2:10-11
5. 아나킴(아낙의 자손, BDB 778 I) – 민 13:33; 신 1:28; 2:10-11, 21; 9:2; 수 11:21-22; 14:12, 15

▣ “당시에 땅에는” 천사가 인간인 여자와 동거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사이에서 거인들이 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 본문으로서 4 절의 후반부를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때에 이미 지구상에 거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4 절의 전반부를 사용한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묵시록인 에녹 1서는 천사와 인간이 혼인한 결과로 거인이 생겼고,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혼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녹 1서는 또한 홍수로 육체를 잃은 거인들은 귀신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간의 몸 안에 거주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NASB, NKJV “힘센 사람들”
 NRSV, NJB “영웅들”
 TEV “위대한 영웅들”

이것은 히브리어로 특별하게 권력이 주어진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의미하는 *깁볼*(BDB 150)이다. 이것은 (1) 창 10:8-9의 니므롯 (2) 시 52:1; 겔 32:27의 포악한 자 (3) 시 104:20(또한 사해사본의 감사 찬송 8:11 과 20:34에 나오는)의 천사들에게 사용되었다.



NASB, NKJV “명성이 있는 사람들”
 NJB, NIV “명성이 있는 용사들”
 NRSV, “명성이 있는 용사들”
 TEV “유명한 사람들”

첫 번째의 것이 70 인역과 또한 대부분의 현대 영어성경에 나오는 번역이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것은 “이름의 사람들”(BDB 1027)이다. 이것은 세 가지 이론으로 나뉜다:

- (1) 이들은 야웨를 예배했던(즉, 하나님의 이름, 참조, J. 워쉬 왓츠) 셋의 경건한 계보를 의미한다
- (2) 이들은 천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힘센 자손들로서 네피림을 의미한다(즉, 거인 참조, TEV 성경)
- (3) 이들은 전제 군주(참조, NRSV)였던 경건치 않은 가인의 계보에 있는 왕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다(즉, 왕실의 일부다처제, 참조, NJB)

이것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모호한 문단이다. 중요한 요점은 계속적으로 마지막을 향해 증가해 가는 피조물의 악함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악함은 심지어 노아와 그의 가족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개역개정 6:5-8

⁵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⁶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⁷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⁸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 . . 가득함 . . . 을 보시고” 성경의 이 부분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의 번성을 강조한다(BDB 906, KB 1157, *칼미완료형*, 참조, 창 6:11-12, 13b; 8:21; 시 14:3; 51:5). 이것은 창 1:31에 있는 창조의 선함과 완전히 대조된다.

▣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섯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아무 소망없이 악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

“악한 의도”(예셀르, BDB 428)의 개념은 인간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랍비들의 이해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그들은 인간을 두 가지 의도(선 또는 악) 중 하나를 행하는 존재로서 이해한다. “인간의 마음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당신이 먹이를 가장 많이 주는 개가 가장 커질 것이다”(의역함)라는 유명한 격언으로 인간을 묘사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4:7로 강화된다. 유대 신학자들은 세상에 있는 악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 창 3장을 강조하지 않고 창 6장을 강조한다. 어린이가 태어날 때 악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책임은 오직 지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바르 미즈바, 밧 미즈바*). 악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6:6 “(여호와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처음 부분은 “여호와께서 탄식을 토하시다”(BDB 636, KB 688, *니팔미완료형*)로 해석된다. 뒷 부분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BDB 780, KB 864, *히트파엘미완료형*)라고 해석된다. 이것들은 히브리어로 강력한 표현이다(참조, 34:7; 45:5; 삼상 2:33; 20:34; 삼하 19:2; 시 78:40; 사 54:6). 종종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참조, 창 6:6-7 출 32:14; 삼상 15:11; 삼하 24:16; 렘 18:7, 8; 26:13, 19; 요 3:10). 그러나 다른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시거나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주장한다(참조, 민 23:19; 삼상 15:29; 렘 4:28; 시 132:11).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와 같은 긴장이 항상 발생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오직 인간의 용어뿐이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오래참으시지만, 죄의 회개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이 특별한 경우(참조, 시 106:47; 요나서)에 종종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한다.

신학적으로 바꾸는 쪽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있는 인간과 일하실 것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목표는 한가지로서—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오직 새 마음,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겔 36:26-38)에 의하여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를 선택하신다!

6:7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 . . 쓸어버리되” “쓸어버리다”는 “완전히 없애다” (BDB 562, KB 567, *칼미완료형*, 즉, 홍수)라는 뜻이다. 인간의 죄로 동물이 고통을 받았다(참조, 롬 8:19-22). 물고기는 이 심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심판은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처럼 신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죄에 기인한 것이다. 이 죄가 의로운 노아(참조, 8:21-22)의 가족 안에도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간의 계속되는 죄를 덮어주시기로 선택하신다(참조, 갈 3장).

6:8 “여호와의 눈에” 이것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또 다른 신인동형론적 예이다. 하나님은 눈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그는 영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은유적 표현이다(즉, 전지).

개역개정 6:9-10

⁹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¹⁰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6:9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여기의 두 서술적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처음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이해의 기준을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주제: 의를 보라. 두 번째 단어(BDB 1070)는 노아가 여호와께 완전한 마음을 두었다는 뜻이다(예, 17:1; 시 18:23). 두 번째 단어는 나중에 흠없는 제물을 가리킨다. 9:21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단어는 노아의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로 설명된다(BDB 843). 메소포타미아 용어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끝은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기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끝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 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쳐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 언약의 개념이었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다음의 일을 하셨다

- 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 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 다. 의(윤리적 의)를 사람들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제공하심.
- 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참조, 1:26-27)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동산의 교제를 회복하심(관계적인 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 가. 회개
- 다. 믿음
- 다.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 라.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걸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이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덱*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저작에서 사용한 범주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의 *디카이오쉬네*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천주교는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점이 없었다. 이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바울이 말하는 역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신다는 점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둘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에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이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귀절들을 보라:

- 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제시된다)
 - 1. 로마서 3:26
 - 2. 데살로니가 후서 1:5-6
 - 3. 디모데 후서 4:8
 - 4. 요한계시록 16:5
- 나.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1.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2. 마태복음 27:19
 - 3. 요한일서 2:1, 29; 3:7
- 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1. 레위기 19:2
 - 2.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 라.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1. 로마서 3:21-31
 - 2. 로마서 4 장

3. 로마서 5:6-11
4. 갈라디아서 3:6-14
5. 하나님께서 주심
 - ㄱ. 로마서 3:24; 6:23
 - ㄴ. 고린도 전서 1:30
 - ㄷ. 에베소서 2:8-9
6. 믿음으로 받음
 - ㄱ. 로마서 1:17; 3:22, 26; 4:3, 5, 13; 9:30; 10:4, 6, 10
 - ㄴ. 고린도 전서 5:21
7.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ㄱ. 로마서 5:21-31
 - ㄴ. 고린도 후서 5:21
 - ㄷ. 빌립보서 2:6-11

마.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1. 마태복음 5:3-48; 7:24-27
2. 로마서 2:13; 5:1-5; 6:1-23
3. 고후 6:14
4. 디모데 전서 6:11
5. 디모데 후서 2:22; 3:16
6. 요한일서 3:7
7. 베드로 전서 2:24

바.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1. 사도행전 17:31
2.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 가. 하나님의 선언이고
- 나. 하나님의 선물이며
- 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건설하게 추구해야 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믿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이것은 IVP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 가.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 나.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 다.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튼튼하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더 강조하거나 어느 것을 빠뜨리면 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환영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은(BDB 229, KB 246, *히트파엘 완료형*) 5:21-22(*히트파엘 미완료형*)에서 에녹에게 사용된 표현과 매우 비슷하다.

개역개정 6:11-12

¹¹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¹²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6:11-12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동물이 지구에 가득차기를 원하셨지만 죄가 폭력과 악행(참조, 13 절; 시 14:1-3; 롬 3:10-18)과 더불어 지구에 가득차다(BDB 569, KB 583, *니팔미완료형*). 창 1:31 의 “심히 좋았더라”라는 특유의 설명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다!

개역개정 6:13-22

¹³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¹⁴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¹⁵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¹⁶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¹⁷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¹⁸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¹⁹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²⁰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²¹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²²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14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동사(BDB 793, KB 889)는 *칼명령*이다. 이것은 “*퀘*” 또는 “*상자*”(BDB 1061)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집트어에서 빌려온 단어이다. 이 용어를 다르게 사용한 오직 한 번의 경우는 아기 모세를 넣었던 광주리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이다(참조, 출 2:3, 4).

▣ “고페르 나무” 이 단어(BDB 781 과 172)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다양한 몇 가지 해석 중: (1) 70 인역은 “정사각형의 나무”로 (2) 불가타역은 “매끄러운 나무”로 (3)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나무의 어떤 종류로서 사이프러스(편백나무과의 상록 침엽수)나무와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배를 이 나무로 만들어 그 위에 송진을 발랐기 때문이다.

▣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 칸들은 방주의 골격(또한 삼층의)을 받쳐줄 뿐 아니라 동물들을 나누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하다.

6:15 “규빗”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규빗(BDB 52)이 있다. 일반적인 규빗은 보통 남자의 가장 긴 손가락에서 그의 팔꿈치까지의 길이로서 일반적으로 45 센티미터이다(참조, 신 3:11; 대하 2:3). 좀 더 긴 또 다른 규빗(왕의 규빗)은 건축에 사용되었는데(즉, 솔로몬 성전) 이집트, 팔레스타인, 때때로 바벨론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53 센티미터였다(참조, 겔 40:5; 43:13). 방주의 물리적 크기는 대략 가로 136 미터, 세로 22 미터, 높이 13 미터였을 것이다. 이것은 대략 엘리자베스 여왕 2 세 궁전의 반 정도된다. 이것은 사각형이지만 방주가 받는 물결의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 옆면이 경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대인들은 길이를 측정하는데 사람의 몸의 부분들을 사용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1. 양쪽 팔을 벌린 너비
2.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규빗)
3. 엄지에서 소지(새끼 손가락)까지 편 너비(한 뼘)
4. 주먹을 쥐 상태에서 엄지를 뻗 네 손가락의 길이(손의 폭)

규빗(BDB 52, KB 61)은 정확히 표준화는 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의 기본적인 길이가 있었다.

- ㄱ. 보통 남자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약 45 센티미터, 참조, 신 3:11)
- ㄴ. 왕의 규빗은 약간 더 길었다(약 53 센티미터, 참조, 대하 3:3; 겔 40:5; 43:13)

6:16 “거기에 창을 내되” 이것은 8:6 에서 사용된 창문과 같은 단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방주 꼭대기 지붕 밑의 주변에 있는 빛이 들어올 수 있고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추측한다.

6:17 “홍수” 이 용어(BDB 550)가 “파괴하다”라는 앓시리아 용어와 관계있다고 추측해 왔다.

노아시대의 홍수가 전세계적이었는가 아니면 고대 근동지역에만 국한되었는가?

“지구”(에레쓰)라는 용어는 종종 지역적 의미(참조, 창 41:57)인 “땅”으로 번역된다. 만일 인간이 10-11 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분명히 의미하듯이 지구의 모든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다면 지역적 홍수는 그 역할을 다한 것일 것이다. 지역적 홍수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로 내가 읽은 책 중 가장 좋은 것은 버나드 램의 *과학과 성경에 대한 크리스천의 관점*이다.

▣ “생명의 기운” 이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다. 이것은 바람, 생명, 호흡, 영을 의미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은 둘 다 *네페쉬*라고 말해지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참조, 1:26-27) “특별히”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참조, 2:7). 이 문맥에서 숨쉬는 모든 것이 죽는다(참조, 7:22, 동물과 인간)!

6:18

NASB, NKJV

NRSV

TEV

NET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 동사(BDB 877, KB 1086, *히필 완료형*)의 기본적인 의미는 “일어나다” 또는 “일어서다”이다. *히필 동사형*은 “세우다,” “비준하다”(참조, 6:18; 9:9, 11, 17; 17:7, 19, 21; 출 6:4; 겔 16:62)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이 어떤 약속/언약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아마도 이것은 9:9, 11, 17의 예시일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타락하고 반역한 인간과의 약속을 굳게 하시고 지속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열쇠이다. 비록 그들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존속한다!

▣ “너와는 . . . 내 언약을” *베릿* (BDB 136)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처음 사용한다. 이것은 창 9:8-17에서 설명되고 또한 확장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를 이룬다. 양쪽 편 모두에게 상호적인 책임, 의무,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조건없는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의 인간이 응답해야하는 조건적인 면 사이에 있는 변증법적인 긴장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언약

구약의 용어 *베릿* (BDB 136), 언약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히브리어에는 없다. 이것을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의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한다:

1. 창조 자체(참조, 창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 12 장)
3. 아브라함과의 언약(참조, 창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약속을 주심(참조, 창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반응을 요구한다

1. 믿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만 했다
2.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또한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만 했다
3. 믿음으로 노아는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 동물들을 모아야만 했다
4.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함께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 27-29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난다. 이 긴장 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야웨의 행동)을 비교할 때 분명해 진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점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창 3 장에 있는 상실한 교제의 회복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렘 31:31-34의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법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내적인 갈망이 되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방법은 달라졌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문제는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되고 약함에 있다(참조, 롬 7 장; 갈 3 장).

구약에 있는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신약에 나타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완전히 거저로 주어지지만 이것은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다(시작과 계속적 진행에 있어서). 이것은 법적 선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초대이고, 받아주심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거룩함의 명령이다! 신자들은 그들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인하여 구원받는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구원의 방법은 아니다. 이 긴장은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가족에게까지 확장된다(참조, 고전 7:14).

6:19 “너는 . . . 이끌어들이” 이것은 동물들(지역적인지 아니면 전세계적인지는 불확실하다)이 노아에게 왔고 노아가 방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는 마지막 일주일 전에 이것을 시작했을 것이다. 동물들이 방주에서 어떻게 같이 지내고 먹었는지는 신비스럽지만 자연적 환경이나 초자연적 환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6:21 방주에는 노아와 동물을 위한 음식이 있었다(BDB 542, KB 534, 칼 명령). 그러나 자세하게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 기록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참조, 7:5, 9, 16)한 것이 중심주제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응답이지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예, 6:5, 11-12, 13).

창세기 7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홍수	대홍수	대홍수 (6:5-8:22)	홍수	홍수에 대비한 준비 (6:13-7:16)
7:1-5	7:1-12	7:1-5	7:1-5	7:1-5
7:6-12		7:6-10	7:6-10	7:6 7:7-10
		7:11-16	7:11-16	7:11-12
7:13-16	7:13-16			7:13-16a 7:16b 홍수
7:17-24	7:17-24	7:17-24	7:17-24	7:17-2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7:1-5

¹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²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³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⁴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⁵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가 사용되는데 16 절에서는 *엘로힘*으로 불린다. 구원자(야웨)로서 그리고 창조주(*엘로힘*)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보는 합리적 이해는 모세오경의 사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4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방주로 들어가라” 이 동사(BDB 92, KB 112)는 *칼명령*이다.

▣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용어는 옳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흠 없는”(참조, 6:9)과 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이해하고 또는 문화 속에서 표현된 모든 것을 따르고 실행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노아의 의로움이 그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을 주목하라. 이것은 성경적 진리이다. 이것은 어떤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그들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는 의미이다(신 5:9-10; 7:9 과 고전 7:14 을 비교하라).

7:2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모세 이전에 행해진 제사에서 희생제물(참조, 레 1-7 장)에 대한 정하고 부정한 것의 구별이 있음을 주목하라.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나 목적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모세가 레위기(참조, 11 장)에서 이 구별을 음식규례 및 제사제도와 연결지어 발전시켰음이 분명하다. 암수 일곱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참조, NRSV, NJB, JPSOA). 이것은 개별적인 일곱 마리의 동물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동물의 일곱쌍을 의미하는가?

7: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 . . 땅에 비를 내려” 라쉬는 이 때가 방금 죽은 의로운 므두셀라를 슬퍼하고 있는 시기였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므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랍비들은 믿는다.

한 주간이 7일인 것은 매우 오랫동안 행해진 것이어서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없다. 달과 년대는 달의 주기와 계절의 변화에서 유래를 추론할 수 있지만 일주일은 그렇지 않다. 믿는자에게는 창 1 장이 그 답을 준다.

▣ “사십 주야” “40 일”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다(성경 용어색인을 보라).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것은 시간적으로 긴 기간(28일 과 1/2 일인 달의 주기보다는 길지만 계절의 변화보다는 짧은)을 단순히 의미하기도 한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기록에서 홍수의 기간은 칠일이다.

개역개정 7:6-12

⁶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⁷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⁸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⁹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¹⁰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¹¹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들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¹²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7:11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1 절에서 그 날은 지구상에 발생한 물리적 천재지변을 묘사하는 동사(두 *니팔* 완료형, BDB 131, KB 149 과 BDB 834, KB 986)의 사용과 더불어 역사적 사건을 표시하는 날로서 매우 특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18 절과 19 절의 파괴의 정도를 볼 수 있다. 지구의 물리적 형태의 많은 부분이 (특히 근동지역) 변화되었다. 두 가지의 물 근원이 있다: (1) 깊음의 샘들 (2) 하늘의 홍수문(즉, 창문, 참조, 시 78:23 이하; 말 3:10). 이것은 창 1 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이다. 물의 대혼란이 되 돌아왔다.

개역개정 7:13-16

¹³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¹⁴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¹⁵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들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¹⁶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7:14 이것은 바다의 생물을 제외한 창 1 장에서 언급한 땅의 모든 동물들을 포함한다.

7:16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야웨(즉, 언약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악한 자들을 방주 밖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주 주위에 사자와 곰을 두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까지 말한다. 나는 그 방주가 심지어 심판 중에도 결국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는(참조, 창 3:15)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야웨의 또 다른 자비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개역개정 7:17-24

¹⁷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¹⁸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¹⁹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²⁰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²¹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²²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²³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²⁴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7:19 이 동사는 분명히 전세계적인 홍수(참조, 8:21; 벧후 3:6)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가? “지구”(에레쓰, BDB 75)라는 용어는 “땅”(참조, 41:57)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눅 2:1 과 골 1:23(참조, 성경의 어려운 말들, IVP 112-114 쪽)과 비슷한 관용적 표현일 수 있다. 홍수의 신학으로 볼 때 이것의 확장은 적합하지 않다. 홍수로 인한 퇴적물은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일정치 않은데 그 퇴적물의 양이 전 세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홍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흔히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하류에서 합쳐지는 두 큰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토론을 위해 버나드 램의 *과학과 성경에 대한 크리스천의 관점*을 보라.

7:22 “생명의 기운의 숨” (참조, 1:30의 설명) 물에 사는 생물은 보존되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당신은 천사들이 왜 인간 여자들을 원했다고 생각하는가?
3. 네피림은 누구였는가?
4.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는가?
5.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6. 왜 물고기는 땅의 동물과 함께 심판받지 않았는가?
7. 노아시대의 상황에서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인가?
8. 홍수는 지역적이었는가 아니면 전 세계적이었는가? 그 이유를 말해보라.

창세기 8:1-22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홍수가 줄어들다	노아의 구원	대홍수 (6:5-8:22)	홍수가 끝남	홍수가 줄어들다
8:1-5	8:1-5	8:1-5	8:1-5	8:1-5
8:6-12	8:6-12	8:6-12	8:6-12	8:6-12
8:13-19	8:13-14	8:13-19	8:13-14	8:13 8:14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다
	8:15-19		8:15-19	8:15-19
	피조물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 (8:20-9:17)		노아가 제사를 드리다	
8:20-22 (22)	8:20-22 (22)	8:20-22 (22)	8:20-22 (22)	8:20-22 (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배경

가. 창 1장과 7장 사이에 물로 인한 혼란이 명백하게 평행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 나. 창 1장과 7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땅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명백하게 평행을 이룬다
1. 1:2 과 8:1 을 비교하라
 2. 1:6-7 과 8:2 을 비교하라
 3. 1:22, 24 과 8:17 을 비교하라
 4. 1:28 과 9:1-2 을 비교하라

다. 창세기 8:1-19 은 7:11-24 의 역이다. 이점은 문학적인 구조를 분명히 나타낸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8:1-5

¹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²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³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 ⁴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⁵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8:1 “하나님” 이 단어는 *엘로힘*이다. 창 1:1 의 설명이나 2: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기억하사” 이 용어(BDB 269, KB 269, *칼미완료형*)은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관계를 가지시고 행하심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8:1; 9:15; 16; 19:29; 30:22).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 또 다시 행하시려고 하신다.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기초가 될 것이다.

▣ “노아” 이 이름은(BDB 629) “쉽”을 뜻하는데, 언어학에 근거한 것이기 보다 소리에 기초한 일반적 어원에 근거한 뜻이다.

▣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이 동사(BDB 716, KB 778)는 *히필미완료형*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그리하셨듯이(참조, 출 14:21) 2 절에서 자연적 방법을 사용하여 홍수로 범람한 물을 마르게 하셨다.

한편 창 8-9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1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바람은 1:2 의 “수면 위에 운행한 하나님의 영”과 평행을 이룬다.

▣ “물이 줄어들었고” 이것과 같은 용어(BDB 1013, KB 1491, *칼미완료형*)가 에스더 2:1 에서 왕의 노여움에 사용되었다.

8:4 “아라랏 산” 이 용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터키/러시아 국경에 있는 산 (2) 밴 호수 북쪽에 있는 산 (3) 어떤 특정 봉우리 보다는 어떤 산맥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앗시리아어 *우칼투*, BDB 76) (“산”의 복수형으로 쓰여있음을 주목하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역개정 8:6-12

⁶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⁷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⁸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때 ⁹은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밭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¹⁰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¹⁰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¹¹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¹²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8:6 “사십 일”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명료하지 않은 어떤 긴 기간”을 의미한다. 이 문맥에서 날의 수가 매우 특별하기에 이것은 정확하게 40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창문”** 이것은 6:16 에서 사용된 불명료한 용어(문자적으로 “지붕,” BDB 844 I)와는 구별되는 용어(BDB 319)이다. 이것의 크기와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붕에 있었을 것이다.

8:6-12 이 새들을 우화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메소포타미아의 문서(즉, 길가메쉬 서사시 11:145-55)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난다. 이같은 일치는 매우 특별하기에 우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경(즉, 창 1-11 장)과 메소포타미아 문서 사이에 문학적 관계가 있다.

개역개정 8:13-19

¹³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건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건헸더니 ¹⁴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¹⁵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⁶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¹⁷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¹⁸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¹⁹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8:13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것은 그가 지붕의 일부분을 제친 것을 의미한다(BDB 492). 후기에는 같은 단어가 회막을 덮는 동물의 가죽을 가리키지만, 이곳에서도 그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8: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문맥 전체에서 노아의 인내와 순종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명령(즉, 8:15-19)은 7:1-5 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8:16 “방주에서 나오고” 이것은 16-17 절에 있는 여러 명령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다.

1. “나오고,” **칼 명령**(BDB 422, KB 425), 16 절
2. “이끌어 내라,” **히필 명령**(BDB 422, KB 425), 17 절
3. “생육하고,” **칼 완료형**으로서 명령의 의미를 지님(BDB 1056, KB 1655), 17 절
4. “열매를 맺으라,” **칼 완료형**으로서 명령의 의미를 지님(참조, 9:1, 7 BDB 826, KB 953), 17 절
5. “번성하라,” **칼 완료형**으로서 명령의 의미를 지님(참조, 9:1, 7 BDB 915, KB 1176), 17 절

이 일련의 명령은 모두 창 1:22, 24 에 나오는 명령과 평행을 이룬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 물로 인한 대혼란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을 제외하고는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켰다.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계속된다(참조, 6:18).

8:17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창 1:22, 24 에 나오는 명령과 평행을 이룬다. 이 장의 앞부분에 있는 문맥적인 통찰을 보라.

개역개정 8:20-22

²⁰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²¹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²²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처음 한 일은 예배와 감사였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옛부터 행하여 온 일이다(참조, 4:3; 12:7, 8; 13:18; 22:19). 이 일은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도 길가메쉬가 홍수 후에 한 첫 행동이다(참조, 11:156-158).

▣ “모든 정결한 새”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서로 구별하는 기준은 불분명하다(참조, 7:2). 이것은 먹는 것과 관련된 구분이 아니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참조, 레 11 장; 신 14 장).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성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의미로 사용된다(특히 레위기와 민수기). 길가메쉬 서사시(참조, 11:159-161)에서는 신에게 드린 음식으로서의 제물로서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성경은 결코 주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제사제도를 신(들)에게 드리는 음식으로서 여기지 않는다.

▣ “내가 다시는 . . .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 . . 내가 . . .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평행을 이루는 이 문장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참조, 사 54:9)과 공의를 인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긴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악하고 부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로 결정하셨고 마지막 때(즉, 종말)에 이것을 이루신다. 여기의 심판에서 최악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언약을 지킬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태도는 다시 한번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언약을 세우실 것이다(참조, 렘 31:31-34 와 겔 36:27-38). 메시아의 공로와 희생제물로서의 죽음을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또 다시 홍수를 보내어 멸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벧후 3:10 은 주께서 지구를 불로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 일하실 것이지만 그분의 목적은 의이다(참조, 레 19:2; 마 5:48).

▣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 이전에 분명하게 드러난 인간의 악함(참조, 6:5, 11, 12, 13)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타락한 인류 안에 계속 남아 있다.

8:22 서양의 현대 과학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자연이 질서대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인하여서였다. 하나님께서는 동일과정설을 세우셨다(즉, 자연의 규칙적이고 일정한 활동). 그러나 문장의 앞에 있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표현에 주목하라. 영어로 된 성경번역본에서 22 절은 시의 형태로 인쇄되어있다.

창세기 9:1-29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무지개 언약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8:20-9:17)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새 세계의 질서
9:1-7 (6-7)	9:1-7 (6-7)	9:1-7 (6)	9:1-7 9:7	9:1-7 (6)
9:8-17	9:8-17	9:8-17	9:8-17	9:8-11 9:12-16 9:17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	노아와 그의 아들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
9:18-19	9:18-19	9:18-19	9:18-19	9:18-19
9:20-27 (25-27)	9:20-23 9:24-27 (25-27)	9:20-27 (25-27)	9:20-27 (25-27)	9:20-27 (25-27)
9:28-29	9:28-29	9:28-29	9:28-29	9:28-2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9:1-7

¹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²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³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⁴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⁵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⁶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⁷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9:1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칼 명령으로 사용된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라: “생육하라”(BDB 826, KB 963), “번성하라”(BDB 915, KB 1176), “땅에 충만하라”(BDB 569, KB 583). 이것은 인류가 두 번째로 시작되는 때에 주신 것이지만(참조, 1:28), 죄로 인해 명령의 내용에 “정복하라”가 빠져있는 것을 주목하라.

9:2 “두려워하며 . . . 무서워하리니” 인류는 이제 동물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는데, 에덴동산과 마지막 때(사 11 장)에서와 같이 평화와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BDB 432)과 무서움(BDB 369)의 관계이다. 70 인역은 “소”라는 단어를 추가시키고 있는데 이 절에서 가축과의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9: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인류는 본래 채식자였다(최소한 에덴동산에서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또한 방주에서 나와 곡물을 당분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먹는 용도에 관한 정하고 정하지 않은 동물 사이에 구분이 없음을 주목하라(레 11 장은 그 내용이 아주 다르다). 이러한 구분은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만 있었다(참조, 7:2 이하).

9: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제사제도의 신학적 기초를 이루고(참조, 레 17:10-16; 신 12:16, 23; 행 15:29)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갖는 중요성을 나타낸다. 죄는 생명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해 동물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셨다.

9:5-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것은 “눈에는 눈”으로 갚는 정의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이다. 이 절은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정하셨음을 보여준다. 구약에서 원수를 갚는 것은 고엘(친족 보수자)의 몫이었다. 신약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행 25:11 과 롬 13:4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 절은 산문으로 되어있는 반면 6 절은 시의 형태로 인쇄되어 있다.

히브리어의 피(דם)와 사람(אדם)의 어원과 관련하여 언어유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앗시리아어에서 사람(아담)은 제단(아드만)과 연결된다. 따라서 피-에베-사람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참조, 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45 쪽).

▣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은 인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참조, 1:26, 27; 5:1, 3).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책임인가!

9:7 “땅에 가득하여” 이것은 1:22, 24, 28 에 나오는 내용이다. 창 8-9 장은 창 1 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과 행하심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있다. 이 절에는 4 개의 칼 명령이 사용되었고 1 절에서는

3 개의 명령이 사용되었다. 랍비들은 이 명령이 살인과 관련된 문맥(5-6 절)에 있다는 근거에서 누구든지 자녀낳기를 거부하는 자는 살인과 관련된 명령을 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역개정 9:8-17

⁸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⁹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¹⁰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¹¹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¹²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¹³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¹⁴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¹⁵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¹⁶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¹⁷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9:9 “내가 내 언약을 . . . 세우리니” 이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참조, 9, 11, 12, 17 절).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포함하는 언약들은 조건적 언약이었다. 6:18의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9:12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대대로”(ולדור)은 16 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영원히”라는 의미이다. 3:22의 특별주제를 보라. 라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대대로”의 철자가 잘못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는 이 언약은 단지 오류가 많은 믿음을 가진 세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9:15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사용한 증거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다(“생명 책”과 “행동을 기록한 책”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다).

▣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것은 홍수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동물계를 멸망시킬 전 세계적 규모의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개역개정 9:18-19

¹⁸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¹⁹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9:18 “셈” 이 이름의 어원적 의미는 “잘 알려진” 혹은 “이름”이다(BDB 1028 II).

▣ **“함”** 이 이름은 “뜨거운”(KB 325 II)이다. 이것은 이집트의 고대 이름(즉, “더운 땅”)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 **“야벳”** 이 이름의 어원은 “확장하는 사람” 혹은 “확대한”(BDB 834, 22 절에서 사용된 단어유희를 보라).

▣ “가나안” 두 가지 이유에서 그(BDB 488)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노아가 술취하여 말한 저주가 가나안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혹은 (2) 가나안인들이 후에(즉, 모세가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가져왔다는 이유일 것이다.

9:19 이것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즉, 땅을 충만하게 하다). 바벨탑 사건은 이 명령의 내용에서 뚜렷이 벗어난 일이었다.

오늘날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DNA 검사를 통한 연구에서 인류의 시작을 북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반하여, 현대 언어학은 인간의 모든 언어가 북인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장소가 성경의 기록과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주목하라.

분명히 인간의 모든 종족은 이 세 형제로부터 기인한 사람들이다. 현대의 DNA 검사를 통한 연구는 모든 인류가 유전적으로 같음을 제시한다.

개역개정 9:20-27

²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²¹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²²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²³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²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²⁵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²⁶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²⁷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9: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NASB 와 RSV 의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지나치게 글자대로만 읽는 것 같다; 노아는 최초의 농부가 아니었다—가인(4:2) 이나 라멕(5:29)은 어떠했는가? NRXV 는 “흙의 사람 노아”로 번역하고 있다.

9:21 “취하여” 술취함(BDB 1016 I, KB 1500)은 성경에게 거듭 거듭 개탄의 대상으로 말해진다(참조, 잠 23:29-35).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참조, 신 14:26; 시 104:15; 잠 31:6-7).

특별주제: 포도주와 독주

I. 성경의 용어

가. 구약

1. *야인*— 이것은 “포도주”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141 회 사용되었다(BDB 406). 이것의 어원은 불확실한데 그 이유는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항상 발효된 과일 주스를 뜻하는데 대개는 포도로 만들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본문은 창 9:21; 출 29:40; 민 15:5, 10 이다.
2. *티로쉬*— 이것은 “새 포도주”를 가리킨다(BDB 440). 근동의 기후조건 때문에 과일즙을 추출한 지 6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시작된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가리킨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본문은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이다.

3. *아시스*- 율 1:5 과 사 49:26 은 이것이 분명히 알코올을 함유한 것임을 나타낸다(BDB 779).
4. *세칼*- 이것은 “독주”(BDB 1016, 참조, 사 5:1)를 가리킨다. 이것에 어떤 성분을 첨가하여 더 잘 취하게 만들었다. 같은 어근을 갖는 히브리어 단어가 “술취한” 혹은 “술취한 사람”을 뜻한다.

나. 신약

1. *오이노스*- 이 단어는 *야인*과 같은 의미를 갖는 헬라어 단어이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이것은 *티로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이다(참조, 막 2:22).
3. *글류코스 비노스*(단 포도주)- 이것은 발효의 초기 단계에 있는 포도주이다(참조, 행 2:13).

II. 발효

- 가. 발효는 매우 일찍 시작되는데, 보통은 첫째 날(즙을 추출한 지 6 시간 후에)부터 일어난다.
- 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약간의 거품이 표면에 생길 때가 포도주의 십일조를 드려야 할 때이다(*마 아새롯* 1:7).
- 다. 발효의 대부분은 첫 주간에 걸쳐 일어난다.
- 라. 발효의 두 번째 단계는 약 40 일에 걸쳐 일어난다. 이 단계를 거친 것을 숙성된 포도주로 여기는데 이것이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상태의 포도주이다(*엘후솿* 6:1).
- 마. 그 “찌꺼기”(숙성의 과정에 가라앉은 것) 위에 있는 것을 좋은 포도주로 여기는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불순물을 잘 걸러내야 한다.
- 바.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은 3년이다. 이 때의 포도주는 “오래묵은 포도주”이라 부른다. 발효 후 1년된 것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여긴다.
- 사. 멸균처리와 화학약품의 첨가로 발효의 과정을 늦출 수 있게 된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가능했다.

I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참조, 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율 2:19, 24; 암 9:13; 슥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참조, 출 29:40; 레 23:13; 민 15:7, 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축제에서 사용되었다(참조, 신 14:26).
4.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삼하 16:2; 잠 31:6-7).
5. 포도주는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노아 - 창 9:21; 룻 - 창 19:33, 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 - 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 장).
6. 포도주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다(참조, 잠 20:1; 23:20-21, 29-35; 31:4-5; 사 5:11, 22; 19:14; 28:7-8; 호 4:11).
7.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수행 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8.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언급된다(참조, 암 9:13; 율 3:18; 숙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집회서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3. 포도주와 물을 섞은 것은 해롭지 않고 맛 있다. 이것은 사람의 즐거움을 증진시킨다(마카비 2서 15:39).

다. 신약

1.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참조, 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참조, 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비난받았다(참조, 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참조, 막 15:23; 눅 10:34; 딤후 5:23).
5. 지도자들이 포도주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포도주를 완전히 마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참조, 딤후 3:3, 8; 딤후 1:7; 2:3; 벰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참조, 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참조, 마 24:49; 눅 11: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벰전 4:3; 롬 13:13-14).

IV.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커다란 문제이다.
3. 우리의 모범은 그리스도이시다(참조, 마 15:1-20; 막 7:1-23; 롬 14 장; 고전 8:7-13).

나.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남용해왔다.

다. 남용은 물질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를 인해 일어난다. 창조된 세계에서 악한 것은 없다(참조, 롬 14:14, 20).

9:22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의 죄는 (1)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것 또는 (2) 어떤 형태의 성적 행동(참조, 레 18:6, 7)이었다. 히브리 인들은 별거 벗는 것에 매우 예민하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쇠락하는 것을 보인다. 노아가 술취했다! 함은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별거벗음을 아주 즐겼다! 존경심을 갖지 않는 것과 성적인 남용의 경향은 가나안 자손들에 있어서 분명히 드러났다!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한 노아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첨가하는 말로서, 이 이야기는 절대로 성경이 흑인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함의 후손이다. 가나안 족속은 흑인이 아니었다(즉, 이집트의 벽화)!

9:24 “노아가... 알고” 그가 물어서 알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셈과 야벳이 그 위에 가져다 덮은 옷을 보고 알게 되었을 것이다.

▣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은 항상 노아의 아들 중 두 번째로 언급된다. 이 히브리 단어는 최상급으로서 “막내 아들”을 혹은 비교급으로서 “둘 째 아들”을 의미한다.

9:25 “이에 이르되” 말에 힘이 있다고 여기는 히브리적 개념을 기억하라(창 1 장). 아울러 창 49 장에 나타난 족장의 축복이 갖는 중요성을 유의하라.

▣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동사(BDB 76, KB 91)는 칼수동 분사이다. 랍비들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가나안이 처음으로 보았고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 함에게 말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함의 작은 아들 또는 함의 막내인 가나안이 이런 불건전한 기질을 가진 것을 노아가 분명히 보았거나 혹은 함의 모든 아들을 일컫는 말로서 가나안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에서 가나안 족속은 사악한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으로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로 나타난다. 거인들이 아직 살아 남았던 땅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다.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다신교적 예배풍습은 바로 그들이 행하던 일이었다.

특별주제: 인종적 우월감

I. 서론.

- 가.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 의해 그들의 사회 안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이다. 인종적 우월감은 여러 면에서 현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에, 국수주의(또는 부족주의)는 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다.
- 나. 국수주의는 바벨에서 시작되었고(창 11 장) 그 기원이 노아의 세 자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로 부터 소위 인종이 시작(창 10 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인류는 한 조상으로 부터 출발했다(참조, 창 1-3 장; 행 17:24-26).
- 다. 인종주의는 여러 편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종류로는 (1) 교육적 속물 근성 (2) 사회 경제적 교만 (3) 자기 의로 가득 찬 종교적 율법주의 (4) 교리적 정치적 가입이 있다.

II. 성경의 자료

- 가. 구약
 - 1. 창 1:27 - 인류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입었는데 이점이 그들을 독특하게 한다. 이 점은 또한 그들 각자가 귀하고 위엄이 있는 존재임을 뜻한다(참조, 요 3:16).
 - 2. 창 1:11-25 - 여기에는 “... 그 종류를 따라...”가 10 번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인종적 구분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것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것이지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하다.
 - 3. 창 9:18-27 - 이것은 인종적 우월함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으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의 아버지인 노아가 술취함으로 인한 무감각에서 깨어난 후에 그를 저주한 것이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 맹세/저주를 뒷받침해 주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흑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자들의 조상이었고 이집트의 벽화에서도 그들이 흑인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 4. 수 9:23 - 이것은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섬길것을 입증하는 구절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기브온 족속은 유대인과 같은 인종적 줄기를 가진다.
 - 5. 스 9-10 장과 느 13 장 - 이것은 인종적 구분을 지지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볼 때 인종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그들은 노아의 아들 중 같은 이로부터 나왔다, 창 10 장) 종교적 이유로 이들과의 결혼을 비난하는 것이다.

나. 신약

1. 복음서

ㄱ.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증오감을 사용하여 여러 경우에 말씀하셨다.

-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
- (2) 우물가의 여인(요 4:4)
- (3) 감사하는 문둥병자(눅 17:7-19)

ㄴ. 복음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 (1) 요 3:16
- (2) 눅 24:46-47
- (3) 히 2:9
- (4) 계 14:6

ㄷ. 왕국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것이다

- (1) 눅 13:29
- (2) 계 5 장

2. 사도행전

ㄱ. 사도행전 10 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과 복음의 우주적 선포를 나타내는 중요한 본문이다.

ㄴ. 베드로는 사도행전 11 장에서 보여 준 그의 행동을 인해 비난받았고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회의로 모여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었다. 1 세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은 굉장히 심각했다.

3. 바울

ㄱ. 그리스도 안에는 장벽이 없다.

- (1) 갈 3:26-28
- (2) 엡 2:11-22
- (3) 골 3:11

ㄴ.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 (1) 롬 2:11
- (2) 엡 6:9

4. 바울과 야고보

ㄱ.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벰전 1:17

ㄴ. 하나님께서 편애하시지 않기때문에 그의 백성도 그러해야 한다, 약 2:1

5. 요한

ㄱ. 신자의 책임에 대한 한 가지 강한 진술이 요일 4:20에 있다.

III. 결론

가. 인종주의 혹은 이와 관련이 있는 어느 종류의 선입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전혀 결맞지 않는다. 여기에 1964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뉴멕시코의 글로리에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헨리 바넷이 말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인종주의는 이단적인데 그 이유는 이것이 비과학적인 것은 물론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용서, 이해를 잃어버려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거부감은 미성숙함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악한 자로 하여금 믿는 자의 믿음, 확신, 성장을 방해하는 기회가 되게 한다. 이것은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는데 장애로 역할을 한다.

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 부분은 그리스도인 삶의 헌신에서 발행한 “인종관계”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발췌했다)

개인적 영역에서:

ㄱ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이라.

ㄴ 기도와 성경연구, 또한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당신이 갖고 있는 인종적 편견을 몰아내도록 노력하라.

ㄷ 인종 문제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표현해 보라. 특별히 인종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삼지 않는 부분을 접근하라.

가족적 영역에서

ㄱ 가정이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 지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라.

ㄴ 아이들과 부모가 집 밖에서 인종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발전되도록 하라.

ㄷ 부모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일에 자신의 모범을 보이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ㄹ 가족적으로 인종적 선을 건너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라.

교회에서

ㄱ 인종주의와 관련된 성경의 진리를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회중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

ㄴ 교회가 행하는 예배, 교제, 봉사는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음을 상기하라. 신약교회에서 조차 인종적 장벽이 보이지 않았다(엡 2:11-22; 갈 3:26-29).

매일의 삶에서

ㄱ 일하는 모든 곳에서 어떤 종류의 인종적 차별도 극복하도록 도우라.

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일하는 모든 단체나 기구와 협력하라. 비난 받아야 될 것은 인종차별의 문제이지 사람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의 취지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지 쓴 감정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ㄷ 만일 어떤 특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일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으면 이를 조직하라. 공동체 안에서 일반 대중에게 홍보를 통한 교육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과 또한 인종 관계를 개선시킬 특별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조직하라.

ㄹ 인종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증진시키는 법률가와 그러한 법률의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왜곡된 생각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라.

ㄱ 법률을 실행하는 자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라.

ㄴ 폭력을 피하고 법을 존중하되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법의 구조가 인종차별을 증진시키는 자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라.

ㄷ 사라드과의 모든 과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저시의 드러내도록 하라

▣ “종들의 종” 이것은 히브리어의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가장 낮은 종”을 뜻한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팔레스틴을 정복할 때 성취되었다!

9:26-27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 번역된 두 동사는 **지시형**으로서 세 경우는 지시형의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고 한 번은 문맥에서 **지시형**임을 알 수 있다.

9:26 “**여호와**” “**야웨**”는 언약을 나타내는 특별한 이름으로서(2:4의 설명을 보라) 메시아가 쎈의 계보에서 나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3:36).

▣ “**쎈의 하나님**” 쎈은 “**이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인 야웨(BDB 1028 II)와 관련된 언어유희로 보인다. 이것은 11:4의 내용과 정반대이다!

9:27 “**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이것을 (1) 정치적인 의미로서 로마나 유럽 문화의 지배를 가리킨다고 보거나 (2) 영적인 의미로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일부분을 이루는 유대인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참조, 12:3; 앱 2:11-3:13).

개역개정 9:28-29

²⁸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²⁹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9:29 죽음이 아직도 지배했다(참조, 5 장)!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타락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2. 사형의 형벌은 성경적인 개념인가(참조, 6 절)?
3. 노아는 흑인들을 저주했는가?
4. 27 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창세기 10:1-32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 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노아의 후손	노아로부터 나온 나라들	나라들의 목록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	땅 위의 사람들
10:1	10:1	10:1	10:1	10:1
10:2-5		10:2-5	10:2-5	10:2-5a 10:5b
10:6-14	10:6-14	10:6-14	10:6-12 10:13-14	10:6-7 10:8-12 10:13-14
10:15-20	10:15-20	10:15-20	10:15-20	10:15-19 10:20
10:21-31	10:21-31	10:21-31	10:21-31	10:21 10:22-23 10:24-30 10:31
10:32	10:32	10:32	10:32	10: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서론

- 가. 창 10 장의 자세한 설명이 갖는 신학적 목적은 무엇인가?
1. 이 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낸다. 창 11 장은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 점은 창 10 장이 단순히 하나의 심판으로서만이 아니라 1:28 과 9:1, 7(즉,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의 성취임을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 예언서에서 똑 같은 나라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나라들로 언급된다(참조, 사 7-23 장; 램 46-51 장; 겔 27-30 장; 38-39 장).
 3. 이 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그의 씨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야웨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의 배경을 이룬다(참조, 12:3; 출 19:5-6).
 4. 이것은 메시아의 계보로 좁혀가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따른다(참조, 9:26).
 5. 대략 70 개의 족속이 언급되고 있다. 랍비들은 세계에 70 개의 언어가 있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신 32:5 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전세계를 향한 복음 선교를 주장하기 위해 눅 10:1 을 이 장에 연관시킨다.
- 나. 이 기록은 오늘날의 인류학적 연구 결과와 어떻게 일치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오늘날의 연구는 언어학적 원리에 기초한 반면 성경의 내용은 지형적 자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정보는 (1) 시대와 (2) 이주나 전쟁으로 사람들이 이동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참조, 겔 16:3; 호 12:7).
 2. 우리는 이 내용의 신학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 ㄱ. 취사선택적 언급
 - ㄴ. 인류의 하나됨(아담과 노아)
 - ㄷ.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최소한으로 언급된다(혹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3. 이 장은 복수형의 이름을 다수 포함한다. 이 점은 대개 한 조상으로부터 한 족속이 유래했음을 뜻한다. 종종 족속들은 한 지역보다 더 넓은 곳에 위치했다.
 4. 이 내용은 서구의 상세한 과학적 진술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목록이 이러한 종류의 것으로는 최초의 것에 속함을 종종 망각한다. 이것의 정확성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전제에 헌신할 때 확실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의 기록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말하거나 서구의 사고방식과 항상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이것은 놀랍도록 정확한 내용이다!
 5. 이 목록은 오경에 나오는 다른 목록들과 마찬가지로 서기관의 개역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치는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이 목록에 나오는 여러 이름(즉, 키메리아 족속, 스킨디아 족속, 블레셋 족속, 메데 족속)은 고대 근동의 자료에서 주전 1500-1000 년에 이르기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6. 이 목록에서 아시아와 폴리네시아(따라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민족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목록이 오늘날 볼 수 있는 다양한 인종의 일부만만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맞다면 모든 종족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과장된 말이 된다.
이 말은 창세기 1 장과 2 장에서 최초의 인간 부부를 분명히 말하듯이 모든 인간이 하나의 근원을 가지는 것(DNA 연구가 확인해 주듯이)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 다. 이 장의 구조
1. 2-5 절에서 야벳은 스페인에서 카스피아해에 이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을 차지했다.

2. 6-20 절에서 함은 아프리카에서 인디아에 이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을 차지했다.
3. 21 절 이하에서 셈은 지중해에서 인디아에 이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셈족 거주지와 관계있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0:1

¹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0:1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표현은 10 장과 11 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된다(10:1; 11:10, 27). 이것은 저자가 책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했거나 일련의 서판이 서로 연결됨을 나타내기 위해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간기일 것이다.

▣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는 그들의 나이와 관계되기 보다는 어떤 신학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메시아의 계보를 앞에 두고 여기서 관계가 먼것은 뒤로 돌리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개역개정 10:2-5

²야벳의 아들은 고크엘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³고렐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⁴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넘이라 ⁵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0:2 “고렐” 이것은 키메리아 족속(BDB 170)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호머의 *일리아드* 11:13-19 에서 언급된다. 그들은 북 소아시아에 살았다. 그들은 북쪽으로 이주해 유럽 민족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 말은 독일 북부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용어인 “킴비”와 웨일즈 지방의 “킴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곡”** 이들이 겔 38-39 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마곡(BDB 156)은 2 절에서 함께 언급되는 메섹과 두발과 함께 소아시아와 흑해의 해변가에 살았던 주요 족속이다. 이들이 북쪽으로 이주해 오늘날 러시아를 구성하는 족속이 되었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에는 약속의 땅에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많은 이들이 마곡을 흑해 동남쪽에 살던 스킨디아 사람으로 본다. 이러한 정보는 요세푸스로부터 왔다.

▣ **“마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카스피해 남쪽과 남서쪽에 살았던 메데(BDB 552)인으로 본다. 이들이 페르시아와 연합하여 신바벨론 제국(느부갓네살)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야완”** 이들은(BDB 402) 이오니아계 헬라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단 8:21; 10:20; 11:2). 이 사람들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야와나”로 발음되고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유나”로 로제타 비문에는 “유난”으로 나온다. 이들은 후에 헬라 왕국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에게지역에 있는 해변 족속의 한 부분(즉, 페니키아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이루었을 것이다.

▣ **“두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BDB 1063) 소아시아 중앙의 티베레니아 사람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두발과 메섹은 겔 38-39 에서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언급된다.

▣ **“메섹”**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흑해 남쪽과 남서쪽에 살았던 족속(BDB 604)로 본다(참조, 겔 27:13; 32:26; 38:26; 38:2; 39:1). 이러한 내용은 헤로도투스의 글에 나온다.

■ “디라스” 종종 그러하듯이 이 족속 (BDB 1066)에 대하여는 주석가마다 다르게 설명한다. 이러한 대부분 이러한 이름이나 지명은 불확실하기에 그렇다. 가능성이 있는 설명은 (1) 에트루스카 족속 (2) 펠라스키아 족속으로 불려진 에게해의 해적민족 (3) 요세푸스는 트라시아 족속으로 말하고 (4)라쉬는 이들을 페르시아로 사람으로 본다.

10:3 “아스그나스” 이것은 후에 유럽(즉,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용한 이름이다(BDB 79). 이들에 대하여는 (1)독일의 스키티아 족속 (2) 우루미아 호수 가까이 살았던 민족 혹은 (3) 소아시아의 비시니아에 거주하던 족속라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 “리밧” 이들은 레바스 강가나 보스포러스 가까이 살았던 족속(BDB 937)으로 알려져 있다.

■ “도갈마” 이들은(BDB 1062) (1)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살았던 족속이거나 (2) 고대 도시인 칼케미쉬 인근에 살았던 자들 혹은 (3) 프리기아에 있는 족속을 가리킨다. 3 가지 설명은 모두 그들이 오늘날의 터어키에 있었음을 말한다.

10:4 “엘리사”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키프러스의 원주민으로 본다(BDB 47). 이들은 겔 27:7 에서 언급된다.

■ “달시스” 올브라이트가 이것을 사르디니아로 보았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스페인 남쪽으로 본다(즉, 탈테소스). 이 지명은 대하 9:21; 시 48:7; 72:10; 은 1:3; 4:2 에서 언급되고 있다.

■ “깃딤” 이 지명을 키프러스의 동쪽 해안에 살았던 사람들과 보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된다(BDB 1076 II).

■ “도다남”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자음인 달렛(ד)과 레쉬(ר)의 유사성 때문에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이들이 로데스 섬에 살았던 족속이라고 주장한다(참조, NIV 의 번역).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견을 달리해 이들이 그리스 북쪽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들이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잘 모른다(BDB 187).

10:5 “이들로부터 . . .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은유적으로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야벳의 자손으로서 지중해와 흑해의 해변가를 따라 이주해 가서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것은 창 10 장이 4 가지 구분으로 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 지형을 따라서 (2) 언어를 따라서 (3) 민족을 따라서 (4) 정치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개역개정 10:6-14

⁶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⁷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샹다와 라아마와 샹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⁸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⁹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¹⁰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¹¹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¹²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¹³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¹⁴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0:6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들은 계속 이어지는 절에서 더 다루어진다: 구스(BDB 468)는 7-12 절에서, 미스라임(BDB 595)은 13-14 절에서, 가나안(BDB 488)은 15-19 절에서 다루어진다. 붓(BDB 806)에 대하여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아마도 동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아라비아의 남부, 리비아 혹은 사이레네를 가리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로 다른 여러 제안은 우리가 이를 잘 모르고 있음을 반증한다.

10:7 “스바”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일강 상류지역이라는 점이다(BDB 685). 이것은 사 43:3 에 언급되고 있다.

▣ **“하월라”**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모래 땅”(BDB 296)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집트 어딘가에 위치했을 것이다.

▣ **“삽다”** 이것은(BDB 688)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나 혹은 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도시를 말할 수 있다.

▣ **“라아마”** 이것은 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있는 사바티아 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BDB 947).

▣ **“삽드가”** 이것은 이디오피아를 가리킨다(BDB 688).

▣ **“스바”** 이것은(BDB 985) 유명한 스바의 여왕이 다스리던 지역으로서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한다(참조, 왕상 10:1-10; 요 11:15; 6:19; 시 72:10, 15; 사 60:6; 렘 6:20).

▣ **“드단”** 이것은 아라비아 어딘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BDB 186). 구스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동부와 아라비아 반도에 자리잡은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이 사 21:13; 렘 25:23; 49:8; 겔 25:13; 27:20 에 언급된다.

10:8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BDB 650)은 최초의 주요 문명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특별히 언급된다. 이러한 사실은 함의 후손이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구스의 아들로 언급되는 것은 카시트 족과의 언어적 유사성 때문이다. 두 민족이 구스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는 7 절에서 홍해의 동쪽에 다른 하나는 8 절에서 홍해의 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니므롯”** 라위와 류폴드에 따르면 이 용어는 “반역”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상기할 때 이어지는 두 개의 구인 “용사”와 “용감한 사냥꾼”은 부정적인 뜻을 가져 “전제 군주”나 “정복자” 혹은 “살인자”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것이 정확한 의미인지를 잘 모르지만, 이것은 문맥상 잘 맞는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 중 일부를 건설하고 있고, 처음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을 형성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니므롯을 투쿨리-니누르타 I로 보고 있는데, 그는 주전 13 세기 이후에 앗시리아와 바벨론을 지배했던 사람이다. 그는 니누스로 불리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성경의 니므롯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시기이다. 다른 이들은 니므롯을 아카드 도시의 지배자인 사르곤 I에 대한 것으로 본다.

10: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사냥꾼을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신문제라고 보는데, 만일 이 표현이 인간의 세계 구조를 발전시킨 최초의 정복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면(참조, 미 5:6)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는 것이 이해가 된다.

10:10 “바벨” 바벨론 사람들은 이 용어(בבל *일리*)가 “신들의 문”을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창세기 11 장에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바빌* (“그가 혼동했다”[BDB 93])로 해석한다.

▣ 이절에서 언급된 이 도시들은 모두 한 때 시날에 있던 주요 도시였다.

▣ “갈네” 어떤 이는 이것이(BDB 484) 님푸르의 도시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이것이 “그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쳐 받음한다.

▣ “시날 땅” 이것은 언어적으로 수메르” 혹은 “수메리아”(BDB 1042)와 관련이 있다. 이 단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을 가리킨다.

10:11 “그가 그 땅에 서 앓수르로 나아가” 어떤 이는 이것이 니므롯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맥상 가장 적합하게 보인다(참조, 미 5:6). 한편 70 인역, 불가타역, 시리아 역, 마틴 루터, 요한 칼빈 등을 포함한 사람들은 이것이 앓수르를 가리킨다고 본다.

▣ “니느웨” 이것은(BDB 644) 티크리스 강에 위치했던 앓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다(참조, 왕하 19:36; 사 37:37; 은 1:2; 3:2-7; 4:11; 나 1:1; 2:8; 3:7; 습 2:13).

▣ “르호보달” 이것은 문자적으로 “넓은 광장의 성읍” 혹은 “성읍의 넓은 곳”으로서 아마도 니느웨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BDB 944 II).

▣ “갈라” 이것은 앓시리아의 주요도시였다(BDB 480 II). 이 곳의 현재 이름은 니므롯으로서 니므롯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이름이다.

10:13 “미스라임” 많은 이들은 이것이 상하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BDB 595).

▣ “루딤”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리디아를 가리킬 것이다(BDB 530).

▣ “아나뫼” 이들은 이집트 서부에 있는 오아시스를 차지한 부족을 가리킬 것이다(BDB 777).

▣ “르하빔” 이것은 북 아프리카의 해안을 따라 살던 사막족속을 가리킬 것이다(BDB 529).

▣ “납두힘” 이들은 멤피스 근처에 살았던 부족일 것이다(BDB 661). 13 절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이집트와 그 주위 지역과 관련이 있다.

10:14 “바드루심” 이것은 남쪽을 가리키며 아마도 상 이집트를 뜻할 것이다(BDB 837).

▣ “가슬루힘(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것은 암 9:7 에서 블레셋이 그레테에서 온 것으로 뜻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구이다. 이것은 지명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에게해에 살던 해양민족의 계속적인 침입과 이주의 물결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지중해에 있는 대부분의 해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가슬루힘에 대하여는 BDB 493 쪽을 보라.

▣ “갹도림” 이들은 갹들로 알려진 크레테 섬에 살던 원주민을 뜻할 것이다(BDB 499).

개역개정 10:15-20

¹⁵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고 ¹⁶또 여부스 족속과 아 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¹⁷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¹⁸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¹⁹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²⁰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10:15 “시돈” 이것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유명한 항구로서 원래 이 왕국의 수도였다(BDB 850).

▣ **“헷”** 이것은(BDB 366) 셈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이름은 히타이트 족속의 맨 앞에 나오는 이름일 것이다. 성경에서 이들은 두 곳에 위치했다: (1) 헤브론 주위 (2)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터키의 중부지방이다. 이들은 이들 지역에서 주전 1800-1200 에 걸쳐 지배세력을 이루었다. 히위족속으로 불리는 부족은 헷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될 것이다.

10:16 “여부스” 이들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살렘 성읍 또는 여부스에 살던 자들이다(BDB 101).

▣ **“아모리”** 아모리라는 이 용어(BDB 57)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집합적인 용어일 것이다(참조, 창 15:16). 우리는 이것이 “높은 지대에 사는 자”(문자적으로는 “서쪽에 사는 자”)를 가리키고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은 “낮은 지대에 사는 자”(문자적으로는 “자주빛 땅”을 의미함)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의 목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1) 창 13:7, 34:30; 샯 1:4, 5 에서는 두 족속으로 (2) 신 7:1; 수 3:10; 24:11 에서는 7 족속으로 (3) 창 15:19-20 에서는 10 나라로 (4) 가장 일반적으로는 6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서 오경에서는 주로 이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기르가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의 여러 목록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나안 족속이다(BDB 173, 참조, 창 10:16; 15:21; 신 7:11; 수 3:10; 24:11; 느 9:8; 대상 1:14). 그러나 이들의 위치는 말해지지 않고 있다.

10:17 “히위”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중앙에 살았던 사람들로 보인다(BDB 295). 어떤 이들은 이들을 후리족으로 본다. 민수기 13:29 는 이들 족속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각각 어디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형학적 요약이다.

▣ **“알가”** 이들은 시돈 북쪽의 섬과 해변가에 살았던 사람들도(BDB 792).

▣ **“신”** 이들은 알케 가까이 있는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로 보인다(BDB 696).

10:18 “아르왓” 이들은 팔레스타인 북쪽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살던 사람들로 보인다(BDB 71). 앞의 두 경우처럼 이들은 트리폴리 북쪽에서 살았다.

▣ **“하맛”** 이들은 오론테스 강가에 살던 사람들도(BDB 333).

10:19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이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후에 멸망시키신 평지에 있는 도시들이다. 이들은 사해의 남단에 위치했을 것이다.

▣ **“라사”** 제롬에 의하면 이것은 사해 동쪽에 있었다(BDB 546).

10:20 이것은 5 절 처럼 한 구분의 요약이다.

개역개정 10:21-31

²¹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²²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²³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²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²⁵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²⁶ 욥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뻬(하살마뻬)와 예라와 ²⁷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²⁸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²⁹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욥단의 아들이며 ³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던라 ³¹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10:21 “셈”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름”(BDB 1028 II)이다. 그의 중요성은 그가 여기서와 그리고 11:10-26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11장에 나오는 반역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건물을 짓기 원했다. 그의 이름은 4:26(즉, 야웨의 이름이 영광받는)과 관련이 있다. 그는 축복을 위해 선택받은 계보를 대표한다(참조, 12:2).

▣ “에벨” 이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인”(BDB 720 II)을 가리키는 용어와 매우 흡사한 용어로서 단순히 유대인 뿐만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민족적 그룹을 일컫는 용어다. 이집트의 많은 문서와 비문에서 “하비르”로 불리는 사람들과 에벨의 관계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참조, 창 14:13). 에벨이라는 이름의 어원으로서 가능한 뜻은 “건너 지나가다”로서 이것은 유목민을 뜻할 것이다.

▣ “야벳의 형이라” 라쉬는 누가 형인지에 대해 히브리어에서는 불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10:22 “엘람” 이들은 수도를 슈산에 둔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던 주요한 왕국이었다. 이들은 이 장에서 언급되는 민족들 중에서 가장 동쪽에서 살았을 것이다(BDB 743).

▣ “앗수르” 이것은(BDB 78) (1) 사람이나 (2) 도시나 혹은 (3) 나라(즉 앗시리아)를 의미할 수 있다.

▣ “아르박삿” 이것은(BDB 75) 니느웨(앗시리아의 또 하나의 수도) 북쪽에 있던 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NIV 역은 아르팍사드로 번역하고 있다.

▣ “룻”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던 리디아 왕국을 가리킬 것이다(BDB 530). 헤로디투스는 말하기를 그들은 셈족의 도시인 니느웨에서 시작되었음을 주장했다고 전한다.

▣ “아람” 이것은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BDB 74).

10:25 “벨렉” 벨렉은 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특별한 계보를 이룬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11:18-27에서 보다 충분히 계보를 다룰 것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나뉘”(BDB 811 II)이다.

▣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었요”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물을 대는 운하들”로서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환경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어원은 “나뉘”(BDB 811, KB 928, 니팔 완료형)이다. 벨렉과 나뉘다(니플레가) 사이에 소리유희가 나타난다. 이것은 11장에서 언급되는 언어의 분리를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11장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10장에 있는 흠어짐은 시대적 순서에 따른 것은 아니다.

10:26-29 이것은 아라비안 부족을 말한다.

10:28 “스바... 하월라” 이들은 22절에 있는 앗수르와 더불어 함족의 목록과 셈족의 목록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2) 전쟁의 승리 또는 (3) 혼인으로 인해 두 가계가 합해진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 목록은 여러 면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아니다.

개역개정 10:32

³²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창세기 10 장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2. 왜 니므롯은 특별한 설명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가?
3. 이 민족들의 목록에서 왜 이스라엘, 모압, 에돔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가?

창세기 11:1-32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세계적 언어, 바벨, 혼란	바벨탑	바벨탑	바벨탑	바벨탑
11:1-9	11:1-9	11:1-9	11:1-9	11:1-4 11:5-9
셈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족보	셈의 후손	홍수 이후의 족장들
11:10-11	11:10-11	11:10-11	11:10-11	11:10 11:10b-11
11:12-13	11:12-13	11:12-13	11:12-13	11:12-13
11:14-15	11:14-15	11:14-15	11:14-15	11:14-15
11:16-17	11:16-17	11:16-17	11:16-17	11:16-17
11:18-19	11:18-19	11:18-19	11:18-19	11:18-19
11:20-21	11:20-21	11:20-21	11:20-21	11:20-21
11:22-23	11:22-23	11:22-23	11:22-23	11:22-23
11:24-25	11:24-25	11:24-25	11:24-25	11:24-25
11:26	11:26	11:26	11:26	11:26
	테라의 후손		테라의 후손	테라의 후손
	11:27-30	11:27-30	11:27-30	11:27 11:27b-30
11:27-30				
11:31-32	11:31-32	11:31-32	11:31-32	11:31 11: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창 10-11 장은 서로 뒤바뀐 연대적 순서를 나타낸다.
- 나. 비록 심판의 결과로서 언어의 혼동이 있었고 그 결과 사람들이 흩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의 세계 정부로 향해가는 것을 저지할 정도로 국가주의가 발전된 것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었다.
크리스찬에게는 오순절 사건이 바벨탑 사건을 신학적으로 되돌리는 일이었다!

개역개정 11:1-9

¹은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²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³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⁴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⁵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⁶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⁷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⁸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⁹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1:1 “은 땅의 언어가 하나요” 창 11 장이 10 장에 있는 흩어짐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의 한 언어는 에덴의 시기까지 분명히 거슬러가는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아니었다. 오늘날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로는 췌기형 글자인 수메리아어인데 이것은 주전 3,000 년 경의 것이고(ABD, 제 1 권, 1213 쪽) 수메리아 문화는 주전 10,000-8,000 년 사이의 시기에 속한다.

11:2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것은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 산에서부터 이동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옮기다가”의 글자적 의미는 “천막 말뚝을 잡아뽑다”(BDB 652, KB 704, 칼 부정사 연계형)이다. 메소포타미아는 아라랏 산(이 산은 오늘날 터키와 이란 사이에 놓여 있다)으로부터 남동쪽에 위치한다.

▣ “시날 평지”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 혹은 갈대아라고 불리는 바벨론을 가리킨다(BDB 1042).

11:3 이 절은 하나의 칼 명령과 이와 관련된 두 개의 청유형으로 되어있다. 이 절에 있는 건축 기술에 대한 설명은 메소포타미아(나무가 없음)의 환경에 대한 역사적으로 정확한 내용이다. 바위가 이 지역에 없기에 벽돌을 불에 구워야 했다. 흙정역은 “진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고 끈적끈적한 물질로서 이 지역에서 끓어 올라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타르, 아스팔트, 피치로 부른다(BDB 330, 참조, 6:14).

11:4 이 절에는 하나의 **칼명령**과 이와 관련된 두 개의 **미완료형**이 나오는데 후자는 **청유형**의 의미를 갖는다. 이 이야기에는 4가지 요소가 관계되고 있다: (1) 도시와 탑의 건설 (2) 이 건축물의 크기는 당시에 있던 다른 건축물에 필적할 만한 크기였음 (3)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다 (4) 그들은 광범위하게(즉,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건축물의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다. 많은 이들이 이 건축물을 바벨론의 지구랏으로 보지만, 히브리어로는 **딕달**로서 “튼튼한 탑”(BDB 153, 참조, 사 8:9-17)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신들의 세계를 조직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려는 시도인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그들이 벽돌마다 자기의 이름을 써 놓아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했다고 필로는 말한다. 이것은 조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작용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첫 번째 예이다(참조, 다니엘과 계시록 19-19 장).

▣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별을 섬기는 자들(즉 천체에 있는 빛을 신으로 보았다)이었다. 이러한 탑은 밤 하늘을 관찰하기 위해 올려 쌓은 단이었다. 이 장소들은 신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만나는 장소였다.

11:5 이것은 매우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참조, 18:21; 출 3:8).

11:7 “우리가 내려가서” 이 절도 하나의 **칼명령**과 이와 관련된 두 **청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1:26; 3:22 에서와 같이 복수형으로 되어있다. 비록 이 절은 영어에서 신인동형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을 드러낸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자신들의 타락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신다(참조, 롬 1-3 장).

“우리가 ~하자”는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이 반역하여 “우리가 ~하자”며 행하는 것을 저지시킨다(참조, 3, 4, 7 절).

11:9 “바벨” 고고학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수메르 문화에 속한 문서들이 발견되어 당시에 모든 민족이 한 가지 언어를 썼던 것을 알게 된 것은 흥미롭다(즉, 사무엘 노아 크래머의 글 “언어의 바벨: 수메르 역”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8:108-111).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어원적 의미는 “혼란”(즉, **바랄**, BDB 93)으로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용하던 한 가지 언어를 혼동되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벨은 문자적으로는 “신의 문”(아카디아어 **바-이라니**)으로서 그 위에 별신들을 예배하기 위한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건물이 있는 큰 규모를 가진 어떤 지구랏의 이름과 매우 유사하다. 바벨론은 타락한 세계 제국의 상징으로서 니므롯으로 표현되었고 후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대표되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그려지고 있다.

개역개정 11:10-11

¹⁰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¹¹**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의 후손은 창 5:3-32 과 10:21-31 에서 셋으로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계보는 11:10-25 에서 데라/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계속된다(참조, 눅 3:23-38).

개역개정 11:12-13

¹²아르박샷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¹³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맞소라 본문은 12 절에서 가이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70 인역은 눅 3:36 과 같이그를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 “셀라” BDB 1019 II 를 보라.

개역개정 11:14-15

¹⁴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¹⁵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에벨” BDB 720 을 보라.

개역개정 11:16-17

¹⁶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¹⁷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벨렉” BDB 811 II 를 보라.

개역개정 11:18-19

¹⁸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¹⁹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르우” BDB 946 를 보라.

개역개정 11:20-21

²⁰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²¹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스룩” BDB 974 를 보라.

개역개정 11:22-23

²²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²³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나홀” BDB 637 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바벨탑은 무엇인가?
2. 창 11 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창세기 11:24-13:18 의 개론

- 가. 창세기에서 이 부분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를 자세히 다루기 시작한다.
- 나. 창세기의 50 장은 모두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속에 관심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다.
- 다. 아브람은 믿음 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갖고 있었다. 선택과 긍휼의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택하신다.
- 라. 하나님은 세상을 택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참조, 12:3c; 출 19:4-6; 뱀후 2:5, 9; 계 1:6).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참조, 창 3:15; 겔 18:23, 32; 딤편 2:4; 뱀후 3:9).
- 마. 탈무드는 부르심의 7가지 축복을 말한다:
 1. 아브람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2. 그는 생애동안 축복을 받을 것이다.
 3.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다.
 4.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5.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
 6.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7. 그의 영향력은 전세계에 미칠 것이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1:24-25

²⁴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²⁵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24 “데라” “데라”는 아마도 “망설이는,” “늦추는,” 혹은 “이주하는”을 의미한다(BDB 1076). 여호수아 24:2 에서 볼 때 그와 그의 가족이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그의 가족의 이름은 그들이 달신인 신을 우선적으로 섬겼음을 나타낸다. 달신을 우르 데마 하란의 사람들이 섬겼다. 그러나 창 31:53 은 그가 야웨를 알았음을 암시한다.

개역개정 11:26

²⁶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1:26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것은 나이에 따른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에 따른 순서일 것이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1) “높임을 받는 아버지” (2) “아버지를 높이는 자” 혹은 (3) “나의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다”(BDB 4)라는 뜻을 갖는다. 나홀이라는 이름은 “혈떡임” 또는 앓시리아의 지명이고(BDB 637), 하란은 “산에 사는 사람”(BDB 248)을 의미한다.

개역개정 11:27-30

²⁷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²⁸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²⁹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³⁰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11:27 “롯” BDB 532 II 를 보라.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것은 하란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법이다.

▣ **“갈대아의 우르”** 갈대아인의 문화는 많이 발달한 문화였는데(즉 수메르의 문화가 주는 유익을 누리며 이루어졌다) 아브람이 살았던 시대 이후에는 더욱 번창했다(BDB 505).

11:30 “사래” BDB 979 를 보라.

▣ **“밀가”** BDB 574 를 보라.

▣ **“또 이스가의”** 이 사람 (BDB 414)에 대하여 또한 이절에서 왜 이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져있지 않다. 랍비들(또한 요세푸스, 제롬, 어거스틴)은 이 사람이 사라라고 말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진 것으로 말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같은 형태의 신학적 관점이 역시 나타나는데 곧 장자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지 않는 점에서 그러하다. 문화적으로 장자는 씨족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야웨의 백성 중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개역개정 11:31-32

³¹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³²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1:31 “(그들이) 떠나”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갔는지 아니면 아브람이 그들을 이끌고 갔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어떤 이는 가정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래 데라를 부르셨는데 그가 우상숭배에 빠져든 것이라고 한다. 내가 볼 때 전체 문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우르를 떠남으로 아브람은 자신의 가족 공동체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국가적 신들도

함께 두고 갔다. 그는 자신에게 신비스러운 형태로 말씀하신 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편안하고, 정착된 삶을 버리고 갔다.

11: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우리가 11:26 과 12:4 의 합인 145 년에서 이 절에서 말하는 205 년을 뺀다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60 년을 더 살았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계산은 행 7:4 에 있는 스테반의 설교에 있는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스테반의 역사적 고찰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여러 면에서 상이점을 갖고 있다. 아마도 그는 랍비들의 해석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아브라함이 비록 11:26 에서는 맨 앞에 이름이 나오지만 훨씬 후에 태어났고 따라서 스테반의 계산이 정확한 것이라고 말한다. 사마리아 오경이 여기서 “144 세”를 나타내는 점이 흥미롭다.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물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제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